

이재운
이민법 변호사
저의 케이스를
진행하는 마음으로
성실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703.916.1111 / 703.916.1215

경쟁력 있는 이자율
호프 프리퍼드
정기예금 (CD)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지점에 문의하십시오.
Bank of Hope®

중영일보

“최고”
가장 많은 이들의 선택
배준원 응자
NMLS# 178471
703-868-7147

유 파이낸셜 그룹
세금
보고
703-961-8811

코넬대 의대 확장 책임 한인, 연구조작 논란

최명근 박사 패혈증 논문 관련
PETA, 잘못된 데이터 사용 이유
보건복지부에 조사 요청 서한
의학계 포럼에서도 의혹 제기



최명근 박사

한인 최초로 아이비리그 의과 대학 학
장을 지냈던 최명근(영어명 어거스
틴·64·사진) 박사가 연구 조작 의혹 논
란에 휘말렸다.

이번 논란은 동물보호단체 페타(이하 PETA)가 지난 2021년 국립보건원(이하 NIH)에 제기한 소송을 근거로 최 박사에 대한 연구비 지원 중단 요구와 연방 보건복지부에 조사 요청 서한을 발송하면서 불거졌다.

PETA에 따르면 최근 연방 보건복지부 산하 인간연구보호국(OHRP) 측에 생쥐를 이용한 최 박사의 패혈증 연구 중 최소 4건의 논문이 부정확한 데이터로 인해 수정됐다며 조사 요청 서한을 발송했다.

최 박사는 지난 2017~2022년까지 코넬대학교에서 첫 한인 의대 학장을 역

임했던 인물이다. PETA가 발송한 서한은 잘못된 데이터가 임상 시험의 근거로 사용되는 것을 막고 최 박사가 실험을 중단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PETA는 주장의 근거로 2002년 이후 최 박사의 패혈증 연구 논문 중 9건이 철회됐다는 점과 그중 1건은 학술지에서 서까지 철회 조치된 것을 언급했다. 학술지에서 논문이 철회된 것은 최 박사가 이전 실험 데이터를 사용했고, 다른 출판물의 이미지 등을 중복으로 사용한 사례가 발견됐다는 게 이유였다.

PETA의 캐서린 로 박사(신경과학자)는 “패혈증 임상 시험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임상 단계 전 동물에게 적용되는 전임상 연구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정확히 인지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인간연구보호국은 최 박사의 연구 주장 등을 조사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PETA가 서한을 발송한 인간연구보호국은 연구자들이 연방 정책에 따라 실험 및 연구 등을 수행하는지를 조사하고 위반 행위를 적발하는 기관이다.

연방 정부 기관에 최 박사에 대한 조사를 요청한 것은 PETA가 지난 2021년 NIH에 제기한 패혈증 실험 지원 자금 소송과도 관련돼 있다.

PETA 측은 논문이 철회됐음에도 NIH가 최 박사에게 납세자의 세금으로 충당하는 연구 자금을 약 7700만 달러나 지원해왔다고 주장했다.

현재 최 박사의 연구 결과 위조 논란은 의학계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다. 의학계 관계자들은 각종 논문을 다루는 온라인 포럼인 ‘펍 피어(Pub Peer)’에서도 최 박사의 논문 등을 두고 연구 결과 조작 등의 의혹을 제기하는 댓글들이 달리고 있다.

최 박사는 이번 논란과 관련, 일체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본지는 최 박사에게 이번 연구 조작 의혹과 관련한 입장을 묻는 이메일을 보냈지만, 10일 현재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하고 있다.

코넬대학교 학교 신문인 ‘코넬 데일리 선’도 최 박사에 대한 논란을 보도하면서 “만약 연구 부정행위 혐의가 사실로 밝혀질 경우 최 박사는 연방 차원의 형사 고발과 함께 벌금, 지원금 중단, 징역형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 코넬대학교 연구 조사 부서(ORIA)는 지난 2020년에 조사를 시행했지만, 최 박사의 연구 부정행위는 없었다는 주장이다. 단, ORIA는 최근 불거진 최 박사의 혐의 및 논란 등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PETA의 로 박사는 “대학 기관에서의 조사는 엄격하게 시행되지 않는다”며 “그래서 우리가 연방 기관에 직접 조사를 요청하는 서한을 보낸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최명근 박사는 중학교 1학년 때 부모를 따라 이민 온 1.5세대. 루이빌 의대를 나와 존스 홉킨스, 예일, 하버드 의대 교수 등을 지낸 세계적인 의과학자다.

정당별 의석수 지역구 254석 + 비례대표 46석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당	의석수
더불어민주당·민주연합	175석
국민의힘·국민의미래	108석
조국혁신당	12석
개혁신당	3석
새로운미래	1석
진보당	1석

‘여당 총선 참패’ 윤 대통령 “겸허 수용”

윤석열(사진) 대통령이 11일 여당 참패로 끝난 4·10 총선 결과에 대해 “총선에 나타난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여 국정을 쇄신하고 경제와 민생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관섭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오전 용산 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같이 전했다.



윤석열 대통령

그러면서 대통령실은 대대적인 인적 개편을 예고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국정을 쇄신한다는 것은 인적 쇄신이 선행되어야 한다”며 “비서실장을 포함해 정책실장과 전(全) 수석들이 사의를 표했다”고 말했다. 다만 국가안보실은 제외됐다. 북한의 도발 위협 등 엄중한 외교안보 상황을 고려한 때문으로 보인다. 이 관계자는 이어 “한덕수 국무총리도 윤석열 대통령에게 구두로 사의를 표명했다”고 전했다. 그동안 윤 대통령은 인위적 참모진 개편이나 개각 요구에 부정적이었다.

현일훈·박태인 기자

▶ 2면 개각으로 이어집니다

세금환급액 평균 3050불

4.8% 증가, 계좌이체 95.5%

세금보고 마감일이 나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평균 환급액이 지난해보다 140달러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IRS)이 공개한 지난달 29일자 기준 세금보고 누적통계에 따르면 1인당 평균 환급액이 3050달러로 지난해 3월 31일 자 2910달러보다 4.8% 늘었다. (표 참조)

평균 환급액은 접수 초기인 2월 2일 1395달러로 전년 동기보다 28.9%

가 감소한 데 이어 9일에도 1741달러로 12.8% 줄었다. 하지만 접수 19일째인 2월 16일에는 3207달러로 2.1% 증가하며 반등한 바 있다.

총 환급액 규모도 1856억4100만 달러로 전년보다 1.4% 증가했으나 환급건수는 6085만8000건으로 전년보다 3.3% 줄었다.

계좌 이체(direct deposit)를 선택한 납세자들의 총 환급 건수는 5812만 6000건으로 4.5% 감소했으나 전체 환급 건수의 95.5%에 달했다.

개인소득세 신고 누적 통계 (3월 29일자 기준)

항목	2023	2024	증감(%)
총 접수건수	90,111,000	90,315,000	0.2
총 전자 접수건수	87,126,000	87,369,000	0.3
총 환급건수	62,932,000	60,858,000	-3.3
총 환급액(\$)	183,130,000,000	185,641,000,000	1.4
1인당 환급액(\$)	2,910	3,050	4.8
계좌이체 환급건수	60,867,000	58,126,000	-4.5
계좌이체 총 환급액(\$)	180,748,000,000	181,607,000,000	0.5
계좌이체 1인당 환급액(\$)	2,970	3,124	5.3

자료: IRS

계좌 이체 환급액은 0.5% 증가한 총 1816억700만 달러로 전체 환급액의 97.8%를 차지했으며 평균 환급액은 1인당 3124달러로 5.3% 늘었다. 누적 총 접수 건수는 9031만5000건

으로 지난해보다 소폭(0.2%) 증가했다. 전체 접수건의 96.7%에 해당하는 온라인 전자신고 접수는 8736만9000건으로 지난해보다 0.3% 늘었다.

박낙희 기자

퍼스트 홈케어
WWW.FIRSTHCO.COM
571.549.6789

엘리콧시티 교통사고
모커리 척추병원
목·허리 통증 전문 병원
교통사고
담당 Dr.김동국 D.C.
410-480-0083

편한나라 척추신경
교통사고 디스크
엘리콧시티
410-480-2331
락빌
301-279-6960
원장 송영성 D.C.

롱라이프 홈케어
571.623.0255
Annandale

골든 벨라 보석상
결혼 예물 전문
G.I.A. 다이아몬드
보석급 고가 매입
순금 여기 물리지 않음
보석 세공, 시계 수리
703.988.0033 센터빌
301.792.5615 H-Mart 내

MD Ellicott City
Snoopy Pet Grooming
강아지 그루밍 배우실분
강아지 그루머 구합니다.
443-759-9798

Hamkae Center

미국 시민권 신청 하십시오

반드시 예약을 하셔야 합니다

시민권 클리닉

함께센터에서는 이민법 전문 로펌인 Berry Appleman & Leiden의 자원봉사 이민 변호사들과 훈련받은 직원 및 자원봉사자가 시민권 신청서를 작성해 드립니다. 시민권 신청서는 자원봉사 이민변호사 또는 관련자격증 소유자들이 리뷰해 드립니다. (서비스 비용 \$25)

4월 27일 | 워싱턴새한장로교회
오후 12시 - 오후 4시 | 6901 Columbia Pike
Annandale, VA 22003

서비스 신청 링크로 직접 서비스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bit.ly / hc-sr](https://bit.ly/hc-sr)

spark@hamkaecenter.org
571-519-6939 또는 703-256-2208, TTY 711: 한국어 안내 2번

함께센터 건강 보험 서비스 안내

* 오바마케어: 특별등록기간(SEP)은 일반등록기간이 아닌 특수상황으로 인해 오바마케어에 등록할 수 있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 이 기간 동안 등록 자격: 연방정부 빈곤층 소득레벨 150% 이하, 메디케이드나 다른 보험을 상실 했거나 상실 직전, 가족인원 60일 이내 변동시 (출산, 결혼, 입양 등), 이사, 이민 신분의 변화 등. 특수 상황이 아니더라도 저렴한 가격으로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옵션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상담 문의: T. 703-952-1075, TTY 711, **건강보험 서비스는 시민권 이벤트에서 상담이 불가능 합니다.**

행안·복지·교육·과기 개각 검토,한덕수·이관섭 총선책임 사의

총선참패, 여권 인사 예고

대통령 “국민 뜻 받들어 국정 쇄신”
후임 총리엔 김부겸·이주영 등 거론
한동훈 “국민께 사과” 비대위장 사퇴

▶1면 ‘개각’에서 이어집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국정
의 변화와 혁신을 바라는 총선 민의를
받아들인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
다. 이날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
원장도 “국민의 뜻을 존엄하게 받아들
이고 깊이 반성한다”며 비대위원장직
에서 사퇴했다.

대통령실 참모들은 전날 총선 출구
조사가 나온 이후부터 반성 모드를 이
어갔다. 언론 접촉을 피한 이들이 대부
분이었다. 한 관계자는 자신을 “대통령
을 잘못 보좌한 죄인”이라고 말했다. 수
석뿐 아니라 일부 비서관 사이에서도
“우리도 사표를 내야 한다”는 말이 나
왔다.

문제는 인적 쇄신의 폭이다. 우선 한
총리와 참모들의 사의를 윤 대통령이
어느 정도 수준에서 처리할지 이목이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한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들. 왼쪽부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한 총리,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김선호 국방부 차관, 조규홍 복지부 장관,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2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선거 결과에 책임을 지고 물러나겠다”고 밝힌 뒤 퇴장하고 있다. 김성룡 기자·연합뉴스



쏟린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한 총리
가 사의를 밝히자 윤 대통령이 이를 언
론에 공개하는 것을 허락했다”며 “사
실상 한 총리를 교체하는 쪽으로 결심
을 굳힌 것 같다”고 전했다.

다만 새 국무총리 임명에는 국회 동
의가 필요하다. 국회 재적 의원 과반 출
석과 출석 의원 과반의 찬성이 가결 요
건이다. 192석의 범야권 협조가 필수적

이라는 얘기다. 여권 관계자는 “새 국무
총리는 협치를 상징하는 자리인 만큼
야당이 수용할 수 있는 인사를 지명하
는 게 중요하다”며 김부겸 전 국무
총리를 언급했다. 문재인 정부에
서 국무총리를 지낸 김부겸 전 총
리는 이번 총선에선 더불어민주당
당 상임 공동선대위원장을 맡
았다. 이외에 국회부의장

을 지낸 이주영 전 새누리당 의원도 거
론된다.

한 총리 외에 4~5개 부처 장관 교체
기류도 감지된다. 여권 핵심 관계
자는 “윤 대통령 취임 직후 2년가
량을 함께해 교체할 타이밍이 됐
거나 업무 피로도가 높아진 부처
를 중심으로 교체를 논의하
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



이관섭

면서 이주호 사회부총리를 비롯해 이
상민 행정안전부·이종호 과학기술정보
통신부·이정식 고용노동부·조규홍 보
건복지부 장관 등을 언급했다.

용산 비서진도 전열 재정비가 불가
피하다. 여권 관계자는 “이관섭 비서실
장은 정책과 정부 영역 모두 탁월하지
만, 인적 쇄신의 메시지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라도 교체가 불가피하다”며 “한
오섭 정부수석과 이도은 홍보수석 등
정무-홍보 라인의 교체가 이뤄질 가능
성이 높다”고 전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윤 대통령에게 직언할 수 있는 레드팀
신설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단순 직
급을 기준에 두고 인적 쇄신을 하기보
단 참모들의 욕식을 가려 쏘아내는 물
갈이가 더 시급하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주변에선 후임 비서실장으
로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 등을 거론한다. 지난
대선 때 ‘윤석열 캠프’의 정무실장을 맡
았던 신지호 전 새누리당 의원은 공식
인 시민사회수석이나 차기 정무수석
후보군으로 언급된다.

한일훈·박태인 기자

심상정 정계 은퇴 “25년 진보정치 소임 내려놓겠다”



“25년간 숙명으로 여기며 받든 진보 정
치의 소임을 내려놓겠다”

심상정 녹색정의당(이하 정의당·사
진) 의원이 11일 정계 은퇴를 선언했다.
정의당이 4·10 총선에서 0석이라는 처
참한 성적표를 받아들며 2012년 창당
이후 처음 원외 정당이 되면서다.

심 의원은 이날 “진보정당의 지속 가
능한 전망을 끝내 열어내지 못한 것이

큰 회한으로 남는다”며 “진보정당의
부족함과 한계에 대한 책임은 내가 떠
안고 가도록 허락해달라”고 말했다.

심 의원은 또 “극단적 진영 대결의 틈
새에서 가치를 지키려는 소신은 이번이
현실 정치에 부딪혔고 때로는 무모한
고집으로 비치기도 했다”고 회고했다.
정의당은 정당득표율 2.14%로 비례의
석 배분의 최소기준인 3%를 넘지 못했

다. 4선의 심 의원을 비롯한 지역구 도
전자도 모두 낙선했다.

이날 해단식에서 김준우 비상대책위
원장은 “준엄한 민심을 겸허하게 받아
들이겠다”고 밝혔다.

그간 ‘군소 진보정당’으로서 원내 캐
스팅 보트 역할을 해오던 정의당은 20
대 대통령 선거를 시작으로 8회 지방선
거와 감서구청장 보궐선거까지 참패하
며 분열을 반복했다.

정의당은 지난 2월 이번 총선의 핵심

키워드로 ‘노동’과 ‘녹색’을 내세우며
녹색당과 선거연합정당을 꾸리는 식으
로 대응했지만 ‘정권심판론’을 넘어서
지 못했다.

특히 정의당은 ‘민주당 2중대’라는
꼬리표를 떼어내기 위해 지난 4년간 노
력했다. 이재명 대표 등 민주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 때는 찬성표를
던졌고, 범야권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당
주연합에도 불참했다.

김정재 기자

조국·추미애·이성윤 국회로 ... ‘검수완박’ 공세 세진다

범야권 192석에는 ‘검수완박(검찰 수
사권 완전 박탈) 시준2’를 예고한 조국
(사진)혁신당 12석이 포함됐다.

조국 대표 등은 11일 첫 행선지로 서
울 서초동 대검찰청을 택했다. “이원석
(검찰총장), 송경호(중앙지검장)는 국
민의 명령을 따르라” “검찰에 주어진
마지막 기회” 등이 적힌 피켓을 든 채
였다.

이날 김건희 여사를 소환하라고 소
리친 조 대표는 “마지막 경고”라며 “국
민의 명령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검찰
조직은 국민 신뢰를 완전히 상실할 것”
이라고 주장했다. 조국당은 ▶검찰청
→기소청 전환 ▶검사의 직접수사 개시
권 폐지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검
사장 직선제 도입 등을 공약했다.

당선인들의 면면도 향후 ‘검수완박

시준2’ 공격성을 예고해 한다. 조 대
표는 문재인 정부 민정수석으로 검수완
박의 밑그림을 그린 인물이다. 법무부
감찰담당관으로 ‘검사 윤석열’에 대한
감찰과 징계를 주도했던 박은정 당선
인은 지난달 7일 “검찰의 어떤 부분을
어떻게 개혁해야 하는지 분명히 인식
하고 있다”고 말했다. 21대 국회에서 검
찰청법 개정안 추진을 주도했던 황운

하 당선인도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일부 당선인도 검찰
에 대한 적대감이 이렇지 못했다. 법무
부 장관 시절 윤석열 검찰총장과 수시
로 충돌했던 추미애(경기 하남갑) 당선
인은 6선 고지를 밟아 차기 국회의장을
넘보고 있다. 박주민·김용민·민형배 의
원 등 강성파가 선수를 높여 재입성했
고, 서울중앙지검장 출신 이성윤(전북
전주을) 당선인은 “검찰개혁의 최선봉
에 서겠다”고 말했다. 정용환 기자



워싱턴 날씨 (°F)

13일(토)	66-48	16일(화)	82-66
14일(일)	80-60	17일(수)	84-66
15일(월)	83-55	18일(목)	85-59

4월 12일(금) 67~53

워싱턴 중앙일보
7023 Little River Tpke #310, Annandale, VA 22003

The Korea Daily (USPS 020-081) is published daily except Sundays and Postal holidays that fall on Mondays for \$120 including applicable Virginia Sales Tax per year by The Korea Daily, 7023 Little River Tpke., Annandale, VA 22003. Periodicals Postage paid at Annandale, VA and at additional mailing offices.
POST MASTERS: send address changes to The Korea Daily.

연순향 부동산 C. 703-489-6926
sunnyyeon@gmail.com

**20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으로
여러분의 부동산을 잘 팔고 잘 사고
렌트도 잘 매니지먼트 해드립니다.**

MATCHINGPOINT 매칭포인트 결혼정보회사

VA/MD/DC 한인들을 위한 새로운 결혼매칭서비스 런칭!

가까운 인연, 먼 길을 돌아오기에 당신의 노력과 전문적인 만남의 주선이 필요합니다. 매칭포인트는 초혼, 재혼을 위한 의미있는 만남을 소개합니다.

QR코드 스캔 후 웹사이트를 방문하여 가입 절차 확인 및 편리하게 상담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 **571-591-7727**
웹사이트 **www.mymatchingpoint.com**

워싱턴 지역 10개년 주택공급 목표치 크게 못미쳐

SPECIAL STORY

페어팩스 카운티 36%, 몽고메리 카운티 56% 예상

워싱턴 메트로 지역이 최소의 주택 수요조차 충족시키지 못해 향후 엄청난 후유증에 시달릴 것이라는 경고가 계속되고 있다.

워싱턴지역정부연합회(COG)는 지난 2019년, 2020년부터 10년 동안 최소한 32만채의 주택을 건설해야 한다는 목표치를 제시했다. 일일 평균 87채를 건설해야 하는데, 현재까지 실적을 놓고 보면 일일 평균 60채 정도에 불과하다. 현재까지의 목표치에 비해 4만채 이상 부족한 셈이다.

주택 건설 정책을 적극 실시한 지역 정부와 그렇지 않은 지역정부 사이의 2030년 예상 목표치는 확연하게 차이가 크다. 비영리 싱크탱크 어번 인스티튜트 등의 보고서에 의하면, 버지니아



페어팩스 카운티는 현재 수준으로 주택을 공급한다면 2030년까지 목표치의 36%(2만3555채)에 그치게 된다.

전문가들은 페어팩스 카운티 수퍼 바이저위원들의 총체적인 무능의 결과물이라고 진단했다.

페어팩스 카운티는 사실상 혁신이 불가능한 민주당 정책 불모 지역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지역정부 수장의 능력 여하에 따라 결과는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

싱글하우스 조성을 공동주택 조닝

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과감하게 법률을 개정한 버지니아 알렉산드리아 시티는 130%(1만4468채), 알링턴 카운티는 122%(1만6155채), 도심 재개발 지원 프로젝트와 슬럼 지구 개선 사업에 막대한 재원을 투입하고 있는 워싱턴DC는 117%(6만7040채) 초과달성이 예상된다.

작은 지역정부 폴스 처치도 주민 반대에도 주택건설 정책을 독려해 139%(2213채)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버지니아 라우든 카운티는 난개발에 대한 비판을 무릅쓰고 주택개발을 남발하고 있던 하지만 86%(2만3015채)가 예상된다.

몽고메리 카운티는 개발업자와 정치권 인사들의 이전투구가 계속되고 있으며, 싱글하우스 조닝 개정에 반대하는 마크 얼릭 군수가 버티기로 일관

하고 있던 하지만, 56%(2만3133채)로 체면 치레가 가능하다.

주택을 많이 공급해도 경제적으로 구입가능한 주택이어야 중산층과 서민층을 보호할 수 있는데, 그렇지도 못한다는 결론이 나왔다. 보고서에 의하면 2020-2023년 사이 페어팩스 카운티에 공급된 주택의 14%만이 경제적으로 구입가능한 주택이었다.

경제적으로 구입 가능한 주택이란 지역 중간가구소득의 80% 정도 소득가가 매월 주거비로 지출할 수 있는 최대한도, 즉 2300달러 미만으로 구입이 가능한 주택을 말한다.

전문가들은 페어팩스 카운티가 저렴한 주택 공급을 통해 지속가능한 인구정책을 추진하지 않는다면 급격한 인구노령화와 도심 슬럼 현상이 가속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옥재 기자

애난데일 화재건물 방치 한인 건물주들 법적 고발

버지니아 애난데일 한인타운 화재 사건으로 폐허가 된 옛 토속집, 본촌 차킨, 한미우체국 등의 건물을 1년 이상 방치해온 한인 건물주가 페어팩스 카운티로부터 법적 고발 당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해당 건물주 한기조, 한애영 씨는 현재 오래된 주에 거주중으로, 이들은 카운티 측의 잔해 철거 등의 명령을 수개월간 묵살해왔다. 이에 대해 페어팩스 카운티 측은 지난달 27일 페어팩스 카운티 순회법원에 이들을 고소했고 "30일 이내에 건물 완전철거 혹은 건물 수리"를 명령하도록 요청했다.



한편 카운티 측은 지난 9월부터 건물주들에게 각종 위반 통지 등을 우편으로 보냈지만, 건물주들은 이에 일체 응하지 않았고, 우편물은 모두 반송됐다. 카운티 측은 "이같은 요구를 무시하면 하루 최대 4,000달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박세용 기자



(왼쪽부터) 김태원 이사, 김유숙 사무국장, 김태한 이사장, 조기중 총영사, 이지호 참사관

재외동포청, 한인커뮤니티센터 기금 전달

개·보수 지원사업 기금 명목

코리아커뮤니티센터(이사장 김태환, KCC)가 재외동포청(청장 이기철)으로부터 한인센터 개·보수 지원사업에 대한 기금 2만달러를 전달받았다.

조기중 총영사는 "커뮤니티 센터는 동포들에게 만남의 장 역할을 하며 '통합'을 이뤄내 명실공히 동포사회 전체의 큰 자산으로 자리매김 했다"면서 "개·보수가 이뤄져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재외선거 및 순회영사 등의 서비스를 동포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해준데 감사하다"고 전했다.

조 총영사는 "한국정부와 동포들의 공적자금이 투입된 만큼 투명성있게 운영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태환 이사장은 "타지역 한인회장들이 워싱턴에 방문해 가장 부러워하는 점으로 한인커뮤니티센터를 꼽는다"면서 "부채를 안고 있어 어려움이 있던 적절한 시기에 도움을 준 한국정부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김태원 이사는 "한국 국민들의 혈세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사명감으로 투명성 있게 운영에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김윤미 기자

최고급 타운홈 오픈하우스 행사

오는 13일 오전 11시부터



버지니아 최대 한인 타운인 애난데일이 속한 버지니아 페어팩스 카운티 브래덕 디스트릭의 재개발이 가속화 되고 있는 가운데, 최고급 타운하우스들이 지속적으로 들어서고 있다.

특히 오는 13일(토) 오전 11시부터 오픈 하우스 행사를 갖는 '더 타운스 옛 리틀 리버 크로싱'은 애난데일에 조성되는 최신 럭셔리 타운홈 단지로 애난

데일의 주거문화를 한단계 업그레이드 하는 '변화의 시작'이라는 것이 부동산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타운하우스는 1800~2800 스퀘어피트 규모로 3~5개의 침실, 3.5~4.5개의 욕실을 갖추고 있다.

한편 오픈 하우스 행사에서 계약하는 고객들에게는 최대 2만 달러의 옵션 혜택이 주어지며, 각종 음식과 플라워 크래프트 바 행사도 함께 열린다.

>문의: 571-608-8809

OMNI
Protecting Your Dreams Since 1985
오직 OMNI!
보험에 관한 모든 선택 - 오픈화재

- 사업체보험
- 자동차보험
- 집보험
- 의료보험
- 생명보험

광고는 따로
OMNI
1-866-915-6664

김진욱
척추신경전문의

- 최신형 의료시설 완비
- 최신형 X-Ray 완비
- 교정 및 물리치료
- 의료보험

703-691-3111

고객의 꿈을 실현하는
메트로시티은행
METRO CITY BANK

SBA 융자, USDA 융자, 주택 융자

센터빌 지점 571-490-7655 애난데일 지점 571-335-7163

한번고객은 평생고객
탐여행사
www.toptravelusa.com
info@toptravelusa.com

센터빌 703.543.2322 VA
애난데일 703.256.0606 VA
엘리콧시티 410.480.0100 MD

항공권도매직판점

Dental Implant (치과 임플란트) \$1,000

- Implant Crown, Extra (임플란트 크라운, 별도) \$750

40 years of experience in every aspects of Dental Implants
(다양한 종류와 형태의 치과 임플란트, 40년 경력)

Kie D. Lee, DDS, MD
(703)569-8000
WashingtonImplantCenter.com
6220 Old Keene Mill Ct., Springfield, VA 22152

아름다움을 찾아 함께 가는 길

2024년 제 14기 사진강좌 수강생 모집

한국사진작가협회 워싱턴지부에서는 사진을 처음 접하시는 분, 사진작가가 되고 싶으신 분, 또는 사진작가들과 교제를 원하시는 분들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 수업기간: 4월 13일(토)~6월 1일(토), 8주간

☑ 수업장소: [사] 한국사진작가협회 워싱턴지부

* 문의: 703-622-0698(이숙) / 703-431-0018(김진철)
410-963-6247 (MD 지역, 장성조)

☑ 등록기간: 3월 25일(월)~4월 12일(금)

☑ 수 강 료: \$400

* 등록비 CHECK 보내실 곳: Paskwdc
14631 Lee Hwy. #314, Centreville, VA 20121

☑ 강좌 내용

- 사진기 다루는 법
- 촬영 후 사진 관리 및 활용법
- 다양한 촬영 기술과 사진 장르
- 사진 기초 단계

날짜	2 pm~3:30 pm		3:30 pm~5 pm	
	4월 13일	개강식, 사진공부 시작 - 카메라 구입에 관하여	카메라의 구조와 기능	
4월 20일	초보자를 위한 사진 촬영 테크닉		초보자를 위한 사진 촬영 테크닉 계속	
4월 27일	인물사진		노출의 이해	
5월 4일	사진의 장르들		구도의 이해	
5월 11일	풍경 사진		접사 사진의 이해	
5월 18일	공모사진에 관하여		사진을 위한 빛과 색	
5월 25일	사형 단체 출사			
6월 1일	마지막 강의 - 좋은 사진이란, 앞으로의 사진 공부		종강식	

(사) 한국사진작가협회 워싱턴지부

한인은행 SBA 용자 2분기도 저조

고금리 지속 전년비 14.8% 감소 1분기보다 액수·건수 감소폭 줄어

고금리 지속으로 지난 2분기도 전국 한인은행들이 작년만 못한 SBA 용자 실적을 거뒀다. 다만, 1분기보다 승인 액수와 건수 모두 감소 폭을 줄이는 등 긍정적인 신호도 포착됐다.

연방 중소기업청(SBA)의 '2023~2024회계연도' 2분기(2024년 1월 1일~3월 31일) 누적 실적에 따르면, 전국 한인은행 13곳의 SBA 용자 총액(승인액 기준)이 전년 동기의 6억2937만6900달러에서 14.8% 감소한 5억3623만1200달러였다. 승인 건수도 지난해 500건에서 25건(5.0%) 줄어든 475건이었다. (표 참조) 이는 지난 1분기의 승인 액수(-28.6%)와 승인 건수(-14.1%)와 비교하면 감소 폭이 크게 개선된 것이다.

한인은행 13곳 중 8곳의 SBA 용자 승인 건수가 줄었다. 9곳은 승인 액수가 줄었지만 은행오브호프, PCB뱅크, 오픈뱅크의 승인 건수와 액수 모두 전년 대비 증가했다.

뱅크오브호프의 승인 건수(108건)와 승인 액수(8852만500달러)가 전년 대비 각각 28.6%와 35.8% 늘었다.

한미은행의 승인 건수(59건)와 승인 액수(5896만2700달러)는 전년 대비 모두 20% 이상 감소했다. PCB뱅크는 지난해(42건)보다 16.7% 증가한 49건을 기록했으며 승인 액수도 지난해보다 2.4% 늘었다.

전국 한인은행 중에서 승인액 규모가 가장 큰 은행은 오픈뱅크였다. 오픈뱅크의 2분기까지 승인 액수와 건수는 9214만8000달러와 63건으로 집계됐다.

CBB뱅크와 US메트로뱅크 모두 승인 건수와 액수가 전년 동기 대비 두 자릿수로 감소했다.

뉴욕에 본사를 둔 우리아메리카, 뉴뱅크, 신한아메리카 모두 저조한 실적을 기록했다. 우리아메리카의 건수와 액수 감소 폭은 각각 16.0%와 9.9%였으며 뉴뱅크의 경우엔, 25.9%와 -14.7%였다. 특히 신한아메리카는 올해 승인 건수(3건)가 지난해와 동일했지만, 승인 액수는 전년 동월 대비 85.4%나 급감했다.

한편, 고용시장과 경제가 견조한 가운데 인플레이션이 다시 반등세를 보이면서 기준금리 인하가 올해 1회 또는 아예 없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서재선 기자

순위 은행명(지역)	승인 건수(건)			승인 액수(\$)		
	2024년	2023년	증감률(%)	2024년	2023년	증감률(%)
23 오픈뱅크(캘리포니아)	63	46	37.0	92,148,000	69,587,000	32.4
24 뱅크오브호프(캘리포니아)	108	84	28.6	88,520,500	65,206,900	35.8
38 한미은행(캘리포니아)	59	81	-27.2	58,962,700	91,647,500	-35.7
41 CBB뱅크(캘리포니아)	49	67	-26.9	57,707,000	85,378,000	-32.4
51 PCB뱅크(캘리포니아)	49	42	16.7	50,768,000	49,568,000	2.4
72 US메트로뱅크(캘리포니아)	24	32	-25.0	38,783,000	69,288,500	-44.0
100 우리아메리카(뉴욕)	21	25	-16.0	26,369,000	29,269,000	-9.9
104 퍼시픽(캘리포니아)	27	26	3.8	25,993,000	47,640,500	-45.4
105 뉴일레나뱅크(뉴저지)	20	21	-4.8	25,814,000	27,076,500	-4.7
107 뉴뱅크(뉴욕)	20	27	-25.9	24,680,000	28,940,000	-14.7
111 프로미스뱅크(조지아)	17	20	-15.0	23,330,000	17,116,000	36.3
118 메트로시티뱅크(조지아)	15	26	-42.3	22,238,500	42,359,000	-47.5
711 신한아메리카(뉴욕)	3	3	0.0	917,500	6,300,000	-85.4

자료: 연방 중소기업청(SBA)

이젠 11월 본선... 한인들 다시 뚝뚝

선택 2024

1·2위 진출 후보들 캠프 정비 연방하원 한인 후보 4명 진출 주상하원엔 각각 1명 총력전 LA시의회 유 후보 밀착 캠페인



미셸 스틸, 영김, 데이브민, 데이비드 김, 그레이스 유

지난달 예선을 마친 한인 후보들이 다가올 결선 준비에 나섰다. 1위는 자리를 굳히고 2위는 반전 승리를 노린다.

대통령 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오는 11월 5일 본선을 앞두고 각급 단위 한인 후보들이 득표 활동 강화와 자금 확보를 위한 총력전을 시작한 것이다.

연방하원 3선을 눈앞에 두고 있는 미셸 스틸 의원(45지구)은 경쟁 후보로 민주당 출신 베트남계 후보가 낙점되면서 상대적으로 표심 공략 방안을 마련 중이다. 스틸 의원은 예선에서 총 55%를 득표했으며 4명의 민주당 후보가 45%를 얻었다.

역시 경쟁 민주당 후보들을 압도한 영 김 의원(40지구) 측은 DC에서의 입법활동과 남가주 지역구에서 득표활동을 병행하며 현역 의원으로서 신뢰감을 높이는 것을 결선의 큰 기조로 삼고 있다. 김 의원은 지난달 한국을 방문해 정재계 지도자들을 만나는 한편 40지구의 응급 안전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에컬리워 예산안 통과에 힘을 쏟았다.

연방하원 47지구 데이브 민 후보는 최근 중앙당으로부터 '핵심 전략지역'

으로 선정되면서 집중 지원을 약속받아 주목을 받고 있다. 예선에서 민주당 후보와 경쟁을 벌이는 와중에 비록 1위 자리를 놓쳤지만 26%의 득표와 타 민주당 후보들의 지지세를 합하면 50% 넘는 득표가 본선에서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예선에서 공화당 후보들의 총 득표율은 48%에 달한다.

연방하원 34지구 데이비드 김 후보 진영은 경쟁 현역의 선전과 공화당 한인 후보 등장으로 표가 갈리면서 28% 득표에 그쳤다. 현역인 지미 고메즈 후보는 51%를 얻어 1등으로 예선을 통과했다.

김 후보 캠프는 일단 한인들을 포함해 전체 투표율이 소폭 낮아 손실을 가져온 것으로 분석하고 더 나은 자세로 득표 활동을 지속한다는 계획이다.

가주 상원 37지구의 최석호 후보는 비록 21% 득표로 2등을 했지만 민주당 강세 지역임에도 전체 공화당 표가 54%에 달하는 등 친공화 표심이 강해졌다는 평가 속에 역전의 발판을 마련한다는 포석이다. 1위인 현역 민주당 조시 뉴먼 후보는 30%를 얻었다.

최 후보는 탈락한 공화 후보들과의 공조, 가주 민주당 정부에 대한 실망감을 부각해 중도표를 최대한 섭렵한다는 전략이다.

가주 하원 54지구 존 이 후보는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 효과(득표율 34%)를 얻은 것으로 자체 분석하고 결선 전략을 짜고 있다.

이 후보는 "다음 주 한인사회에 성적표를 보고하고 지지를 다시 한번 호소할 예정"이라며 "예선에서 아시아를 포함한 소수계와 한인들의 지원과 관심이 컸으며 진보 진영의 표가 결집하는 효과를 누렸다"고 분석했다.

특히 이 후보는 한인사회와 밀착된 캠페인이 더 필요하다고 분석하고 1세와 1.5세 진영의 관심을 당부했다.

LA시 10지구에서 2위로 예선을 마친 그레이스 유 후보는 "생각보다 경쟁 후보들의 몰락공세가 강력했었다"며 "본선 캠페인에서는 재정 확보에 더욱 집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각 한인 캠프 진영은 이르면 내달 공식 출범을 알리고 본격 득표활동에 돌입한다. 최인성 기자

LA출신 김성희, 한국 총선서 당선

4선 심상정 의원이 출마한 경기 고양시갑서 승리 거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경기 고양시갑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김성희 후보(왼쪽)가 11일(한국시간) 오전 자신의 선거 사무소에서 당선 확실 소식에 활짝 미소 짓고 있다. [연합]

한국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LA출신 김성희 후보가 5선에 도전했던 심상정 후보를 누르고 당선돼 주목받고 있다.

11일(한국시간) 한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노태약)에 따르면 개표 결과 경기 고양시갑 국회의원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성희 후보가 45.3%(6만9617표) 1위 득표율로 당선을 확정했다. 2위인 국민의힘 한창섭 후보는 35.3%(5만4308표), 3위인 녹색정의당 심상정 후보 18.4%(2만8293표) 득표에 그쳤다.

김성희 당선인은 11일 오전 선거사무소 기자회견에서 "시민사회 활동,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일하면서 (국회 진출

하겠다. 고양갑 유권자의 명령을 받들어 진보개혁 1번지인 고양시의 자존심을 지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당선인은 고려대학교 부총학생회장 출신으로 2000년대 중반부터 2010년대 중반까지 12년 동안 LA에서 민주당 진보단체 시민운동을 했다.

당시 그는 LA노사모 간사, 일본군 위안부 사죄 결의안(HR121) 및 평화의 소녀상 건립에 앞장선 배상과 교육을 위한 위안부 행동(가주한미포럼) 간사 등으로 일했다. 2010년대 중반 한국으로 귀국해 신계륜·정정래·손혜원 의원실 보좌관, 전 열린민주당 대변인을 거쳤다. 이후 정치연구소 와이 소장으로 방송사 시사프로 정치평론가로 활동해 왔다.

한편 심상정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민심이 곧 천심이라고 했다. 오늘의 결과를 하늘의 뜻으로 생각하고 주민 여러분들의 선택을 겸허한 마음으로 받들겠다"고 승복했다. 김형재 기자

한인 다수 재학 학교서도 AI 누드사진 유포

타운 인근 페어팩스고 조사 중 LAUSD "적절한 징계조치할 것"

인공지능(AI)이 보편화하고 있는 가운데, 학교마다 이를 남용한 범죄가 잇따라 발생해 학부모들의 경각심이 요구된다.

LA통합교육구(LAUSD)는 최근 한 인학생도 많이 재학하는 페어팩스고등학교에서 부적절한 사진이 유포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조사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학교는 한국어 이중언어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LAUSD는 9일 성명을 통해 "사건을 조사 중인 만큼 구체적인 정보를 자세히 공개할 수 없지만, 현재까지는 학생들의 앱을 이용한 기술 오남용으로 보

고 있다"며 "우리는 이번 사건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영장이 발부되면 적절한 징계를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LA경찰국(LAPD)이나 학교 경찰이 조사하고 있는지, 해당 학생들에게 징계 조치를 했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학생들의 AI 오남용 케이스는 올 초부터 계속 나오고 있다.

지난 1월에는 베벌리힐스 8학년 학생 5명이 반 친구들의 얼굴을 합성한 가짜 누드 사진을 만들어 공유한 게 발각돼 퇴학됐다. 베벌리힐스 통합교육구에 따르면 이들은 인공지능으로 생성한 누드 사진에 같은 학년 여학생 16명의 얼굴 사진을 합성하고 이를 돌려본 것으로 드러났다.

장연희 기자

형사법 전문 변호사

ERIK JURGENSEN

막막한 순간, 나에게 힘이 되는 변호사를 믿으세요. 현재는 물론 미래에도 영향을 끼치는 형사사건, 대응에 부족함이 없어야 합니다.

- 음주운전 / 교통위반
- 폭행 / 아동학대
- 절도 / 횡령
- 기물파손 ■ 마약

에릭 저겐슨 변호사 C. Erik Jurgensen, ESQ

- TOP Criminal Lawyers by Northern Magazine
- TOP 20년간의 법정경력

시작이 강해야 결과가 강합니다

DAVID MARKS

20년 이상 한인사회를 위하여 일하고 있는 강하고 힘있는 법정 변호사, 데이빗 막스! 정확안 분석력과 정보,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축적된 실력으로 합당한 판결을 받아드리겠습니다.

저희 손을 잡으십시오. 저희에게 맡기십시오. 그리고 편히 주무십시오.

David L. Marks, ESQ 데이빗 막스 변호사

- 20년간의 법정경력
- Member of "MILLION DOLLAR ADVOCATES FORUM"
- Rated AV-PREEMINENT
- NATIONAL TRIAL LAWYERS TOP 100 LAWYERS
- SUPER LAWYERS
- TOP ATTORNEYS IN VIRGINIA

형사법,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상담부터 재판까지 페어팩스 카운티 검사출신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상담 무료

교통사고 문의, 데이빗 막스 변호사와 함께하세요.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www.davidmarkslaw.com

한국어 상담 환영 **703.385.1100**

10513 Judicial Dr. #204, Fairfax, VA 22030

Connie A. Yoon
카니 윤 법무이사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데이빗 막스

FREE
The Ultimate Accident Guide

버지니아 자동차 사고 보험 청구 세번째 가이드북 출간

이 책을 읽으시기전까지 보험회사와 연락하지 마십시오. 703-385-1100으로 연락주시면 무료로 위의 책자를 드립니다.

‘전처 살해 혐의’ OJ 심슨 사망

아내 살해 혐의로 기소됐다가 재판 끝에 무죄를 선고받은 전 미식축구 선수 O.J. 심슨(사진)이 사망했다. 향년 76세. 심슨의 변호사는 11일 그가 전날 라스베이거스에서 사망했다고 연례매체 TMZ에 밝혔다.



심슨의 가족들도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그가 암 투병 끝에 숨졌다는 “(사망 당시) 자녀들과 손주들에게 둘러싸여 있었다”고 전했다.

심슨은 1994년 전처 니콜 브라운과 그의 연인 론 골드먼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오랜 재판 끝에 형사상 무죄 판결을 받았으나 사건 자체는 미제로 남아 있다.

‘세기의 재판’으로 불린 이 재판은 미국의 엄격한 증거주의 판단에 대한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샌프란시스코의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난 심슨은 1960년대 후반 서던캘리포니아대(USC)의 미식축구 스타로 큰 인기를 얻었으며 미국프로풋볼(NFL)에서 11시즌을 뛰면서 1973년 러닝백으로는 최초로 2천야드를 넘게 뛰는 등 여러 기록을 남겼다.

선수 생활 이후에는 스포츠 캐스터와 영화배우, 렌터카업체 허츠의 대변인 등으로 활동하며 부와 명성을 쌓았

다. 그는 친구들에게 “나는 흑인이 아니라 O.J.이다”라고 말하곤 했으며, 인종적인 편견과 차별을 딛고 성공한 흑인의 표상으로 받아들여졌다.

하지만 1994년 6월 백인인 그의 전처와 그 연인이 로스앤젤레스(LA)에 있는 자택에서 잔인하게 흉기에 찔려 사망한 뒤 며칠 만에 경찰이 심슨을 살인 혐의로 체포하겠다고 발표하면서 그의 운명은 바뀌었다.

특히 사건 발생 5일 후 경찰이 체포에 나서자 심슨은 약 2시간 동안 친구가 운전하는 차량 뒷좌석에서 권총을 들고 자살을 위협하는 모습이 TV 방송으로 생중계되면서 스포츠 영웅이었던 그의 명에는 급추락했다.

결국 그는 살인 혐의로 재판을 받았고, 이 재판은 그가 한때 최고의 인기를 누리던 스타라는 점과 함께 인종 문제와 가정폭력, 경찰의 위법 행위에 대한 논

란을 촉발하며 세계적인 관심을 끌었다. 배심원 선정부터 판결까지 11개월이 걸린 재판 끝에 심슨은 1995년 10월 무죄 판결을 받았다.

재판 과정에서 밝혀진 여러 증거로 유죄 혐의가 짙었으나, 심슨 측은 인종 차별주의에 사로잡힌 경찰이 심슨에게 죄를 뒤집어씌우기 위해 증거를 조작했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 많은 미국인들은 심슨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봤으나, 흑인들 상당수는 심슨이 무죄라는 상반된 시각을 보여 미국 내 인종 갈등의 단면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 형사재판 후 별도의 민사재판 배심원단은 1997년 이 사건에 대한 심슨의 책임을 인정하고 브라운과 골드먼의 유족에게 3천350만달러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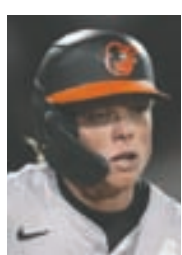
이후 그는 2007년 9월 라스베이거스의 호텔·카지노에 들어가 총을 겨누고 물건을 훔친 혐의로 체포돼 이듬해 강도죄 등으로 최대 33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뒤 교도소에서 복역하다 2017년 가석방으로 풀려났다.

심슨의 유족으로는 첫 번째 결혼에서 낳은 두 자녀와, 브라운과의 두 번째 결혼에서 낳은 두 자녀 등 4명의 자녀가 있다.

MLB 유망주 홀리데이, 데뷔전서 4타수 무안타

4타수 무안타 2삼진 1타점.

특기할 만한 것 없이 저조한 성적에 거둔 한 젊은 야구 선수에게 매체들의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주인공은 미국프로야구(MLB) 볼티모어 오리올스의 신인 내야수 잭슨 홀리데이(20·사진).

MLB닷컴 등 현지 매체들은 “홀리데이의 시대가 열렸다”고 표현했다.

MLB 최고의 유망주로 꼽히는 홀리데이는 11일 매사추세츠주 보스턴 펜웨이 파크에서 열린 보스턴 레드삭스와 방망 경기에 9번 타자 2루수로 선발 출전했다.

홀리데이는 이날 단 한 개의 안타도 기록하지 못했으나 미국 언론은 그의 일거수일투족을 집중 조명했다.

MLB닷컴은 “홀리데이는 비록 안타를 터뜨리지 못했지만, 안정적인 수비를 펼치며 MLB 데뷔전을 치렀다”고 소개했다.

ESPN은 “홀리데이는 밀워키 브루어스의 외야수 잭슨 추리오(20)에 이어 두 번째로 MLB에서 어린 선수가 됐다”며 그의 데뷔전 경기 내용을 상세하

게 알렸다. 홀리데이는 MLB 통산 1천 903경기에 출전해 316개의 홈런을 쏘아 올린 맷 홀리데이의 아들이다.

아버지의 재능을 물려받은 홀리데이는 어렸을 때부터 남다른 운동 신경으로 MLB 스카우트들의 주목을 받았고 고교에 재학 중이던 2022년 드래프트 전체 1순위로 볼티모어에 지명됐다.

홀리데이는 마이너리그에서도 차원이 다른 플레이를 펼쳤다.

올해엔 마이너리그 트리플A 10경기에서 타율 0.333, 출루율 0.482, 장타율 0.595로 맹활약하다 빅리그 승격 전화를 받았다. 그는 단 2년 만에 루키리그부터 트리플A까지 모든 마이너리그 과정을 초고속 통과했다.

‘한국 정치’ 대화와 타협 모습 보여야

사설

한국의 22대 국회의원선거가 야권의 승리로 끝났다. 10일(한국시간) 치러진 총선에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과반 이상의 의석을 확보하며 제1당의 자리를 지킨 반면, 여당인 국민의힘은 과반 확보에 실패했다.

언론도 한국 총선에 관심이 높았다. 개표가 막바지에 이르자 뉴욕타임스, 로이터 등 주요 언론들은 ‘야당의 큰 승리’라며 관련 내용을 속보로 전했다. 특히 AP는 통신사답게 출구조사 결과 내용부터 상세히 전하는 모습이였다. 아울러 언론들은 여당의 패배 원인을 분석하고 전망도 내놴다. 메이저 언론들의 이런 모습은 한국의 위상이 그만큼 높아졌음을 반영하는 것이다. 이번 총선처럼 한국 내 주요 이슈들은 이제 미국에도 실시간 전달이 된다. 미국 내에 ‘한국 뉴스’ 고정 소비층이 형성돼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K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한국 뉴스’ 소비층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런 관심이 꼭 긍정적인 면만 있는 것은 아니다. 부정적인 내용의 뉴스로 인한 타격도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일이 잦아지면 어떻게 높여놓은 한국의 위상도 타격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총선 관련 보도에서 일부 미국 언론은 한국 정치인들의 수준 낮은 막말 논란도 전했다. 그 내용을 접한 독자들은 한국 정치 수준을 어떻게 보겠는가?

이번 총선은 윤석열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이 강했다. 그리고 윤 대통령은 남은 임기 동안에도 여소야대의 국회와 함께해야 하는 상황이다. 정치권의 총동과 갈등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은 이유다. 이제 총선은 끝났다. 곧 새로운 모습의 국회가 구성되는 만큼 한국 정치 실시간 전달이 된다. 미국 내에 ‘한국 뉴스’ 고정 소비층이 형성돼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K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한국 뉴스’ 소비층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민서비스국 개혁도 필요하다

이민서비스국(USCIS)이 이달 1일부터 영주권, 시민권 신청 및 각종 비자 수수료를 또 대폭 올렸다. 지난 2016년 이후 8년 만의 인상이라고 하지만 인상 폭이 지나치다.

주재원비자(L-1)의 경우 수수료가 460달러에서 1385달러로 세 배 넘게 폭등했다. 한인 신청자가 많은 전문직취업비자(H-1B) 신청 비용도 460달러에서 70%나 오른 780달러가 됐다. 또 시민권 신청(N-400) 수수료는 640달러에서 760달러로, 영주권 신청 마지막 단계인 신분조정신청(I-485) 수수료는 1140달러에서 1440달러로 26%나 올랐다. 4인가족이 영주권을 신청하려면 수수료만 5700달러 이상 든다는 얘기가. 이밖에 노동허가신청(I-765), 사전여행허가(I-131), 영주권카드갱신(I-90) 등 모든 수수료가 올랐다.

USCIS 측은 서비스 개선을 수수로 인상 이유로 밝혔다. 운영 비용 증가 등으로 인해 기존 수수료로는 서비스 개선이 어렵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이를 액면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USCIS 측은 그동안 수수료를 올릴 때마다 서비스 개선 명분을 내세웠다. 하지만 눈에 띄만한 개선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영주권이나 비자 신청자들을 만만하게 보고 취하는 조치가 아니길 바란다.

이민이나 비자 업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처리 속도다. 신청자들의 체류 신분 문제가 달려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USCIS의 업무 처리 속도는 늦는 것으로 유명하다. 늘 만성적체 현상을 보인다. 신청자들은 속이 타지만 USCIS는 아랑곳하지 않는다. 신청자들이 분통을 터뜨리는 이유다.

AK 김경태 공인회계사

회계업무
세무보고
비즈니스 설립
세무보고 상담할영!

410.719.1000 Fax. 410.719.9198
3300 N. Ridge Rd., #380, Ellicott City, MD 21043

맞춤형의 절인 마이클 장

달인과 함께하면
유자도 행복해집니다

주택용자 · 상업용자 · 재정상담

NMSI, Inc. NMLS #201332

410-370-4229 / 301-275-1494

맞춤형 연금 & 재정관리

Lori Moon

“오늘의 계획으로
미래의 재정 안정을!”

703.895.7648
3949 Pender Dr. #250, Fairfax, VA 22030

헤민한의원

동서 의학의 접목

Columbia
화, 목, 토 진료

Gaithersburg
월, 수, 금 진료

Tel. 443-878-4637

For your many sides, there's Nationwide®.

AUTO - 자동차보험 | HOME - 주택보험 | LIFE - 생명보험
BUSINESS - 사업체보험 | RETIREMENT - 은퇴연금

Nationwide
is on your side

Albert Kim 보험
albert@wkinc.com
Won K. Kim Insurance Agency, Inc.
Licensed in DC, MD, VA, DE, PA, GA

Silver Spring (301) 962-8300 Baltimore (410) 465-5499
Virginia (703) 312-0909

12111 Heritage Park Circle
Silver Spring, MD 20906

Products underwritten by Nationwide Mutual Insurance Company and Affiliated Companies. HomeOffice: Columbus, OH 43215. Subject to underwriting guidelines, review, and approval. Availability varies. Nationwide, Nationwide Is On Your Side, and the Nationwide N and Eagle are service marks of Nationwide Mutual Insurance Company. © 2018 Nationwide CPO-0836AO (08/16) 7400524

영아패션
YOUNG AH FASHION

각종 악세사리
스카프, 모자,
신발, 가방,
마스크 등 판매

한국 최신패션! 최고의 퀄리티!
유명 브랜드의 고품질 제품을
매우 저렴한 가격으로 장만하세요!

영아패션
T. 443-440-2000
3215 Corporate Ct., Ellicott City, MD 21042

Baltimore National Pike
M&T 대장금(미라조물)
웨일리노래방

미라조물 대장금 식당
뒤쪽 길로 300m 정도
내려오시면 새로지는 뉴타운
맞은편 미국 성조기 달려있는
파킹장으로 들어오세요~

물가...바이든 재선 '악재' 되나

연내 기준금리 인하 전망 여전

좀처럼 잡히지 않는 인플레이션(물가 상승) 때문에 기준금리 인하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면서, 조 바이든 대통령의 재선 도전에도 악재가 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파이낸셜타임스(FT)와 블룸버그통신은 10일 발표한 3월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과 관련, 바이든 대통령에게 좋지 않은 시점에 소비자 물가가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면서 이같이 보도했다.

그동안 시장 일각에서는 오는 11월 대선을 앞두고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 기준금리를 인하하면 경기 부양 효과가 생기는 만큼 민주당 대선 후보인 바이든 대통령에게 유리할 것이라는 관측을 제기해왔다.

바이든 행정부가 낮은 실업률, 견고한 성장률 등을 치적으로 내세우지만 지지율이 지지부진한 데는 물가에 대한 유권자들의 불만이 반영됐다는 평가가 나오는데, 물가가 잡히지 않을 경우 지지율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이러한 가운데 이날 발표된 3월 CPI 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3.5%, 전월



대비 0.4% 상승했다. 이는 2월(3.2%)보다 상승률이 더 높아진 데다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까지 웃돈 것인 만큼 시장에 충격을 줬다.

3회 연속 CPI가 시장 전망치를 웃돌면서, 시장 투자자들은 당초 기대했던 6월 대신 7월이나 9월 첫 기준금리 인하가 있을 것으로 전망을 수정하고 있으며 연내 금리 동결을 전망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연내 금리 인하 횟수에 대한 기대도 0.25%포인트씩 3차례에서 1~2차례로 줄어드는 분위기다.

연준이 금리 인하를 위해서는 인플레이션이 목표치인 2%로 낮아진다는 확신이 필요하다고 밝힌 가운데, 이번 CPI 지표는 연준의 확신이 더 줄어들 것일 것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미일 정상회담 관련 기자회견에서 “연내 기준금리 인하가 있을 것이라는 전망을 변함없이 지지하고 있다”면서 시기적으로 한 달 정도 지연될 가능성은 있다고 봤다.

백악관 당국자들은 인플레이션 진정 과정이 ‘울퉁불퉁’할 것으로 예상해왔으며 인플레이션이 곧 다시 내려갈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반면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인플레이션이 돌아왔고 극심하다”면서 연준이 바이든 대통령을 지키고 싶어 하는 만큼 신뢰도 있게 금리를 낮출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로렌스 서머스 전 재무장관은 “사람들은 여전히 인플레이션 문제가 상당한 것으로 느낀다”면서 “과거에 대한 기억 때문이든 고금리에 따른 대출비용 상승 때문이든, 사람들은 여전히 인플레이션이 완전히 잡히지 않았다고 느낀다”고 말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번 CPI 지표와 관련, 인플레이션이 2%로 내려가는 길이 울퉁불퉁하다기보다는 3% 부근에서 고착화해 꺾잡 못 하게 될 가능성도 거론된다고 전했다.

“트럼프의 속내를 파악하라”

유럽 외교관들, '취재 경쟁' 치열



최근 인사들의 명단도 외교단 안에서 돌고 있다고 한다.

존 래트클리프 전 국가정보국(DNI) 국장, 마이크 폼페이오 전 국무장관, 로버트 오브라이언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의 국가안보보좌관이었던 키스 켈로그 등이 그 명단에 포함돼 있다고 CNN은 전했다. 트럼프의 ‘이너서클’에 선을 대려는 외교관들 간의 경쟁도 치열하다.

CNN은 유럽의 상대적으로 큰 국가 대사들과 워싱턴에 여러 해 주재해온 대사들이 ‘신참’들보다 트럼프 측근들에 더 수월하게 접근하는 경향이 있다고 소개했다.

유럽 외교관들이 트럼프 전 대통령 쪽에 줄을 대는 데 열심인 것은 2016년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세간의 예상을 깨고 힐러리 클린턴 당시 민주당 후보를 이기며 대통령이 됐던 때의 기억이 크게 자리 잡고 있다.

대부분 국가 외교관이 사전 정보나 교류 없이 직면한 트럼프 전 대통령 및 그 측근들과의 관계 설정에 어려움을 겪었고, 트럼프 전 대통령의 즉흥적 스타일에 적응하는 것도 수월치 않았던 것이다.

오는 11월 대선을 앞두고 미국에 주재하는 유럽 외교관들이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사진) 전 대통령 쪽과 소통 채널을 확보하기 위해 사력을 다하고 있다고 CNN이 11일 보도했다.

워싱턴 D.C.에 주재하는 유럽 국가 외교관들은 호텔, 대사관, 싱크탱크 등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 진영 인사들과 만나며 트럼프의 재집권 시 정책 추진 관련 의중, 인사 구상 등을 ‘취재’해서 본국에 타전하고 있다고 CNN은 전했다.

특히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들과의 방위비 분담 공약을 중시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을 상대로 어떻게 나토를 위한 안전장치를 확보할지 등에 대한 ‘통찰’에 본국 정부가 목말라 있기 때문에 그 수요를 맞추기 위해 유럽 국가 외교관들이 부지런히 뛰고 있다는 것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시절 나토 탈퇴를 심각하게 검토한 것은 물론 지난 2월 유세에서 국내총생산(GDP)의 2% 국방비 지출 기준을 지키지 않는 나토 회원국에 대해서는 러시아에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할 것이라고 말해 물의를 빚기도 했다.

트럼프의 속내를 읽어내는 트럼프

러 “우주 핵무기 배치 금지 문제로 미국과 접촉 중”

세르게이 라브코프(사진) 러시아 외무부 차관은 11일 우주에 핵무기 배치하지 않는 문제를 두고 미국과 러시아가 국제기구에서 접촉하고 있다고 밝혔다.

타스 통신에 따르면 라브코프 차관은 이날 현지 기자들과 만나 “국제 플랫폼, 특히 미국 정부가 러시아에 대한 비난을 추진하고 있는 뉴욕(유엔)에서 우리 대표단은 실질적으로 접촉하고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측에서는 모든 수준에서 철저히 의견을 제시했다”고 덧붙였다.

라브코프 차관은 “우주도 물론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되지만 그곳에는 어떠한 무기도 있으면 안 되며 공격 무기도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러시아가 우주에 무기를 배치하려고 한다는 미국의 주장은 러시아를 비방할 구실을 찾으려는 시도”라면서 “러시아는 우주에 대한 국제적 의무를 완전히 수행하고 있고 공격 무기 없이 우주 평화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미국과 미국이 이끄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가 점점 우크라이나 안팎에 직접 개입하고 갈등의 당사자가 돼 가는 상황에서 (미국과 우주 충돌을 막는) 군사적 소통이 별도로



세르게이 라브코프 러시아 외무차관이 지난 2019년 1월30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핵확산금지조약 회의에 참석한 모습. (베이징(중국)=AP/뉴시스)

필요하다고 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미국은 지난 2월 러시아가 위성을 공격할 수 있는 핵무기를 우주에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으나 러시아는 사실무근이라며 일축했다.

미국은 우주 배치용 핵무기 개발을 금지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표결을 추진하고 있다.

이날 러시아가 안가라-A5 로켓 시험 발사에 성공한 것과 관련, 마리아 자하로바 외무부 대변인은 “우리는 우주를 오직 평화적인 환경으로 보존하겠다는 결의를 재확인했다”고 말했다.

한편 라브코프 차관은 미국이 아시아태평양, 유럽 등 세계 어느 지역이라도 중거리 미사일을 배치하는 계획을 구체화할 경우 러시아는 중·단거리 미사일 배치 유예를 폐기하는 것으로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러시아와 미국은 1987년 중거리핵전력조약(INF)을 체결했지만 미국은 러시아가 합의를 위반했다고 비난하며 INF 파기를 선언했다. 이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미국과 나토 회원국들에 INF가 금지한 미사일의 개발을 유예할 것을 제안했다.

‘베트남 GDP 3% 규모 횡령’ 주모자 사형선고

베트남에서 범행 규모가 국내총생산(GDP)의 3% 이상에 이르는 초대형 금융사기 사건의 주범이 사형선고를 받았다.

11일 AP·로이터 통신과 현지 매체 VN익스프레스 등에 따르면 호찌민 인민법원은 이날 부동산 개발업체 반 딘 팻 홀딩스의 쓰롬 미란(68·사진) 회장에 대해 횡령·뇌물 공여·은행 규정 위반 등 유죄를 인정, 사형을 선고했다.

앞서 반 회장은 측근과 공모해 2012~2022년 사이공상업은행(SCB)에서 304조 동에 이르는 막대한 금액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돼 사형이 구형됐다.

이런 범행 금액은 2022년 기준 베트남 GDP의 3%를 넘는 규모다.

재판부는 반 회장이 장기간에 걸쳐 계획을 세우고 치밀하고 조직적인 범죄를 저질러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밝혔다.

반 회장은 대리인 수십 명의 명의로 SCB 지분 91.5%를 사실상 소유한 뒤 자신이 설립한 페이퍼컴퍼니 1천여개를 이용한 허위 대출 신청으로 은행 돈을 빼낸 것으로 밝혀졌다.



이로 인해 SCB가 입은 경제적 피해 규모는 이자 등을 고려하면 약 677조 동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 부하들을 시켜 은행 감독 책임자에게 520만 달러를 제공하는 등 뇌물을 뿌렸다.

반 회장이 2022년 10월 체포되고 천문학적인 범행 규모가 밝혀지면서 베트남 전체가 들쭉인 바 있다.

이에 따라 베트남 정부가 추진한 대대적인 부패 척결 운동으로 지금까지 고위 관리와 기업 경영진 등 수백 명이 체포·기소되거나 몰려났다.

반 회장의 가족은 그가 항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백성호 CPA, MBA

“간단한 세금보고에서부터 복잡한 보고까지 풍부한 경험과 최고의 실력”

백성호 공인회계사

- 개인 / 회사 세금 보고 전문
- 자영업자 세금 보고 전문
- 세금 보고 급하신분 환영
- 미국 전지역 세금 보고 가능
- 해외 계좌 및 자산 보고

On-Line 세금보고

Text와 Email로 세금 보고 가능합니다.

Text 전용: 571-655-1640

사무장 제이미 전 (조지 워싱턴 회계학 석사)

· 편리한 위치 (애너데일 서울순대 건물 2층 205호)

GWTS, LLC. T. 703-658-4611 / F. 703-642-2140 / cpamanager4231@gmail.com

4231 Markham St., Suite 205
Annandale, VA 22003

마이클 장

주택용자 상업용자 재정상담

410-370-4229 · 301-275-1494

EMET, Inc
NMLS #201332

‘글로벌 파트너’ 일본의 자신감?... 기시다 “미국, 이제 혼자 아니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가 11일 미 의회 상·하원 합동연설에서 “미국은 혼자가 아니다. 일본이 미국과 함께한다”며 미국의 핵심 ‘글로벌 파트너’로 부상한 일본의 역할을 전 세계에서 발휘할 뜻을 밝혔다.

기시다 총리는 34분간 영어로 진행된 이날 연설에서 미국과 일본의 관계를 ‘친구’로 규정하며 영어(friend)와 일본어(도모다치·友達)로 번갈아 호칭했다.

중국 도전 지목... “국제질서 도전에 직면”

기시다 총리는 “미국이 여러 세대에 걸쳐 구축해 온 국제 질서가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며 “미국은 계속해서 중추적 역할을 계속 수행해야 하고,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리더십은 필수 불가결하다”고 말했다.

미국 중심의 국제 질서가 도전을 받는 이유와 관련해 기시다 총리는 “중국의 대외적 입장과 군사적 행동은 일본의 평화와 안보 뿐 아니라 국제 사회 전반의 평화와 안정에 전례 없는 가장 큰 전략적 도전이 되고 있다”며 중국의 부상을 핵심 이유로 꼽았다. 군사적 위협 외에도 AI(인공지능) 등 디지털 기술을 통한 자유의 억압, 소셜 미디어 등에 대한 검열과 통제, 경제적 의존성을 악용한 이른바 ‘부채 함정 외교’ 등을 구체적으로 나열하며 중국이 국제 질서를 위협하는 주체임을 재차 강조했다.

기시다 총리는 또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은 직접적인 위협”이라며 “북한의 도발은 지역을 넘어선 영향을 미치고 있고 남북자 문제도 중요한 현안으로 남아 있다”고 말했다. 특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관련 “러시아는 핵무기 사용 위협을 계속하면서 또 다른 재앙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전세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늘날의 우크라이나는 어쩌면 내일 동아시아의 모습”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1일 워싱턴 국회의사당에서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과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알라바마)이 지켜보는 가운데 하원 회의실에서의 회합동회의에 참석해 연설하고 있다.

“미 중추적 역할 필요... 이제 혼자 아니다”

기시다 총리는 이러한 도전에 맞서기 위해 “미국이 여러 세대에 걸쳐 구축해 온 국제 질서가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지만 미국은 계속해서 중추적인 역할을 계속 수행해야 한다”며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리더십은 필수 불가결하다”고 말했다. 기시다 총리는 이어 “혼자 국제 질서를 지켜온 나라로서 외로움과 피로감을 느끼는 미국인들에게 말하고 싶다”며 “전 세계가 미국의 리더십에 기대를 걸고 있지만, 미국이 모든 것을 혼자 해낼 것을 기대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기시다 총리는 “자유와 민주주의”라는 우주선에 일본이 미국의 동승자가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며 “일본은 이미 갑판 위에서 일본의 임무에 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고, 우리 일본

이 여러분과 함께한다”고 강조했다. 미·일 관계에 대해선 “미국의 가장 가까운 친구, 도모다치(친구)로 어깨를 맞대고 있다”고 규정했다.

‘재무장’ 불가피론... 과거사 반성엔 ‘침묵’

기시다 총리는 미·일 동맹의 성격과 관련 “2차 세계대전의 참화에서 회복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배우자 기시다 유코 여사가 11일 워싱턴 DC 국회의사당 하원 의사당에서 열린 미 의회 합동 회의에서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연설하는 것을 경청하고 있다.

하는 과묵한 성격에 동맹에서 이제 전 세계를 바라보는 강력하고 헌신적인 동맹으로 변모했다”며 “인도태평양 지역의 미래 안정에 대한 불확실성이 일본의 정책과 사고방식을 바꾸게 만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27년까지 국방예산을 GDP의 2%로 대폭 증액하고 대응타격 능력을 확보하며, 사이버 안보를 강화하겠다고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사실상의 ‘재무장’과 전쟁이 가능한 ‘정상 국가’로의 전환을 피한 결정이 국제 정세의 변화로 인한 불가피한 결정이었다는 의미다.

기시다 총리는 일본의 국가안보 전략 변화의 배경을 이같이 설명한 뒤 “지정학적 환경이 변화하고 일본의 자신감이 커짐에 따라 일본은 미국의 가장 가까운 동맹국이라는 것 이상으로 시야를 확장하고 있다”며 “일본은 미국의 지역 파트너였지만, 이제 글로벌

파트너가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양국의 파트너십은 양자 관계를 넘어 서고 있다”며 “미국, 일본, 한국, 호주, 인도, 필리핀 간의 3자 및 4자 협력은 물론 G7과 아세안과의 협력” 등을 예로 들었다.

기시다 총리는 지난해 8월 캠프 데이비드에서 가진 한·미·일 3국 정상회의를 거론하며 “새로운 파트너십의 시대를 열었다”고 했다. 그러나 그는 일본의 재무장과 국제사회에서의 군사적 역할 증대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도 과거 일본의 제국주의 침략으로 인해 피해를 받은 주변국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았다.

“미 일자리 100만개 창출” 발언 기립 박수

기시다 총리는 일본이 미국에 대한 대규모 경제적 투자를 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일본은 미국의 리더십을 믿고 미국 경제를 믿고 있다”며 “일본이 미국에 직접 투자하는 국가 가운데 1위”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본 기업들은 8000억 달러를 투자해 100만 개의 미국 일자리를 만들었다”고 강조했다. 의회를 가득 채운 미국의 상·하원 의원들은 일제히 기립해 박수를 보냈다.

박수를 받은 기시다 총리는 “일본이 미국의 가장 가까운 동맹국으로서의 역할을 얼마나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알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본은 미국과 함께 큰 책임을 지고 있는 미래를 위한 글로벌 파트너가 되겠다”라는 말로 연설을 끝마쳤다.

한편 연설 초반 기시다 총리는 초등학교 시절인 1963년 가족과 함께 미국에 도착해 뉴욕에서 생활한 경험을 이야기하며 친근감을 형성했다. 본회의장에 입장하면서 큰 환호를 받자 자신의 저조한 국내 지지율을 의식한 듯 “일본 국회에서는 이렇게 진절할 박수를 못 받는다”고 말해 웃음을 자아내기도 했다.

워싱턴=강태화 특파원

Hollywood Casino에는 Fortune Pai Gow 포커, 3 카드 및 4 카드 포커, High Card Flush 등 프로그레시브가 특징적인 가장 인기 있는 테이블 게임이 모두 있습니다!

HOLLYWOOD CASINO에서 모든 즐거움을 놓치지 마세요!

9 DRAGONS

정통 중국 요리

9 Dragons의 이국적이고 정통적인 아시아 풍미를 경험해 보세요. 아시아 스타일의 최고급 요리를 전통적인 방식으로 즐겨보세요. 칠리 소금을 곁들인 점프 쉬림프, 칠리와 타이 바질을 곁들인 치킨, 태평양 연안 최고의 국수 등이 인기 있는 중국 레스토랑을 만나보세요. 눈앞에서 직접 손으로 만들어 주는 넓은 스시 바를 즐겨보세요.

9 DRAGONS 드래곤으로 극동 지역을 더욱 가까이에서 체험해 보세요!

HOLLYWOOD Casino
AT CHARLES TOWN RACES
A PENN Play Destination

WEST VIRGINIA LOTTERY
APPROVED

만 21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도박 문제가 있으세요?
1-800-GAMBLER로 전화하거나
www.1800gambler.net을 방문하세요.

윤 대통령·이재명 대표 협치하라는게 국민의 뜻

대통령, 야당 대표에 도움 청하고 이 대표, 타협·양보로 갈등 풀어야

군주민주(君舟民水). 그 옛날 순자의 말대로 군주가 배라면 백성은 물과 같아서 물은 배를 띄우기도 하지만 가라앉게 할 수도 있다. 2년 전 윤석열이라는 배를 띄웠던 민심의 물결이 이번에는 그 배를 크게 흔들며 놓았다. 민심과 싸워 이기는 권력이 없다는 자명한 진리가 이번 선거에서 다시 확인됐다.

사실 역대 어느 대통령도 선거가 부담스럽지 않은 적은 없었다. 심지어 권위주의 시대에도 그랬다. 박정희 대통령이 그나마 ‘편하게’ 치른 선거는 1967년 대통령 선거가 유일했고, 1978년 총선 때는 유신체제였지만 야당이 집권당보다 득표율에서 앞섰다. 이승만 대통령도 1956년 선거에서 부통령을 야당이던 민주당에 넘겨줬고, 전두환 대통령도 1985년 총선에서 관제 야당을 무너뜨린 강성 야당을 만나야 했다. 이런 점에 비추어 볼 때 이번 총선에 임했던 윤 대통령의 태도는 절박함이 덜했고 오만해 보이기까지 했다. 그래서 이번 선거 결과의 8할, 아니 그 이상이 윤 대통령이 져야 할 책임으로 보인다.

선거 패배로 인해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에 큰 어려움이 예상된다. 선거 이전에도 여소야대 정국이었지만 그것은 윤 대통령에게는 ‘주어진 것’이었다. 그러나 이번의 여소야대는 윤 대통령으로 인해 ‘생겨난 것’이기 때문



에 야당의 국회 장악이 외형상 이전과 같아 보여도 그 의미는 크게 달라졌다. 그런 만큼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 주도권이나 추진력은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 난국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국민은 이번 선거를 통해 지금과 같은 국정 운영 방식으로는 안 된다는 뼈아픈 교훈을 윤 대통령에게 주었다. 무엇보다 그동안 외면했던 야당과의 대화를 복원하고 이재명 대표와도 직접 만나 도움을 청해야 한다. 편협해 보이던

인적 풀도 확대하고 주변의 조언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 여당 역시 이전과는 달라질 것이다. 윤 대통령에 대한 낮은 지지를 확인한 만큼 여당 역시 차별화를 시도하면서 차이를 향해 달려가려고 할 것이다. 레임덕은 야당의 강한 공세 때문이 아니라 권력 내부의 이갈과 균열에서 비롯된다.

향후 정국에서 무턱대고 윤 대통령을 지원하지만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여당과의 관계에도 많은 신경을 써야 할 것이다. 이번 참패의 한 원인도 대

통령과 여당 간의 불협화음이었다.

이번 선거 결과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위상은 크게 높아졌다. 자신이 당 대표로 주도한 선거에서 대승을 거두었을 뿐만 아니라 당 내부도 자신에게 충성스러운 인물로 채워 넣었다. 이전보다 더 강력하고 일사불란해진 모습으로 민주당은 힘 빠진 대통령에게 맞서 정치적으로 커다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바로 이 점 때문에 이 대표와 민주당 역시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게 됐다.

사실 이번 선거는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에 대한 적극적 지지와 신뢰의 표현이었다기보다 윤석열 정부에 대한 분노·실망에서 비롯된 ‘묻지마 심판’이었다. 이번과 같은 임기 중반의 선거에서라면 이러한 부정적 정서에 기대어 표를 얻을 수 있었지만, 대통령 선거에서의 상황은 다를 것이다. 이 대표와 민주당의 집권 역량, 정치력이 선택의 기준이 될 것이다.

어쩌면 이제부터가 ‘정치인 이재명’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다. 그 이전에는 대선 후보였지만 의회 경력이 전무한 정치 신인이었고, 당 대표가 됐지만 보궐선거를 통해 등원한 초선 당 대표였다. 이제는 선거를 승리로 이끈 승장이 된 만큼 이 대표를 바라보는 시선도 달라질 것이다.

정치 지도자에 대한 평가는 역시 정치력을 발휘할 수 있느냐의 여부다. 갈등과 이견을 타협과 양보로 풀어나

는 역량이 정치력이고, 그런 모습을 보여주어야 정치 지도자로서의 신뢰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정치적으로 어려웠던 상황에서 강성 지지층의 성원은 자신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됐겠지만, 이번 승리를 발판으로 ‘더 큰 꿈’을 향해 나아가려고 하는 데는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 강경 투쟁보다는 합리적이고 실용적인 태도가 외연을 넓히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번의 선거 승리에 도취해 오만한 모습을 보이거나 무책임한 반대만을 일삼게 된다면 민심은 금방 또 떠나가게 될 것이다. 언제나 출렁거리는 민심이라는 강물은 이번엔 윤석열 정부라는 배를 흔들며 놓았지만, 다음 선거에선 민주당이라는 배를 뒤집어 버릴 수도 있는 것이다. 실제로 4년 전 국회의원 선거에서 180석을 얻어 크게 승리했던 민주당은 불과 2년 뒤 실시된 대선에서 권력을 잃었다.

2년 전 윤석열을 선택했던 국민이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을 선택한 것은 그간 정치적 양극화 속에서 실종된 협치(協治)를 복원하라는 명령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도, 이 대표도 서로의 협력 없이는 제대로 일하기 어려운 상황이 마련된 것이다. 이제 이 명령을 실천하느냐의 여부는 두 지도자에게 달려 있다. 그리고 그에 대한 평가가 향후 다가올 또 다른 정치적 경쟁에서 국민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강원택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

107일만에 퇴장한 한동훈 “정치 계속한다 약속 지킬 것”

“국민의 뜻 존엄하게 받아들여 반성”
총선 결과 용산 공동책임이나 묻자
“국민 마음 못은 오로지 내 책임”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1일 사퇴했다. 한 위원장은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 뜻을 존엄하게 받아들이고 저부터 깊이 반성한다”며 “선거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고 비대위원장직에서 물러난다”고 밝혔다. 한때 윤석열 정부 황태자로 불리며 화려한 스포트라이트 속에 집권 여당의 리더로 정치판에 뛰어든 지 107일 만에 무대 위에서 내려갔다.

다만 그는 이날엔 말을 아꼈다. ‘동료 시민’이라는 문구가 등장한 화

려한 출정식에 비해 철근까진 채 3분이 안 걸렸다. 한 위원장은 “민심은 언제나 옳다. 국민의 선택을 받기에 부족했던 우리 당을 대표해 국민께 사과드린다”고 했다. 총선 내내 사생결단식으로 몰아붙였던 야당에 대해서도 “야당을 포함해 모든 당선인에게 축하의 말씀을 드린다. 국민의 뜻에 맞는 정치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총선 결과가 대통령실·여당의 공동 책임인가”라는 질문에 “제 책임”이라고 말한 한 위원장은 “국민의 마음을 얻지 못한 거라 생각한다. 그 책임이 오롯이 저에게 있다”고 답했다.

국민의힘에선 참패 원인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돌리려는 움직임도 적잖다. 패배가 확정적이었던 전날 밤, 진한 동훈계를 중심으로 ‘한동훈 당권 도전

설’도 돌았다. 그러나 한 위원장 스스로 깨닫힌 승복과 빠른 퇴장을 택하면서 일단 패배의 잔불을 정리했다.

이는 “용산발 악재 속에 나름 분투했다”는 평가 못잖게 한 위원장의 책임을 묻는 목소리가 큰 것을 의식한 때문으로 풀이된다. 원톱 선대위로 의사결정뿐 아니라 대국민 마이크도 사실상 혼자 쥐었다.

팬배한 정권 심판론에 ‘이·조(이재명·조국) 심판론’으로 맞불을 놓은 선택이나, 잡음 최소화에 방점을 찍었던 공천 과정이 전략적 실패였다는 평가도 나온다.

한 위원장은 “정치를 계속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저는 제가 한 약속을 지키겠다”고만 했다. 향후 행보에 대해선 “어떻게 해야 국민의 사랑을 되찾을 수

있는지 고민하겠다”며 “쉽지 않은 길이 되겠지만, 국민만 바라보면 그 길이 보일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여권 관계자는 “여당의 비대위원장까지 한 마당에 당장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겠느냐”며 “선불리 등장해 실점하느니, 때를 기다리는 게 낫다”고 말했다. 자칫 4년 전 국민의힘의 전신인 미래통합당을 이끌고 총선을 치렀다가 패한 뒤 타의로 정치권에서 사라지다 시피 한 환교안 전 대표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한동훈 비대위’도 해체됐다. 구자룡·박은식·윤도현·장서정 비대위원들과 장동혁 사무총장, 박정하 수석대변인 등 지도부가 사퇴했다. 비대위원 중에 22대 국회 생환자는 비례대표로 당선된 한지아·김예지 위원뿐이고, 지역

구 출마자는 다 떨어졌다.

최측근인 장동혁 사무총장(충남 보령-서천)과 김형동 비서실장(경북 안동-예천)이 당선됐지만, 당내 소수파에 몰릴 가능성이 크다.

공교롭게도 직전 지도부인 김기현 전 대표 체제의 선출직 최고위원(김재원·김병민·조수진·태영호·장예찬)들도 전원 낙선·낙선했다.

권성동(강원 강릉)·이철규(강원 동해-태백-삼척-정선)·윤한홍(경남 창원마산)·박성민(울산 중) 의원 등 ‘윤핵관’들은 불출마한 장제원 의원을 제외하고 대부분 생환했다. 그러나 워낙 참패한 탓에 당에선 “정권심판론의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는 말이 나온다.

심새롬 기자

www.GIANTREALTY.com

자이언트 부동산

부동산 전문지식
협상능력
리스팅 전문 서비스

결과가 다릅니다!


자이언트 부동산 사장 **수잔 오**
Licensed in VA·MD·DC
703.975.4989
susanoh@giantrealty.com
office. 703.641.4989



VA FAIRFAX HQ Office 703.641.4989 Fax 703.641.0033
2751 Prosperity Ave., #580, Fairfax, VA 22031

MD ELLICOTT CITY Office 410.750.8040 Fax 410.750.3992
3277 Pine Orchard Ln., Suite 2, Ellicott City, MD 21042

메디케어 보험



여기 **메디케어 진짜 잘하는** 헬스플랜 전문가와 함께 모든 베네핏을 누릴 수 있는 **답**을 찾으세요!

- / 65세 되시는 1959년생 신규 가입신청과 가입
- / 메디메디를 위한 다양한 혜택
- / 심장질환, 당뇨, 말기 신부전증을 위한 스페셜플랜

- / Part C (HMO) 가입자들을 위한 추가 혜택
- / 저렴한 약 값을 위한 회사별 비교
- / 메디케어 파트 D (처방약 보험)에 대해

유니티 보험

상담 예약 및 문의 Tel: **703-200-1412**

앤디 김
VA Lic# 639047

사팩센터 | DC 건물 | 창고 | NNN

리스팅 하실 건물주분들!

미국 3대 상업용부동산 회사 Marcus & Millichap의 업무경험, 사팩센터를 직접 투자하고 관리한 경험으로 차별화된 마케팅 전략들이 있습니다!

- 30,000+바이어 Data Base 보유
- YouTube, Offering Memorandum 제작
- Social Media 마케팅, 싸인설치
- 신문광고, Costar Premium 리스iting 광고
- Broker Licensed DC, MD, VA



미셸신
571.243.5797

케빈신
703.395.3123

최근에 매매한 상용건물들이 실력을 증명합니다!

SOLD Popeyes \$2.5M VA, 새로운 NNN 건물	SOLD Starbucks \$2.9M VA, NNN 건물, Drive-Thru	SOLD Chick-fil-A \$3.8M NNN 건물, Drive-Thru	SOLD Days Inn \$3.7M Days Inn, WM Co. 72 Rooms	SOLD Ruby Tuesday \$2.5M VA, NNN 건물	SOLD DC 창고 \$2.5M DC, NoMa Metro 상권
SOLD DC 사팩센터 \$2.4M DC, Capital Hill 지역	SOLD DC 사팩센터 \$4.5M Popeyes 테넌트, 연인컴 \$32만	SOLD DC 아파트 \$1.5M DC NW, Metro 상권, 5유닛	SOLD VA 창고 \$6.8M VA Industrial Flex	SOLD MD 아파트 \$2.2M MD Silver Spring	SOLD VA 창고 \$4.1M MD Hyattsville

식당 | 프랜차이즈 | 컨트렉터 | 도매 | 카와시 | 호텔 | 그로서리 | 코인런드리 | 리커

현재 리타이어를 준비하시는 사장님들!

20년 경력의 남보다 2배 더 뛰는 케빈 신과 은퇴를 설계하세요!

비즈니스 매매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민과 E2비자 바이어가 줄어든 상황에서, 한인사회 비즈니스를 이해하고 노하우를 알아 다음세대를 이어갈 30세, 40세대의 한인 바이어를 찾을 수가 힘들다는 것이 업계의 추세입니다. 현재 시중의 사업체 바이어들은 인터넷을 이용한 현명한 바이어들이라서 여러가지 재정 및 리스 상황이 확실한 증거들을 제시하지 않고는 매매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 사업체 매매 상황을 잘 Evaluation하여 매매 가격을 산정해야 합니다. - 정확한 매물 상황과 매매 조건들이 flexible해야 합니다. - 커머셜 / 비즈니스 매매 부동산 전문가를 고용해야 합니다.

FEATURED LISTING

MD 56,000 S/F Warehouse \$5.8M 6 Acres, Charles Co, 8 Loading Docks, CSX 기차역, 26,000 SF 연 \$4000 인컴, 9,000 SF 증축가능, 공동투자 가능 Pending	SUNOCO Gas Station \$1.9M 건물 + 비즈니스 포함, 땅 0.76, MD PG Co, 연 \$15만인컴, SBA 용자가능, DC경계선, 하루3만대 교통량	7-Eleven w/Gas Station \$1.6M C-Store w/Gas Station 땅 1.2에이커, 연 \$78,000인컴 하루3만대 교통량, 3,000 S/F VA Suffolk, Absolute NNN
Popeyes NNN \$2.1M CAP 7%, 연\$149K 인컴 Absolute NNN Lease 땅 0.65, 2,700 S/F MD	Starbucks NNN \$3.2M CAP 5.25%, 2024년 새건물 하루 교통량 76,000대 땅 1.3 Richmond, VA	Shopping Center \$1.4M CAP 7.3% 연\$100K인컴 T-Mobile, 3 테넌트 땅 0.6 Chesapeake Pending
Cafe Bakery \$1.3M 연\$2.4M매상, Franchise VA, FX 카운티 Pending	Car Wash \$1.1M 연 \$250K 인컴, SBA 용자가능 Car wash w/Gas Station C-Store 깨끗하고 안정된 지역 매상매년 증가 중, 보시면 반함	Japanese Sushi \$350K 연\$700k 매상, 35년 운영 스시 전문, VA, FX카운티



VA OFFICE 11130 Fairfax Blvd #105 Fairfax, VA 22030
DC OFFICE 4400 MacArthur Blvd Washington, DC 20007



2024년 새봄을 알리는
각종 다양한 모종 입하!
Various of Seeding Arrival

LOTTE PLAZA market

• VA & MD Weekly Sale: Apr. 12 Fri - Apr. 18 Thu, 2024
FRI 12 SAT 13 SUN 14 MON 15 TUE 16 WED 17 THU 18
*심바스프링과 관련 제품은 본 세일 광고에서 제외 할려드립니다.
www.lotteplaza.com
롯데이치에 방문하시거나 주간 세일 및 이벤트 광고를 보실 수 있습니다.

마라톤 허니망고(16과) Marathon Honey Mango (16S) 12.99 BOX	타미망고(8과) Tommy Mango(8S) 9.99 BOX	유기농 후지사과 Organic Fuji Apple 0.99 LB	파 Green Onion 3 BN for 1.99	배추(박스) Napa 13.99 BOX	한국산 유기농 새송이버섯 Korean Organic King Oyster 2.99 PK
오렌지(대) Orange (Large) 2 EA for 1.00	오리만다린 Orri Mandarin 13.99 BOX	센레이즈 만다린 Sunrays Mandarin 3.99 BAG	아스파라거스 Asparagus 0.99 LB	청피망/빨간피망 Green Pepper / Red Pepper 1.29 LB	햇마늘종 Garlic Stem 4.99 LB
노란 용관 Golden Dragon Fruit 3.49 LB	롱간 Longan 1.99 LB	부추 Chive 1.99 LB	한국 양배추 Korean Cabbage 0.69 LB	스트링 빈 String Bean (Green) 0.89 LB	미니 오이 Mini Cucumber 0.99 PK
해산물 버섯 Seafood Mushroom 0.89 PK	컬리플라워(대) Cauliflower (Large) 2.99 EA				

POULTRY & MEAT LOW PRICE AND BEST MEAT PROMISED IN THE 365 DAYS

Weekly HOT Special 소꼬리 Beef Cut Oxtails 12.99 LB	아롱사태 Beef Cornical Muscle 7.99 LB
앵거스 목심스테이크 Angus Beef Boneless Chuck Eye Steak 9.99 LB	냉동 대패삼겹살 Frozen Pork Single Rib Belly Paper-Thin 8.99 LB
양념 돼지목살 Marinated Pork CT Butt 4.99 LB	무항생제 목초우 안심 스테이크 Grass Fed Beef Tenderloin Steak 9.99 PK

FRESH SEAFOOD YOU WILL FEEL THE SCENT OF THE SEA IN THE 365 DAYS

Weekly HOT Special 머리없는새우 Shrimp (Head Off, 41-50) 4.99 LB	조림멸치 Dried Anchovy (Giri) 19.99 LB
칼집 낸 오징어 Carving Squid 4.99 LB	손질한 간 가자미 Frozen Rex Sole Peeled Fillet 4.99 LB
냉동홍어 Frozen Skate Skinless (1-2) 3.99 LB	금병어 Golden Pompano 3.99 LB

햇반 Cooked White Rice 11.99 12.20KG	비비고 사골곰탕(6분들) Beef Stock Soup 13.99 6.500G	요리 올리브오일 Cooking Olive Syrup 4.49 1.2KG	매실청 Plum Syrup 8.99 1KG
부침가루 Korean Pancake Mix / Frying Mix 2 EA for 5.00 2.2LB	비비고 왕도자 만두 Bibi King Gyoza Mando 7.99 24.02 32.02	콩나물밥 Kashin Kimchi / Kimchi Cheese 5.99 4.50G 5.00G	컵반 Cupban Gyo-Fried Kimchi / Creamy Yellow Curry Sauce 3.49 2.02G 2.80G

한국미 Han Kuk Mi (Premium Medium Grain Rice) 33.99 40LB	프리미엄 쌀 Premium Rice (Maearmal / Brown / Haeja / Quick Cooking Brown) 18.99 15LB	6작은컵라면 6 Small Cup Ramen (신/너구리/튀김우동/신비라/아재순/김치순) 6.99 6.075G 6.264G
--	--	---

진라면 멀티(매운맛/순한맛) Jin Ramen Multi (Spicy / Mild) 4.99 4X120G	포차스타일 어묵 Pocha Style Fish Cake (PMA / Spicy) 3.49 296G	바지락 아욱국/경국장 Korinchi Kimchi / Jjajang 3.99 500G	쌍팔년도 떡볶이 Sweet & Hot Sauce (Original / Spicy) 4.99 560G
---	---	--	--

떡볶이/떡볶이떡 Rice Cake (Sweet Type) / Stalk Type 3.49 2.97LB	상정장미 박스 (매래/녹차) Sungjung Tea (Traditional / Green Tea) 12.99 10X30G	초코 팥떡 Choco Flavored Ice Tube Popping 5.99 6X14.02	자스민차/황금우롱차/오이오차 호지차/오이오차 녹차/오이오차 코이아차 녹차 Jasmin Tea / Golden Oolong Tea / Oi Ocha Hojicha / Oi Ocha Green Tea / Oi Ocha Koia Green Tea 3.99 67.6FL.OZ
---	--	---	--

포도 불봉 Grape Bon Bon Juice Drink 11.99 12X10.5OZ	갈아만든 배 Crushed Pear Juice Drink 11.99 12X10.5OZ	미니 봉어빵 Mini Takoyaki (Azuhi / Custard / Matcha) 2.99 4.02 OZ	맛동산 Matsutani 3.99 300G	포키(초코/딸기/쿠키크림) Pocky (Choco / Strawberry / Cookie & Cream) 2.99 1.450G	유기농 굴밥 Organic Peeled Roasted Chestnut 4.99 300G
--	--	---	--------------------------------------	---	---

HOUSEWARE MAKE YOUR LIFE EASIER & STYLISH

초미세 프리머링 오일 Tsubaki Premium Hair Treatment Cream / Hair Conditioning Cream / Repair Hair Mask 12.99 150ML	발광염 세정제 Back Shampoo 11.99 450ML
비비고 프라이팬 Bibi Non-Stick Frypan 24.99 24.99	비비고 프라이팬 Bibi Non-Stick Frypan 24.99 24.99

바삭바삭 고소한 세일
BEKUL CRISPY SPECIAL SALE

부침가루/튀김가루
Korean Pancake Mix / Frying Mix
2 EA FOR 5.00 2.2LB

센터빌 & 애난데일 롯데플라자 마켓 테너트 모집
문의: 703-543-7942 / 571-419-6954

총청서 선전한 야당, PK서 결집한 여당... 총선, 동서를 갈랐다

민주당, 수도권·대전·충청서 압승
부산·경남 격전지선 대부분 패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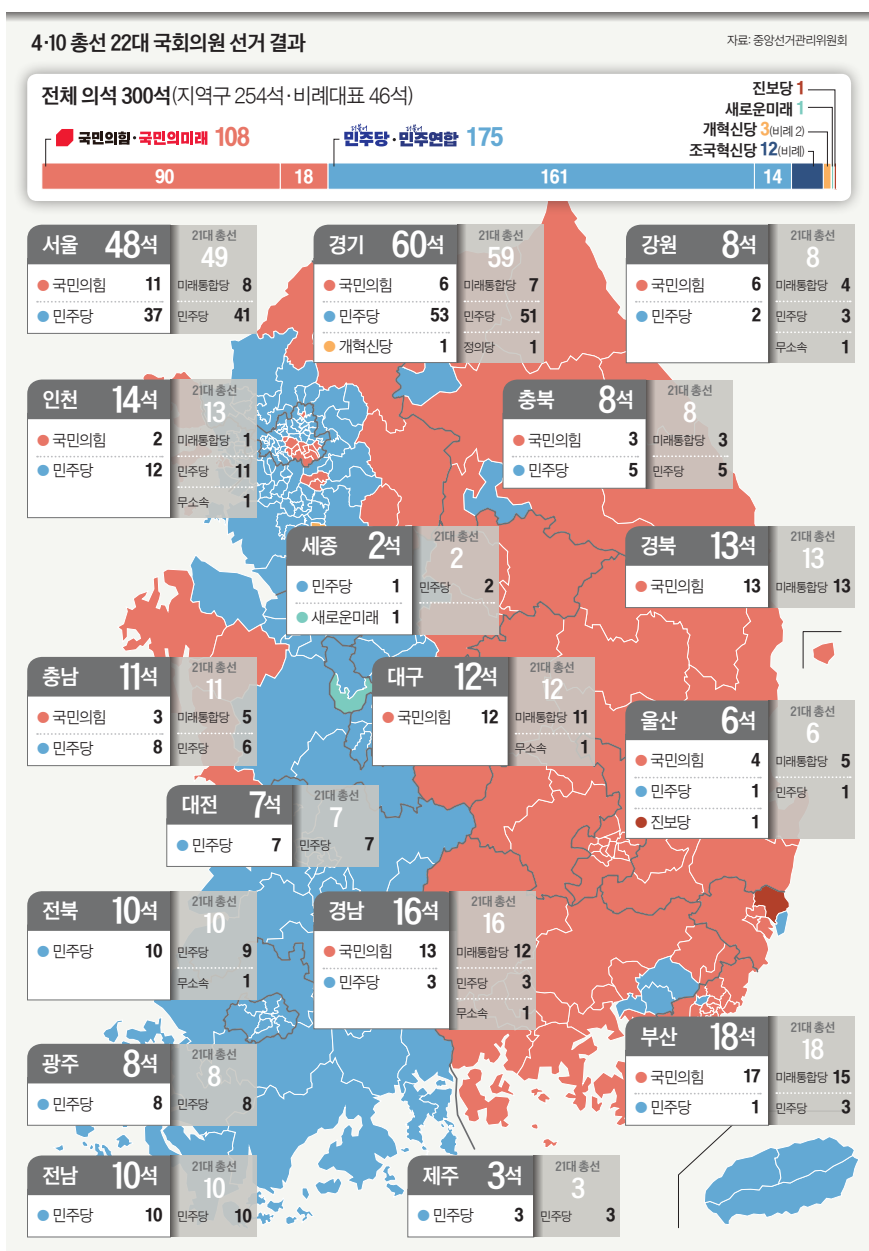
국민의힘, PK 40석 중 34석 차지
"PK 막판 결집이 최악의 사태 막아"

범야권이 192석을 확보하며 21대 국회에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극심한 '여소야대' 정국이 탄생했다. 더불어민주당 161석과 비례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당 연합 14석 등 민주당 단독으로 175석을 확보했고, 국민의힘(90석)과 비례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18석)는 108석으로 '개헌저지선(의석수 3분의 1)'을 가까스로 지키는데 그쳤다.

민주당 내에선 "야권이 이렇게 많은 의석을 얻은 건 이번이 처음"(11일 이해찬 상임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조국혁신당(12석)과 새로운미래(1석)를 포함하면 민주당에서 파생된 정당이 총 188석을 가져갔다. 민주당 계열 정당(민주당·더불어시민당·열린민주당)이 183석을 확보했던 21대 총선보다도 많은 숫자다. 개혁신당(3석)과 진보당(1석)을 합하면 범야권 의석수는 192석에 달한다. 국회선진화법상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과 필리버스터(합법적 무제한 토론) 강제 종료 가능성이 의석수인 180석을 넘겨 넘는다.

민주당은 지역구 전체 254석 가운데 161석을 가져가며 지역구에서만 단독 과반을 확보했다. 지역구에서 국민의힘은 90석, 개혁신당·새로운미래·진보당이 각 1석씩을 가져갔다. 헌정 사상 처음으로 무소속 지역구 당선인은 한 명도 나오지 않았다.

야권 선전 배경엔 수도권 압승이 있



었다. 민주당은 서울 48석 중 37석, 경기 60석 중 53석, 인천 14석 중 12석 등 수도권 122석 중 102석을 확보했다. 서울에서 국민의힘은 서초·강남·송파 등 강남 3구 8석 중 7석을 포함해 11석(용산·도봉갑·마포갑·동작을)을 확보하는

데 그쳤다. 경기에서 국민의힘이 확보한 의석수는 21대 국회(7석)보다도 오히려 한 석 줄어든 6석이었다. 경기 평택병(유의동)·안성(김학용)에서 현역 의원이 패배했고, 21대에서 승리했던 용인갑도 민주당에 내줬다.

다만 서울 도봉갑(김재섭)·마포갑(조정훈)·동작을(나경원) 등 전통적 민주당 강세 지역에서 국민의힘이 선전했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해당 지역은 민주당이 후보 선정 과정에서 잡음이 커 조직력이 떨어진 반면 여권 후보 개인기가 눈에 띄었다"고 평가했다. 경기 성남분당을에선 김은혜 당선인이 현역인 민주당 김병욱 의원을 꺾고 승기를 쥐었다. 개혁신당은 경기 화성을에서 이준석 당선인이 민주당 공영운 후보를 누르고 승리하면서 지역구 1석을 확보했다.

이번 선거에선 역대 선거와 비교해 더 뚜렷한 동서(東西) 구도가 확인됐다. 민주당은 충청에서 선전하며 지도원쪽에서 파이를 키웠다. 충남 공주-부여·청양에선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을 지낸 박수현 당선인이 국회부의장을 지낸 5선 현역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을 꺾고 신승을 거뒀다. 민주당은 대전 7석 전(全)석, 세종 2석 중 1석, 충북 8석 중 5석, 충남 11석 중 8석 등 충청권 28석 가운데 21석을 확보했다. 민주당을 탈당해 지역구를 옮겨 세종갑에 출마한 김종민 새로운미래 공동대표가 세종갑 1석을 가져가면서 범야권이 22석을 차지했다. 21대 총선에선 민주당이 충청권에서 20석을 가져갔

다. 반면 PK(부산·울산·경남)에선 국민의힘이 40석 중 34석을 가져가며 완승을 거뒀다. 특히 부산을 중심으로 막판 보수층이 결집하면서 여권 내에선 "개헌저지선이 풀리는 최악의 사태를 피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21대 총선에서 부산 3석을 확보했던 민주당은 북갑 현역 의원이 전재수 당선인만 유일하게 재선에 성공하며 18석 중 1석을 확보하

는데 그쳤다. 사하갑(최인호)·남(박재호) 등에선 민주당 현역 의원이 패배했고, 부산 강서·사하을·사상·북을 등 경합을 예상했던 '낙동강 벨트'에서도 국민의힘이 승기를 쥐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부산에서 5% 내외로 앞선다고 조사됐던 곳에서 모두 졌다. 막판에 여권 결집이 일어났다"고 분석했다.

경남에선 21대 총선과 마찬가지로 16석 중 국민의힘이 13석, 민주당이 3석을 유지했다. 전직 경남지사 두 명이 맞대결했던 경남 양산을에서는 지역구를 옮겨 도전한 국민의힘 김태호 의원이 현역인 민주당 김두관 의원을 누르고 당선됐다. 반면에 경남 창원성산에선 창원시장을 지낸 민주당 허성무 후보가 녹색정의당 여영국 후보와의 단일화 결렬을 받고 현역인 국민의힘 강기윤 후보를 이겼다. 경남 김해갑(민홍철)·김해을(김정호)에선 민주당 현역 의원이 수성했다. 21대 총선에서 미래통합당(국민의힘의 전신) 5석, 민주당 1석을 확보했던 울산에선 국민의힘이 4석, 민주당이 1석을 가져갔다. 민주당과 단일화한 진보당 윤종오 후보가 울산 북 지역구에서 승리하며 1석을 가져갔다.

양당은 전통적 강세 지역인 TK(대구·경북)와 호남(광주·전북·전남)을 각각 싸늘이했다. 보수 텃밭인 TK에선 국민의힘이 25석 전부를, 호남에선 민주당이 28석 전부를 가져갔다. 제주(3석)에선 민주당 현역들이 모두 지역구를 지켰다. 강원에선 국민의힘(6석)과 민주당(2석)이 각각 현역 지역구를 수성했다. 22대 총선에선 지역구 여성 당선인 숫자가 36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21대 총선에선 여성 지역구 당선인이 29명이었다. **성지원 기자**

‘관외 사전투표’의 힘... 초접전 선거구 당락 좌우했다

접전지 10곳서 관외 다득표자 당선
PK선 '사이 보수' 존재도 두드러져

이번 총선에선 관외 사전투표가 격전지 일부 지역의 당락을 좌우했다. 특히 마지막에 관외 사전투표함이 열리면서 막판 역전극이 벌어진 곳이 적지 않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전국 254개 선거구 가운데 당선인과 2위 격차가 3000표 미만인 곳은 18곳인데, 그 중 10곳이 관외 사전투표 다득표자가 당선됐다.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26표

(1.6%포인트)차로 승리한 서울 양천갑에선 개표 중반까지 구자룡 국민의힘 후보가 근소하게 앞섰다. 하지만 개표 막판 관외 사전투표함(황 의원이 3155표 우세) 개표가 이뤄지면서 황 의원이 막판 역전에 성공했다. 경북 경산에서는 조지연 국민의힘 당선인이 최경환 무소속 후보에 1665표(1.4%포인트)차 신승을 거뒀다. 개표 막판까지 앞지러 뒤처졌지만, 관외 사전투표에서 조 당선인이 693표 더 얻은 게 승리에 영향을 줬다는 평가다.

관외 사전투표는 지난 5~6일 사전투

표 기간 유권자가 주소를 둔 구·시·군 밖에서 투표하는 경우를 말한다. 관외 사전투표함은 일반적으로 본 투표, 관내 사전투표보다 나중에 개봉되는 경우가 많아 막판 뒤집기의 요소라는 평가다.

이와 함께 이번 선거에는 '사이(shy)보수'의 존재도 두드러졌다는 평가다. 대표적인 지역이 부산·울산·경남(PK)이다. 당초 총선 직전 일부 여론조사에선 민주당이 우위를 보이는 경우가 많아 낙동강 벨트가 무너졌다는 분석까지 나왔다. 하지만 최종 결과, 부울경

40곳에선 국민의힘이 34곳에서 승리했다. 민주당은 5석에 그쳤다. 이런 결과는 선거 막판 '범야권 200석'이 제기되는 등 보수의 위기감이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한편 72억8000만원을 들인 지상파 3사 출구조사는 빛나갔다. 당초 출구조사에선 국민의힘과 국민의미래가 85~105석, 민주당과 더불어민주당연합이 178~197석을 확보할 것으로 예측했다. 조국혁신당 12~14석, 개혁신당 1~4석, 새로운미래 0~2석 등 범(汎)야권이 개헌선인 200석을 확보한다는 내용이였

다. 하지만 실제로는 국민의힘·국민의미래가 108석을 얻어 개헌저지선(100석 이상)을 넘겼다.

이는 사전투표 경향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탓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사전투표는 공식선거법상 출구조사를 진행할 수 없어 대신 보정작업 등으로 이를 보완하는데 이 지점에서 오류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여론조사업체 에스티아이의 이준호 대표는 "이번 총선 사전투표에 60대가 가장 많이 하는 등 보수층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는데, 이를 간과한 채 출구조사가 과거 사전투표 데이터로만 보정작업을 하다 보니 실제 득표와 편차가 컸다"고 지적했다. **김효성·장세운 기자**

집수리비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먼저 저렴하게 수리해 드리고 팔아 드리겠습니다!!

▶ 북버지니아 부동산 협회 탐 프로듀서
▶ 질로우 프리미어 에이전트
▶ Top 15% Nationwide Agent by Homesnap

스프링 필드 타운홈

\$670,000

방4, 화3.5, 2 Assigned End Unit, 업그레이드 많이한 집 지하 워크아웃

페어팩스 싱글홈

\$785,000

방5, 화3, Split Level 수리 많이함 지하 Full Bath, Walk Out

페어팩스 타운홈

\$800,000

방4, 화4.5, 차고2, 2007년산 굿로케이션, 2350 Sf 루프탑덱, 커다란 부엌

리스버그 싱글홈

COMING SOON

방5, 화5, 차고2 4835 Sf 2019년산

페어팩스 타운홈

COMING SOON

방3, 화3.5, 2 Assigned 편리한 교통 전체 리모델링함

어정히 매물이 부족합니다. 동네 최고가로 팔아 드리겠습니다.

김경아

인연을 소중히 여기는 **김경아 부동산** 703-919-0472 jennetpro4u@gmail.com

정승욱
연방세무사

GTAX Consulting Group

703-844-0355 / www.gtax1.com
4000 Legato Rd. Ste. 1100, Fairfax, VA 22033

IRS 감사 세무당감 전문

김영선
연방세무사

“ 세금 보고, 절세 전략, 세금 문제 해결, 각종 비즈니스 지원 서비스를 통해 고객의 성공을 돕습니다. 저희는 빠르고 저렴하며 고객이 만족하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개인 세금 보고

- 50개 주 개인 세금 보고 / 세무 상담
- 해외 자산 및 수입 보고
- 자녀 학자금 신청 및 상담
- 세무 감사 대행 / 세금 탕감 신청

사업체 세금 보고

- 법인체, 사업체 설립
- 비영리 단체 설립
- 사업체 세금 보고 및 세무 업무
- 장부 정리 및 직원 PAYROLL

재정 설계 및 노후 계획

- 은퇴 설계 / 개인 연금 Annuity, IRA
- 생명 보험 / 장기 요양 보험
- 직원 복지 / SEP, 401K
- 오바마케어 / 메디케어



MARKET
INTERNATIONAL FOOD
4239 John Marr Dr. Annandale, VA 22003
www.kmarketusa.com 703-712-7089



Spring Seeding
모종입하

WEEKLY SALE: 4/12-4/18/2024

세일 품목은 조기에 품절 될 수도 있습니다. DISCOUNT PRODUCTS MAY SELL OUT EARLY.

PRODUCE

오리 만다린 ORRI MANDARINE 3 DAYS ONLY (금,토,일) 2.49 LB	생강 GINGER 3 DAYS ONLY (금,토,일) 1.49 LB	오렌지 만다린 (3LB) ORANGE MANDARINE 3 DAYS ONLY (금,토,일) 3.99 EA	배추 NAPA 3 DAYS ONLY (금,토,일) 10.99 BOX
피피안 호박 PIPIAN SQUASH 3 DAYS ONLY (금,토,일) 0.99 LB	팩마늘 PACK GARLIC 3 DAYS ONLY (금,토,일) 1.49 EA	허니크리스피 사과 HONEYCRISPY APPLE 3 DAYS ONLY (금,토,일) 0.99 LB	\$50 이상 구매시 *박스, 쌀, 도매제품 금액은 포함 되지 않으며, 가구당 1BOX 한정 구매 하실 수 있습니다.
우엉 GOBO 3 DAYS ONLY (금,토,일) 1.99 LB	옐로우 망고 YELLOW MANGO 3 DAYS ONLY (금,토,일) 12.99 BOX	아보카도 AVOCADO 3 DAYS ONLY (금,토,일) 1.29 EA	
한국고추 KOREAN PEPPER 3 DAYS ONLY (금,토,일) 2.49 LB	간마늘 PEELED GARLIC 3 DAYS ONLY (금,토,일) 21.99 EA	그린빈 GREEN BEAN 3 DAYS ONLY (금,토,일) 0.99 LB	꽃감 (3LB) DRIED PERSIMMON 3 DAYS ONLY (금,토,일) 13.99 EA
한국고구마 KOREAN YAM 3 DAYS ONLY (금,토,일) 0.99 LB	땅두릅 GROUND ARALIA 3 DAYS ONLY (금,토,일) 19.99 LB	석류 POMEGRANT 3 DAYS ONLY (금,토,일) 2.99 LB	청경채 SHANGHAI 3 DAYS ONLY (금,토,일) 1.49 LB

SEAFOOD

붕어 WHITE PERCH 3.99 LB	메기 CAT FISH 1.99 LB	머리없는 새우 HEADLESS SHRIMP 6.99 LB	안동식 간고등어 ANDONG STYLE SALTED MACKEREL 10.99 PK 2,2LB	대관령 북어 DRIED POLLACK 9.99 PK 200G
--	---	---	--	---

MEAT

보쌈살 스테이크 BEEF TOP SIRLOIN STEAK 8.99 LB	아롱사태 BEEF CORNICAL MUSCLE 6.99 LB	돼지목살 불고기 패밀리팩 FROZEN PORK BULGOGI FAMILY PACK 3.99 LB	뼈있는 수육삼겹 PORK BONE-IN BELLY CHUNK 5.69 LB	닭다리살/패밀리팩 CHICKEN QUARTER LEG FAMILY PACK 0.99 LB
---	---	---	---	---

GROCERY

빙그레 바나나맛 우유 BANANA FLAVORED MILK DRINK 6 PK 7.99	현대수산 파래김 8호 10봉 ROASTED LAYER (PARAEGIM) 10PK 16.99 EA	롯데 몽셀 오리지날 DREAM CAKE ORIGINAL 12PK 4.99 EA	몽셀 몽셀 카카오 DREAM CAKE CACAO 12PK 7.99	백설 프락토 올리고당 OLIGO SYRUP 1.2KG 4.99 EA	가도야 볶은 참기름 KADOYA ROASTED SESAME OIL 11 FL.OZ. 4.99 EA
타로맛 우유 TARO FLAVORED MILK DRINK 6 PK 7.99	해태 에이스 크래커 ACE CRACKER 15PK 4.99 EA	경기미 MEDIUM GRAIN RICE 15LB 9.99 EA	순창 조개멸치 된장 SUNCHANG DOENJANG 900G 8.99 EA	샘표 맑은 조선간장 NATURALLY BREWED SOY SAUCE 930ML 5.99 EA	순창 초고추장 HOT PEPPER PASTE VINEGAR ADDED 1KG 5.99 EA
멜론맛 우유 MELON FLAVORED MILK DRINK 6 PK 7.99	농심 신라면 (멀티) SHIN RAMEN 4PK 3.99 EA	농심 신라면 (박스) SHIN RAMEN 10PK 9.99 EA	웅진 초록매실 GREEN PLUM DRINK 1.5L 3.99 EA	만능 다지기 SPIN SLICER 900ML 7.99 EA	세라믹 코팅 소스팬 18CM CERAMIC COATING SAUCE PAN 18CM 29.99 EA
커피맛 우유 COFFEE FLAVORED MILK DRINK 6 PK 7.99	CJ 동치미 물냉면 KOREAN STYLE COLD NOODLE WATER RADISH KIMCHI + RED PEPPER PASTE SAUCE 1,38KG 8.99 EA	청정원 런치미트 LUNCHEON MEAT 340G 2.99 EA	자연과 사람들 DRIED SEAWEED ALGUE 85G 3.49 EA	친환경 옥스포드면 방석 CHAIR CUSHIONS 5.99 EA	굿럭 슬리퍼 GOOD LUCK SLIPPERS 5.99 EA
딸기맛 우유 STRAWBERRY FLAVORED MILK DRINK 6 PK 7.99	CJ 함흥 비빔냉면 KOREAN STYLE COLD NOODLE W/ RED PEPPER PASTE SAUCE 474.4G 4.99 EA				

HOUSEWARES

--	--	--	--	--	--

The image used above is for better understanding and may not exactly match the actual product. Typographical errors may be present in the price and description. Quantities and price of sale are subject to change without notice.

비윤 나경원, 5선 권영세, PK맹주 김태호... 구원투수 되나

한동훈 사퇴, 국민의힘 지도부 공백
당선인총회 열어 지도부 교체 논할 듯

4·10 총선 참패에 책임을 지고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물러나면서 당장 집권 여당을 누가 이끌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당헌·당규상 당 대표 권한대행인 윤재옥 원내대표가 차기 지도부 구성과 운영 방향을 결정할 가능성이 크다. 당에선 여러 시나리오가 거론된다.

11일 당 관계자에 따르면 윤 원내대표는 이른 시일 내 당선인 총회를 열어 향후 지도부 교체 관련 의견을 수렴할 전망이다. 당을 조속히 추스르기 위해 당선 의원들이 모임 가능성도 있다고 한다. 영남 초선 의원은 “22대 국회 당선인이 결정된 만큼 현 지도부가 새 지도부 체제를 일방적으로 정하긴 어려울 것”이라며 “또다시 비대위로 가든, 조기 전당대회를 열어 당선인들의 의견을 반영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당내에선 향후 2년간 전국단위 선거가 없고, ‘한동훈 비대위’를 비롯한 최근 당 비대위 체제의 성공 모델이 없다는 점을 들어 비대위보다 전당대회를 열어 대표를 선출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당권 주자론 이번 총선에서 살아 돌



나경원(서울 동작을)·권영세(서울 용산)·김태호(경남 양산을) 당선인(왼쪽 사진부터)이 11일 당선 인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뉴스시스·뉴스]



후보로 거론된다.

영남권에선 ‘PK 맹주’ 김태호(경남 양산을) 의원의 도전 여부가 주목된다. 당에선 김 의원을 PK(부산·경남) 출신의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견제 카드로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TK(대구·경북)에서 6선 고지에 오른 주호영(대구 수성갑) 의원과 원조 윤핵관으로 친운 핵심과 떨어진 권성동(강원 강릉) 의원의 행보도 관심사다.

전당대회에 앞서 승자 독식의 단일 지도부 체제 대신 집단지도체제로 회귀하는 당헌·당규 원포인트 개정을 주장하는 이들도 많다. 집단지도체제의 경우 전당대회 1위가 당 대표를 맡고, 차점자들이 최고위원을 맡는 형식이다. 1등을 하지 않더라도 최고위원으로 지도부 임성이 가능해 인천 계양에서 낙선한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유승민 전 원내대표 등 중량급 인사들이 당권에 도전할 길을 열어주는 효과도 있다.

여당 중진 의원은 “당 대표의 리더십에 기대는 단일지도체제는 대통령실과 마찰이 생기면 대표가 책임지고 물러나는 상황이 생길 수밖에 없다”며 “다양한 목소리를 통한 건강한 당정 관계 구축을 위한 지도부 체제 변경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기정 기자

아은 수도권 중진들이 먼저 거론된다. 야당의 집중 견제를 뚫고 서울 동작을에서 생활한 나경원 전 원내대표, 경기 성남분당갑에서 ‘원조 친노’ 이광재 전 의원을 꺾은 안철수 의원이 대표적이다. 둘 다 지난해 3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친윤계의 조직적 반대로 ‘비윤계’ 꼬리표를 단 게 외려 현시점에서 득이 될 것이라 분석이 나온다.

이날 두 사람은 각각 SNS를 통해 대통령실과의 거리 두기 및 당권 도전 가능성을 시사했다. 나 전 원내대표는 “집권당으로서의 책임감과 입법부로서 감시와 견제의 의무를 모두 소홀히 하지 않겠다”며 “조금이나마 정치를 더 오래 지켜봤던 제가 대화와 타협의 물꼬를 트는 데 앞장서겠다”고 썼다. 안 의원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대한민국

의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 미움받을 용기로 감히 건의드리지 않을 수 없다”며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의 변화와 건설적인 당정 관계 구축을 촉구했다.

서울 강남권을 제외한 수도권에서 국민의힘 계열 정당 소속으로 처음으로 5회 연속 당선된 윤상현(인천 동·미추홀을) 의원과 서울 용산에서 5선 고지를 밟은 권영세 의원도 잠재적 당권

이재명 “기뻐할 때 아니다” 몸낮추기... ‘3년 플랜’ 시동?

(대전)

유세 때와 달리 차분한 언어 사용
당내 “낙선 위로 모임하자” 제안도
거야독주면 지난 대선 같은 역풍
3년 뒤 대선 겨냥 외연확장 나설 듯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총선 압승 뒤 몸을 낮췄다. 이 대표는 11일 오전 당 선거대책위원회 해단식에서 “민주당의 승리가 아닌 국민의 위대한 승리”라며 “승리나 당선의 기쁨을 즐길 정도로 현재 상황이 녹록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선거 이후에도 낮고 겸손한 자세로 주권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며 “당면 민생 문제 해결에 적극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새벽 인천 계양에서 밝힌 “저와 민주당이 민생을 책임지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라는 책임을 부과한 것”이라는 당선 소감과 같은 기조였다.

이날 이 대표의 말에는 선거운동 중 연일 쏟아낸 거친 말들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가 실렸다. “차분해진 이 대표의

모습이 조금 어색하다”(민주당 서울 지역 당선인)는 반응이 나올 정도다. 같은 날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앞으로 달려가 “김건희 여사 소환”을 외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도 다른 결이었다.

이 대표는 11일 당 지도부에 “당선자 모임보다 낙선자 위로 모임을 먼저 하자”는 제안도 했다고 한다. 민주당 최고위원은 “기쁨을 만끽하기보다는 국민이든, 낙선자든 위로하면서 민생 해법을 듣자는 게 이 대표의 생각”이라고 전했다.

이 대표가 총선 승리 후 첫 일성을 ‘로키(Low-Key)’로 잡은 것을 두고 정치권에서는 “명실공히 175석 ‘이재명당’을 이끌게 돼 정부·여당 뒷받하기 어려워진 상황과 무관치 않을 것”이라는 반응이 나왔다. 총선 이전에도 이 대표의 거대 야당의 당수였지만, 당내 지분은 제한적이었다. 비명·친문의 수가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대표가 공천권을 쥔 이번 총선에서 친명계가 대거 당선되면서 민주당의 색도 ‘이재명당’으로 거듭났다는 평가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오전 중앙당사에서 열린 선거대책위원회 해단식에 밝은 표정으로 참석하고 있다. 이 대표는 총선 결과와 관련 “민주당의 승리가 아니라 우리 국민들의 위대한 승리”라고 말했다. 왼쪽부터 이 대표, 홍익표 원내대표, 김부겸·이해찬 상임 공동선대위원장. [뉴스]

한 비명계 의원은 “향후 물가 등 민생 문제가 심각해지면 국민은 정국 주도권을 쥔 민주당에 ‘뭘 했느냐고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당장이 대표의 공약이었던 전 국민 민생회복지원금(1인당 25만원), 지역화폐 확대 등의 실현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민주당 추산 13조

원이 필요한데, 여당은 그간 “재원 마련 방안이 불투명한 포퓰리즘”이라고 맞서 왔다. 이 외에도 아동수당(월 20만원) 18세까지 확대, 고등학교 졸업까지 정부가 매월 10만원을 넣어주는 ‘자립펀드’ 등 현금성 공약이 많다. 민주당 관계자는 “선거 결과에 부응하는 성과

를 내지 못하면 국민이 언제든 회초리를 들 수 있다는 두려움이 상당하다”고 전했다.

대장동 재판 등 각종 사법리스크를 돌파하면서 3년 뒤 대선을 준비해야 한다는 간단찮은 ‘정치 시간표’도 이 대표를 누르는 무게다. 민주당은 2020년 총선에서 180석으로 압승했지만, 부동산 3법 등 입법 독주에 나섰다 역풍을 맞았다. 결과는 2021년 재·보선, 2022년 대선 및 지방선거 3연패였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학과 교수는 “친명계나 민주당의 독주가 부각되면 이 대표의 외연 확장에 지장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민주당이 조국혁신당과 연합하거나 선명성 대결에 나서기보다는 당분간 거리를 둘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조진만 덕성여대 정치학과 교수는 “이번 총선에서 정부·여당을 향한 화살이 3년 뒤 자신에게 울 수 있다는 점을 이 대표도 모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손국희·강보현 기자



통증·재활의 최고 전문가가 집중 케어 해 드립니다



진료 과목

- 목, 허리 통증 (디스크, 좌골신경통)
- 스포츠 손상/직장상해
- 교통사고 손상/뇌졸중
- 척추손상 후 재활치료

- 주요 근육 관절 통증
- 상전/상후 통증
- 관절수술, 척추수술 후 재활/물리치료
- 자세교정 운동 (측만증, 후만증)

진료 내용

근골격계 치료

레드코드 치료, 사선근육안정화 치료
척추축만증 치료, 맥켄지 치료
메이틀랜드 치료

중추신경계 손상치료

신경발달치료
보박스치료

통증치료

근육 통증치료
관절 / 근육이완치료
전기치료

원장 김우기 DPT

- 연세대학교 재활학전공
- 고려대학교 대학원 질병역학전공
- Doctor of Physical Therapy from Dominican College in New York
- Licensed in Virginia, Maryland
- Certified Neurodevelopmental Treatment Practitioner
- Certified Redcord Practitioner
- Certified Dry Needling Practitioner

교통사고·메디케어

■ 각종 의료보험, 메디케어, 캐시플랜

CORE Physical Therapy & Rehab

김우기 통증 재활 물리치료 T. 703-865-6455 F. 703-649-6455 14153 Robert Paris Ct. Ste. A, Chantilly, VA 20151

[예약환자에 한하여 주말에도 진료합니다] [센터빌, 첼트리 지역]

신성재 변호사

경기 침체로 어려운 시대에
당신이 믿을 수 있는 최고의 변호사.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지킬 것은 지켜 드립니다.
파산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입니다.

지난 10년간 1,000건의
파산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해결한
믿을 수 있는 로펌.

교통사고 / 개인파산

- 교통사고 / 최대보상
- 개인상해 보상청구
- Chapter 7: 개인 파산
- Chapter 13: 개인 파산-Payment Plan
- 비즈니스 관련 민사 소송

교통사고 최대보상!
소송전문 변호사들이 약속 드립니다.
아무리 작은 케이스라도 법원에서 끝장을 보는 근성 있는 변호사들!

같이 일하실 사무장 구합니다.
전화 또는 이력서를 이메일 sjshin.esq@gmail.com 으로 보내주세요.

DC LAW GROUP
LEGAL COUNSELORS

VA 571.999.2755
4326 Evergreen Ln. #C
Annandale, VA 22003

MD 301.775.2774
630 E. Diamond Ave, Suite F
Gaithersburg, MD 20877

Regina Domingo Esq. | Chris Shin Esq. | Robert Harris Esq.

Hours: Mon-Fri (10:00 ~ 18:00)
E-mail: sjshin.esq@gmail.com / Fax: 240.775.3004

이준석 “윤 대통령, 정국 돌파하려면 권력분산 개헌도 방법”

“임기 단축 논의할 수도 있을 것” 여권과 재결합 가능성엔 선 그어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의 당선은 이번 총선의 하이라이트라 할 만하다. 그가 가진 캐릭터가 정치권에서 드문 데다, 여당 대표를 지내다 윤석열 대통령과의 불화 끝에 탈당하고, 와신상담을 꿈꾸며 선거에 출마해 막판 뒤집기 끝에 배지를 달았기 때문이다. 경기 화성에 출마한 이 대표는 42.4%를 득표해 더불어민주당 공영은 후보(39.7%)를 2.4%포인트(3278표) 차로 제치고 당선을 확정했다.

이 대표는 11일 선대위 해단식에서 “개혁신당이 선명한 야당으로서 활동할 수 있는 충분한 기반이 마련됐다”며 “합리적 야당으로서의 역할, 훌륭한 조율자가 될 수 있는 정책적 능력을 보여드리겠다”고 말했다.

개혁신당은 지역구에서 당선된 이 대표를 포함해 비례대표 1번 이주영 전 순천향대천안병원 교수와 2번 천하람 총괄선대위원장까지 총 3석을 얻었다.

이 대표는 또한 2016년 총선을 계기

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조기에 물러났다며 윤 대통령을 향해 “심각하게 받아들여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이 정국을 돌파하려면 야당과 타협안을 내야 한다”며 “그중 하나는 권력의 분산을 위시한 개헌 과제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이를 통해 권력 구조나 임기 단축 부분에 관해 이야기할 수 있다고 본다”며 윤 대통령의 임기 단축 가능성을 언급했다.

이 대표는 이날 SBS라디오에선 대선 도전에 대한 질문을 받고 “다음 대선이 몇 년 남았다. (3년) 확실한가”라고 되물었다.

총선에서 압승한 민주당을 향한 공세도 이어갔다. 이 대표는 MBC라디오에서 “윤석열 정부 초기에 민주당 의석이 170, 180석이었다.

의석이 부족해서 윤 대통령의 무리수들을 견제하지 못했던 게 아니다”며 “처럼회나 이런 의원들이 한동훈 법무부장관 대정부 질문 때 ‘이모 논란’ 등 여러 논란을 만들어 오히려 여권을 키워줬다”고 꼬집었다. 민주당 내 친명계 모임인 처럼회 소속 김남국 의원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선대위 해단식에 참석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운데)가 비례대표에 당선된 이주영(왼쪽)·천하람 총괄선대위원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김성룡 기자

은 2022년 5월 한동훈 당시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딸의 논문 공저자인 이씨 성을 가진 익명의 ‘이모 교수’를 친척인 이모로 착각해 ‘이모와 함께 논문을 썼다’며 추궁했다가 사과했다.

화려한 정치 이력에도 이 대표는 유독 총선에서는 고전했다. 2011년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장 영

입으로 정치에 입문한 이 대표는 2021년 36세의 최연소 여당 대표라는 기록을 세웠다. 2022년 3월 대선, 6월 지방선거를 연달아 승리로 이끌며 주가를 올렸다.

그러나 서울 노원병에서 세 번 연속(2016년 총선, 2018년 재·보궐선거, 2020년 총선) 낙선했다. 국민의힘 대표 재임 당시 ‘0선 대표’라는 달갑지 않은

별명이 붙은 이유다.

이번 총선 과정도 녹록치 않았다. 경기 화성읍은 개혁신당 이원욱 의원이 민주당 소속으로 내리 3선을 한 지역이다. 지역 연고도 없는 이 대표는 네 번째 도전 끝에 원내 입성에 성공했고, 정치적 덩치도 더 커졌다. 일각에선 차기 대선 주자라고도 언급한다.

특히, 개혁신당이 제3지대 정당 중 유일하게 복수 의석을 얻으며 중앙정치 무대에서 활약할 토대도 마련했다. 천하람 위원장은 이 대표의 당선 소감 직후 브리핑에서 “이 대표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지역구 승리를 거뒀다”며 “개혁신당은 한국의 마크롱이 될 수 있는 멋지고 젊은 대선주자를 보유한 정당이 됐다”고 말했다.

여권 일각에선 이 대표와 국민의힘이 재결합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 대표가) 당선된다면 다시 힘을 합쳐야 한다”고 한 홍준표 대구시장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이 대표는 “(개혁신당은)야권이다. 선거 과정에서 야권으로 계속 얘기했다”고 선을 그었다.

박건 기자

“목관 5중주 알리려, 10년째 일부러 어려운 곡 연주”

‘뷔에르 앙상블’ 내일 공연

조성호·유지홍 등 창단 멤버들 “소리 달라질라” 10년간 함께해

“무대에 올라가면 관객이 설레는 눈빛으로 바라보잖아요. 그럴 때 쉬운 곡으로 쉽게 연주하기는 싫어 일부러 어려운 곡들만 연주하러 10년입니다.”

클라리넷 연주자 조성호(39)는 이렇게 말했다. 동료 관악기 연주자들과 5중주 팀을 결성한지 올해로 10년이 됐다. 라틴어로 ‘진짜’라는 뜻의 뷔에르(vere) 앙상블이다.

플루트 유지홍(39), 오보에 고관수(36), 바순 이은호(34), 호른 주홍진(35)이 창단멤버로 시작해 10년째 함께 하고 있다.

지난 4일 중앙일보와 인터뷰에서 조성호와 유지홍은 “10년 전만 해도 목관 5중주에 대해 모르는 사람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래서 ‘목관 5중주가 이렇게까지 할 수 있구나’라는 감탄이 나오는 곡들을 골라 연주했었어요.” 창단 연주에서 20세기 작곡가 리게티와 바버를 비롯해 정밀한 앙상블이 필요한 작품들을 골랐다. “10년 동안 한 곡



목관 5중주 뷔에르 앙상블. 왼쪽부터 유지홍, 주홍진, 이은호, 조성호, 고관수. [사진 목포로덕선]

만 연주해도 힘든 장 프랑세의 작품만으로도 무대를 만들기도 하고, 앙상블 크기를 늘려서 10중주까지도 시도해 봤습니다.”

관악5중주는 상대적으로 역사가 짧다. 목관악기 자체도 현악기나 건반악기에 비하면 새로운 악기다.

목관 악기 5대는 부는 방식이 모두 다르다.

이 때문에 서로 다른 목관 악기들이 툭툭 튀어나와 독주자처럼 연주하는

것이 5중주의 매력이라고 한다.

“뷔에르 앙상블도 처음 만들 때부터 독주자처럼 하자, 카멜레온처럼 하자는 목표를 가지고 있었어요.”(유지홍)

이들은 “목관 앙상블은 멤버가 바뀌면 소리가 확 달라진다”며 10년 동안 멤버 교체가 한 번도 없었다는 데에 자부심을 가진다.

조성호와 유지홍은 중학교부터 함께 다닌 동갑 친구다. 이후 베를린 한스아이슬러 대학에서 공부하며 룸메이트 사이가 됐을 때 ‘목관 5중주를 꼭 만들어보자’며 맹목했다.

귀국 후 독주자 성향을 가진 목관 연주자들을 모아 팀을 만들었다. 뷔에르 앙상블의 특이한 점은 이름이다.

“5중주”라는 뜻의 ‘퀵셋’을 사용하지 않고 멤버 숫자가 모호한 ‘앙상블’을 썼다.

뷔에르 앙상블의 10주년 기념 공연은 13일 오후 8시 서울 예술의전당 IBK챔버홀에서 열린다.

10년 전 첫 공연에서 연주했던 클루크하르트, 바버, 리게티에 목관 5중주의 시초 작곡가라 할 수 있는 프란츠 단치의 작품을 함께 들려준다.

김호정 기자



북도 인정한 기자실장 허희옥, 38년 공식 퇴임

통일부의 살아있는 역사, 허희옥(사진) 기자실장이 9일 건강 문제로 퇴임했다. 허 실장은 약 38년 통일부에서 근무했는데, 그중 25년을 기자실장으로 일했다.

방북 취재 풀 기자단 구성 및 보도자료 배포까지, 그의 손을 거치지 않은 보도 지원 관련 업무는 없다. 그가 챙긴 남북 관련 회담 업무는 200회 이상이며, 대통령·국무총리 표창은 각 1번, 장관급 표창은 5번을 받았을 정도로 타의 모범이었다. 그는 10회 이상 방북을 한 남북 관계 산 증인이다. 그는 북측에서도 “일 잘하는 기자실장 선생”으로 불렸다. 2018년 남북 정상회담 당시 대기업 회장들에게 “지금 냉면이 목구멍으로 넘어가냐”는 타박을 했던 이선권

당시 조국평화통일위원장이 붙여준 별명이다.

허 실장은 2012년 암 판정을 받았고 약 4년 전 재발해 치료를 계속해왔다. 투병에도 불구하고, 기자실장 자리를 지켜왔으나 의료진의 판단으로 눈물의 퇴임을 하게 됐다. 그는 퇴임 직후 10일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이산가족 상봉 현장 등을 수 없는 보람과 추억을 안고 간다”며 “울지 않으려 했는데 기자단 감사패 내용을 보니 눈물이 쏟아졌다. 감사하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통일부가 정치적으로 흔들리는 게 안타깝다. 훌륭한 인재들이 마음 놓고 일할 환경이 조성되면 좋겠다”는 말을 남겼다.

전수진·정영교 기자

HopeSpring Child & Family Clinic, LLC

희스프링 아동 가족상담소

상담분야
아동, 청소년, 성인 상담, 부부 상담, 가족 상담, 놀이치료, 모래놀이치료, 미술 치료, 표현 예술 치료, 자녀문제 컨설팅, 부모 상담, 부모 교육 및 정신건강 관련 강의

상담진료분야
우울증, 조울증, 불안장애, 분노조절장애, 강박증, 선택적 함묵증, 조현병, PTSD, ADHD, Autism, 섭식 장애, 발달장애 및 지연, 학교 내에서 문제 행동들, 부모자녀 갈등, 대인관계 갈등, 아동 학대(신체적 폭력, 성폭력 등), 가정폭력, 부부 갈등, 고부 갈등, 별거/사별/이혼/재혼 후 심리적인 어려움, 스트레스 관리법

예약 상담제
각종 건강보험 취급

페어팩스시티 도서관 맞은편

3915 Old Lee Hwy, #23A, Fairfax, VA 22030
www.hopespringchildandfamily.com
info@hopespringchildandfamily.com

정신건강 전문가 권미경, Ph.D.
(Dr. Mi-Kyong Kwon)

- ▶ 한국과 미국에서 25년 이상 임상 경험
- ▶ National Certified Counselor
- ▶ National Certified TF-CBT Therapist
- ▶ Licensed Professional Counselor & Supervisor (VA)
- ▶ Licensed Clinical Professional Counselor & Supervisor (MD)
- ▶ Licensed Professional Counselor (TX)
- ▶ Registered Play Therapist & Supervisor
- ▶ 전) 한국놀이치료학회 편집 전문위원
- ▶ 전) Kennedy Krieger Institute, Psychotherapist
- ▶ 전) Trauma Training Academy, Faculty

703-259-5617, 410-241-2520

유재신 공인회계사

세무보고 / 회계업무 / 경영상담 / 세무 감사 대변
신규사업체 등록 / 공증업무 / 납세자 번호 (TIN번호)신청

유재신 경영학 박사, 공인회계사
jaeshinyoocpa@gmail.com

모든 절약은 이곳에서

2023 Return

T A X

유종옥 종합보험

자동차 / 집 / 사업체 / 생명
본드 / 건강보험 / 메디케어

유종옥 종합보험
jongokyoo@gmail.com

TEL. 703-916-0172, 703-916-0868 (VA) / 301-871-2448 (MD) / FAX. 703-916-0173

VA Office 7353 McWhorter Pl., #210, Annandale, VA 22003

MD Office 5732 Stanbrook Ln., Gaithersburg, MD 20882

우리말 바꾸기

‘배속’과 ‘벡속’의 차이

“열 달 동안 무럭무럭 자라라는 의미에서 벡속 아이를 ‘열무’라고 부른다”처럼 쓰면 안 된다. ‘배속’으로 띄고 [배속]으로 읽어야 한다.

‘배속’과 ‘벡속’은 다른 뜻으로 사용된다. 신체 내부를 관찰하는 내시경으로는 ‘벡속’을 들여다볼 수 없다. 현재 표준국어대사전에 벡속은 ‘마음’을 속되게 이르는 말로만 올라 있다.

신체 부위인 배 안을 가리킬 때는 ‘배속’과 같이 띄어 쓴다. 사전에서 ‘태아’를 검색하면 ‘어머니 배 속에 있는 아이’라고 나온다. “그들의 검은 벡속을 미쳐 몰랐다”의 경우에는 육체적인 배를 뜻하는 게 아니다. 음흉한 속내를 알지 못했다는 것이므로 ‘벡속’으로 붙여 적고 [배속/벡속]으로 발음한다.

띄어쓰기 하나로 뜻이 달라지는 단어로는 ‘가슴속’과 ‘가슴속’도 있다. ‘가슴속 깊은 곳에서 거칠게 울려 나오는 기침 소리’와 같이 가슴 안쪽 부분을 이르면 ‘가슴속’으로 띄어야 한다. ‘가슴속에 고이 간직한 추억’처럼 ‘마음속’의 의미라면 ‘가슴속’으로 붙인다. 문제는 ‘속’이 붙는 단어들의 의미와 띄어쓰기에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콧속’은 코의 안쪽, ‘귀속’은 귀의 안쪽을 나타내지만 붙인다. ‘벡속’과 ‘배속’이 다른 뜻을 함을 간과하는 사람이 많은 이유다.

독자 참여를 기다립니다

한인커뮤니티를 위한 제언, 신문을 보고는 긴 점, 문제작품, 독자투고 등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기다립니다. 워싱턴 중앙일보 편집국 오피니언 담당자: The Korea Daily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이메일: dc.thekoreadaily@gmail.com 전화: 703-281-9660

◆오피니언은 본지 편집방향과 관련이 없습니다.

중앙일보 The Korea Daily dc.koreadaily.com

대표전화 : 703-281-9660 (광고·구독 문의 및 기사제보)

발행인 김영천

편집국장 박세용 광고국장 송동윤

2001년 9월 22일 창간 7023 Little River Tpk #310, Annandale, VA 22003

본사 전채 계약 제휴사 한국중앙일보, Washington Post

Washington Joongang Newspaper inc. is not a branch office of Koreadaily, subsidiary or franchise of the company, but a licensee of the content of the company.

다정한 서재

저주토키



클로이리 칼럼니스트

배경으로, 할아버지에게 일어난 일을 손자가 듣는 액자식으로 구성된 소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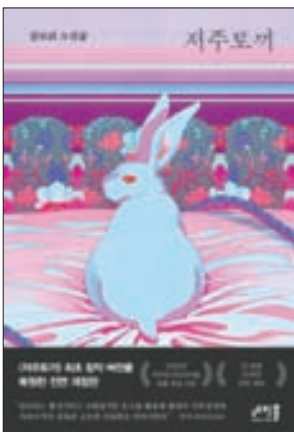
저주용품이라고 하니 사악한 기운으로 들끓을 것 같지만 사업을 운영하는 나름의 원칙이 있다.

개인적인 용도로 저주용품을 만들지 않는다는 것, 그렇게 만든 물건을 개인적인 저주에 사용해서도 안 된다는 것.

하지만 딱 한 번, 예외가 생긴다. 저주용품을 만든다는 이유로 천민보다 못한 취급을 받았던 할아버지의 유일한 친구인 양조장집 아들이 경쟁 업체의 비열한 수법에 말려 사업이 망하고 자살하게 된 일이다. 할아버지는 친구를 죽

게 한 경쟁 업체를 무너뜨리기 위해 저주용품을 만든다.

이야기는 시종일관 기이하다. 그 말은 다수가 따르고 있는 상식과 원칙에 많이 어긋난다는 뜻이다. 저주토키가 경쟁 업체를 망가뜨리는 과정부터 그렇다. 토끼들이 밤마다 공장에 가서 종이를 갈아낸다. 회사의 자료들을 다 갈아버려 세금 납부를 증명할 길이 없어진 사장은 큰 손해를 본다. 토끼들은 사장 손자의 영혼에 들어가 죽게 만들고, 사장의 아들을 다치게 하며 끝내 삼대를 멀하게 만든다. 분명 인간에게 벌어진 일이지만 그것을 해결하기에 인간의 힘은 미약하다.



뒤늦게 정보라 작가의 소설집 <저주토키>를 읽었다. 전미도서상 번역문학상 최종 후보에 오르고, 영국 부커상 인터내셔널 부문 최종 후보에도 오른 저명한 작품인데 어쩐지 선뜻 손이 가지 않았다.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기이하고 으스스한 잔혹동화 느낌이 강해서일 것이다.

소설집은 SF와 공포를 넘나드는 10편의 단편이 실려 있다. 표제작 <저주토키>는 억울하게 몰락한 친구의 원한을 갚기 위해 대대로 저주용품을 만드는 할아버지가 저주토키를 만들어 복수에 나서기 시작한다.

저주토키는 손자를 시작으로 원수 삼대를 몰락하게 만든다. 그런데 이야기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고 ‘남을 저주하면 무덤이 두 개’라는 속담처럼 할아버지에게 화가 몰려오는데...

왜 하필 토끼일까? 환상호러 웹진 ‘거울’에서 정도경이라는 필명으로 활동하던 2015년 말, 동양전통의 12지신 가운데 한 동물을 정해서 각자가 소설 한편씩을 쓰는 특집을 진행했다. 개나 돼지, 용, 호랑이 등 멧웃거나 익숙한 동물은 이미 누군가 선택했고, 그에게 남은 건 양과 토끼뿐이었다. 동물 중에서 거의 최약체여서 무기가 될 것이 없는 토끼를 선택했다. 예쁘고 귀여운 동물이어서 반대로 최대한 무섭게 만들고자 작정했다고 한다.

토끼를 소재로 하되, 과거 쓰레기 만두 파동으로 억울하게 파산한 회사 이야기와, 군사독재 시절 쌀 자급자족을 위해 쌀로 전통주를 빚는 양조장의 맥이 끊길 뻔한 실제 이야기에서 영감을 받아 작품을 구성했다.

이야기 속으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자. <저주토키>는 저주용품을 만드는 것이 가업인 집안

할아버지는 부당한 힘을 벌하고자 저주용품을 쓰지만 여기에는 커다란 모순이 있다. 집안이 저주토키를 만드는 것을 직업으로 삼고 돈을 벌 수 있는 건 바로 부조리하게 뒤틀린 세상 덕분이다. 아버지 자본주의를 저주하지만, 그 저주마저 사업 수단으로 이용해 자본주의를 지탱하는 아이러니.

그 와중에 손자는 자식이 없어 다행이라고 자위한다. 삼대가 망하는 극단의 저주가 더 이상 통용될 수 없는 이유는 애초에 삼대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진실은 다행일까, 궁극의 비극일까. 뒤틀린 세상에서 찾을 수 있는 위안은 뒤틀린 세상이 끝나는 것뿐이라는 메시지는 종말만이 희망이라고 말하는 것 같다.

나도 언젠가 할아버지처럼 죽어도 죽지 못한 채 달 없는 밤 어느 거실의 어둠 속에서 나를 이승에 붙들어두는 닻과 같은 물건 옆에 영원히 앉아 있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내가 저 창가의 안락 의자에 앉게 될 때쯤, 내 이야기를 들려줄 자식도, 손자도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며 나는 방문을 닫고 완전한 어둠 속에 홀로 선다. - p. 34

이런 잔혹동화의 배경에는 뿌리 깊은 갈등의 역사가 있기 마련이다. 극단적 자본주의가 인간 사회에 가하는 소외감이 소설을 관통한다.

‘취미가 데모’라는 정보라 작가는 지금 11년 동안 시간강사로 일했던 연세대를 상대로 퇴직금과 주휴·연차수당을 청구하는 소송을 벌이고 있다.

뒤틀린 세상을 완전하게 저주하는 작품을 쓴 창작자다운 행보다. 뒤틀린 세상에서 품을 수 있는 희망은 뒤틀린 것들이 조금 쪼개지는 것이다. 정보라 작가의 데모가 세상을 바꾸는 다림질이 되기를 기대한다.

문장으로 읽는 책

물속의 철학자들



“신은 보이지 않잖아요. 산소도 안 보여요. 그러니까 신은 산소 아닐까요.” 재미있는 의견이었다. 그 학생은 신이 만든 우주에 왜 산소가 없을까 의아한 모양이었다. 신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고 하니, 신은 지구에 있는 것이다. 지구에는 산소가 있다. 그러니까 신은 산소인 것이다. “그러면 신은 뭉속에도 있는 거네.” 내가 이렇게 말하자 그 학생은 “하지만 토하면 나가버려요”라며 수줍게 미소를 지었다. 나카이 레이 『물속의 철학자들』 학교·기업 등에서 ‘철학 대화’를 이끄는 저자의 책이다. “신은 존재할까”라는 질문에 한 여중생이 내놓은 답이다. 저자는 “어째서 엉뚱한 말은 미움을 받을까, 어째서 그런 건 철학이 아니라고 여겨질까”라고 묻는다.

“의외로 아이들은 엉뚱한 말을 하지 않는다. 어디선가 들은 적 있는 모범답안, 부모에게서 이어받았을 범한 사상, 사회에 널리 퍼진 상식을 입에 담는다. 질문에 대해서 ‘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정답’을 맞히려려고 하기 때문이다.” 그에 비해 철학자들은 이상한 말, 꽤나 비상식적인 사고실험을 하는 존재다. 정답 아닌 자신만의 답을 찾는다.

우리 삶 속 철학의 쓰인새를 묻는 책이다. 사람을 사랑한다는 건 무엇인가요? 보통이란 뭔가요? 나는 태어나도 괜찮았던 걸까요? 질문 때문에 쓰러질 듯해도 질문과 함께 계속 살아가는 것. 그것을 나는 철학이라고 부르고 싶다.”

양성희 중앙일보 칼럼니스트

BED BUG

민대퇴치! ELIMINATE!

more ▶ www.sk-pest.com

▶ 주택 ▶ 식당 ▶ 상가 ▶ 건물

100%

SATISFACTION
GUARANTEED

에스케이소독

무료 견적

skpmva@gmail.com

571-992-5789

김철민

합동법률사무소

Potomac Law Group, PLLC

“변호사가 성실하게 직접 상담해 드립니다.”

풍부한 경험과 최고의 실력을 갖춘 전문가들이 완벽한 Team-Work으로 여러분의 어려운 문제를 최선을 다해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립니다.

약력

- 조지타운 법과대학원
- 미국 연방의회 연수 (House of Representative)
- United Nations, Research Fellow (UNU Headquarters, Tokyo, Japan)
- Kotra 해외진출기업 자문변호사
- ICSC (Int'l Council of Shopping Centers) Member
- Redcliff Partners 고문변호사
- 이민, 투자, 상법 전문변호사

Immigration

- 영주권/시민권
- E2 비자/투자이민
- 취업/가족초청이민
- 비자변경 및 연장
- 종교비자/이민
- 강제추방문제

Business / Real Estate

- 회사설립/합병
- 사업체 매매
- 국제합작투자
- 부동산 매매/임대차
- 대정부계약/입찰구매
- 부동산 투자 개발

대표 703-973-8700 | 7700 Little River Tnpk., Suite 303, Annandale, VA 22003 예천앞빌딩3층

국내 최고령 라디오 진행자, 90세 김장환 목사의 1000회 방송

김장환 목사(극동방송 이사장)는 2004년 수원중앙침례교회에서 은퇴했다. 40년 동안 담임을 맡았다. 개신교계에는 은퇴 후에 '원로목사' 직함을 갖고서 교회 일에 간섭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전임 목사와 후임 목사 간 갈등의 불씨가 되곤 한다. 김 목사는 그러지 않았다. 대신 극동방송을 키우기로 마음먹었다.

그는 은퇴 후 극동방송으로 왔다. 사정은 안 좋았다. 경영은 적자였다. 전기료도 제대로 못 낼 정도였다. 직원 월급을 주는 것도 힘에 부쳤다. 김 목사는 팔을 걷어붙였다. 2005년 1월 8일, 자신이 직접 진행을 맡고 라디오 방송을 시작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처음에는 "5년만 가도 잘 가는 거야"라고 생각했다.

그렇게 출발한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가 지금은 간판 프로그램이 됐다. 다음 주(4월 19일)에 1000회를 맞는다. 주 1회, 매주 금요일 오후 1시에 방송이 나간다. 무려 20년 세월이다. 지금까지 단 한 주도 결방이 없었다.

그사이에 극동방송은 흑자로 돌아

왔다. 올해 90세인 김 목사는 '국내 최고령 라디오 진행자'다. 4일 서울 마포구 상수동 극동방송에서 김장환 목사를 만났다. 그에게 '1000회의 소회'를 물었다.

20년간 단 한 차례 결방도 없어 -20년간 1000회의 방송, 쉽지 않은 일이다.

"내게는 '제2의 목회 인생'이었다. 방송에 초청해 인터뷰를 한 사람만 1000명이 훌쩍 넘는다. 대통령을 지낸 사람부터 유명 연예인, 택시 기사와 이발사, 환경미화원까지 그야말로 천장에서 바닥까지 두루 만났다."

- 그렇게 만나봤더니 어땠나.

"모든 사람의 삶에는 어려움이 있더라. 아무리 높고 부유한 사람이라도 외로움이 있더라. 그들의 애환을 들으며 정말 힘든 처지에 있는 사람이 위안을 받기도 한다. 예를 들어 재벌가의 한 사람이 출연한 적이 있다. 재산 때문에 자녀가 싸운다고 했다. 그 이야기 들으며 나부터 이런 생각이 들더라. 나는 재산이 없으니 우리 삼 남매가 싸우지 않는구나. 돈 없는 것도 축복이로구나. 그렇게 느낀 사람이 어디 한둘이었을까?"

- 결국 사람의 이야기가 사람에게 위안을 주는 건가.

"그렇다. 이웃의 삶을 통해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되더라. 2010년 밴쿠버 동계올림픽 해설위원은 방송에 나와서 아직 결혼을 못 했다고 했다. 그걸 들은 청취자 중 한 분이 자기 딸과 어울리겠다며 소개했다. 결국 결혼했다. 1000회



올해 90세인 김장환 목사가 20년째 진행하고 있는 극동방송 라디오 프로그램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가 19일에 방송 1000회를 맞는다. 'TV는 송해, 라디오는 김장환'이란 말이 있을 정도로.

방송 동안 온갖 일들이 있었다."

코로나 땀 방송사 직원들 초청 대담

코로나19 사태가 터졌을 때는 난감했다. 비대면 기간이라 게스트를 외부에서 초청할 수가 없었다. 김 목사는 그때 극동방송 직원들을 스튜디오로 불렀다. "목회자 사모인 직원들도 부르고, 쌍둥이 부모인 직원들도 부르고, 갓 입사한 직원도 불렀다. 또 경비 직원과 식당 직원도 불렀다. 그들의 삶과 애환을 들었다." 덕분에 코로나 시국에도 결방 없이 흘러갈 수 있었다.

- 20년간 방송을 한 번도 쉬지 않았다. 건강하지 않다면 어려운 일 아닌가. 건강 비결은.

"나는 새벽형 인간이다. 매일 새벽 3시에 일어나다. 극동방송 사무실에는 오전 5시까지 간다. 우선 일간지 신문들을 하나씩 꼼꼼하게 정독한다. 극동방송 직원들을 대상으로 매일 아침 예배도 본다. 가급적 엘리베이터보다 계단을 이용한다. 오래된 습관이다. 늘 바쁘게 돌아다닌다.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니까. 극동방송은 선교 방송이 아니냐. 그러니까 엔도르핀이 솟지. 그게 내 건강의 가장 중요한 비결이다."

동양인 최초 세계침례교 총회장 역임

미국에서 가장 큰 개신교단이 침례교다. 교인 수가 5000만 명이 넘는다. 미국 크리스천 셋 중 하나가 침례교인이

다. 김 목사는 2000년부터 5년간 세계 침례교회연맹 총회장을 역임했다. 그때까지는 미국인과 유럽인만 세계침례교 총회장을 맡았다. 동양인이 총회장을 맡는 것 자체가 깜짝 놀랄만한 이변이었다.

그는 총회장 취임식을 쿠바의 수도 하바나에서 하자고 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가 전 세계를 돌면서 선교 활동을 했다. 가보지 못한 도시가 딱 하나 있었다. 그게 쿠바의 하바나였다."

당시 김 목사는 피델 카스트로 국가평의회 의장도 만났다. 2시간 30분 동안 대담을 했다. 쿠바는 미국의 경제봉쇄 대상국이다. 김 목사는 미국 정부에 쿠바 어린이를 위한 우유와 어린이용 의약품은 경제 봉쇄 대상에서 제외해달라고 요청했다. 결국 통과됐다. 그의 선교 활동이 최근 한국과 쿠바의 수교에 거름이 됐음은 물론이다.

극동방송은 기독교 선교방송이다. 해외 50개국에 지사가 있다. 최근에는 북한선교용으로 AM 방송도 갖추려 한다. 한국전쟁 때 미군 하우스 보이로 일했던 김장환 목사는 세계침례교회연맹 총회장이 됐다. 교인 수 12명에 불과하던 수원중앙침례교회는 그가 은퇴할 때 1만5000명 교회가 됐다. 라디오 방송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는 다음 주에 1000회를 맞는다. 김 목사는 이 모두를 관통하는 단어가 하나 있다고 했다. 다음 아닌 '복음'이다. 김 목사는 "내게는 첫째도 복음, 둘째도 복음이다"고 말했다.

백성호 종교전문기자



김장환 목사(왼쪽)가 2000년 쿠바 피델 카스트로 국가평의회 의장에게 스페인어 성경을 선물하고 있다. [사진 극동방송]

'국악소녀' 송소희, 이번엔 팝송걸

싱어송라이터 앨범 '공중무용' 발표를 정해진 민요만 20년, 같증 느껴 '나 닮은 자연' 주제 직접 작사·작곡 국악이 본के, 팝하는 부캐 만들어

"20년 넘게 경기민요를 했어요. 정해진 틀이 있는 장르인데, 그 틀 안에서 저를 완전히 표현할 수 없었더라고요."

국악인 송소희(27)가 싱어송라이터로서의 첫발을 내디뎠다. 지난 4일 발매한 첫 미니앨범 '공중무용'을 통해서다. 직접 작사·작곡에 참여한 4곡을 담았고, "내가 발견한 내 안의 새로운 길"이라고 앨범 소개글을 적었다.

송소희는 7살 때부터 '국악 신동'으로 불리며 경기민요 소리꾼으로 이름을 알렸다. 그가 창작에 나선 건 2022

년 새로운 소속사에 들어가면서다. 가수 십센치(10CM), 선우정아 등이 몸담은 소속사 매직스트로베리사운드에 합류한 뒤, '구름꽃 여행'(2022), '인포데믹스'(2023), '세상은 요지경'(2023) 등 세 차례 싱글 곡을 내며 싱어송라이터로서 시동을 걸었다. 이번 앨범은 '세상은 요지경' 이후 약 반년 만에 발매한 신보이자, 싱어송라이터로서는 처음 선보인 앨범이다.

11일 오후 서울 마포구의 한 카페에서 열린 미니앨범 발매 기념 언론 청음회에서 그는 "경기민요는 어떻게든 정답을 향해 가야 하는 장르다. 오랜 기간 한 음악을 하면서 뭔가 해소되지 않은 감정이 느껴졌다"며 직접 곡을 쓰게 된 계기를 밝혔다. "아무 구애도 받지 않고, 하고 싶은 음악을 하다 보니 조금씩



11일 오후 서울 마포구 무대북에서 소리꾼이자 싱어송라이터 송소희의 미니 1집 '공중무용' 청음회가 열렸다. 이 앨범에는 송씨가 작사·작곡에 참여한 4곡이 실렸다. [사진 매직스트로베리사운드]

해소가 됐다"면서 "동시에 원래 하던 국악도 새롭게 바라보게 되더라. '내가 정말 멋진 음악을 하고 있었구나'하는 자부심도 생기면서 양쪽 모두 좋아졌다"고 말했다. "소위 말하는 '본के'(원래 캐릭터)·'부캐'(부차적인 캐릭터) 개념처럼, 제 '본के'는 경기민요를 하지만, 삶의 재미를 높이기 위해 '부캐'를 만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앨범에서 송소희는 자신과 가장 닮았다고 생각하는 자연을 각 곡의 배경으로 삼았다. 사막에서 영감을 얻은 타이틀곡 '공중무용'은 일렉트로닉 팝 장르다. "뜨거운 사막을 배경으로 노을이 질락 말락 하는 시간대에 느끼는 '나에 대한 사랑'을 표현했다"고 그는 설명했다. 한국적 정서를 녹인 송소희의 음색과 '강강술래'와 같은 가사가 어우러져 민속적 분위기를 강하게 묻어낸다.

첫 번째 수록된 '주야곡'은 들뜬 배경으로 오랜 신뢰를 바탕으로 단단해진 사랑 이야기를 담았고, 세 번째 수록된 '진한 바다를 거슬러'는 해가 다지고 어둠이 깔렸을 때의 깊은 바닷속과 같은 관계를 떠올리며 만들었다. 마지막 곡 '사슴신'은 앨범에서 가장 빠른 템포의 신나는 곡이다. "지브리 애니메이션 중 '원령공주'라는 작품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삶과 죽음 그리고 생명을

관장하는 사슴신을 볼 때마다 여러 감정이 들었다. 사슴신에게 생명을 갈구하는 것처럼, 사랑을 갈구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그가 보유한 국악의 기본기는 창작에 큰 도움이 됐다. 송소희는 "제가 다루는 경기민요는 맑고 청아한 음색으로 피피리처럼 목기울을 사용해 노래한다. 창작할 때 제가 갖고 있던 목기울을 마치 레고 쌓기를 하듯이 작재적소에 집어 넣어보면서 작업했다"면서 "오래 해오던 국악을 창작에 활용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새로운 도전을 통해 송소희는 "내가 이런 가사를 쓰나? 이런 곡을 쓰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새로웠다"면서 "제가 생각보다 어렵고 복잡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싶은 사람이다.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은 좋지만, 너무 어렵고 복잡한 것들은 경계해야겠다는 생각도 들었다"고 덧붙였다.

어환희 기자

메디케어 보험

여기 메디케어 진짜 잘하는 헬스플랜 전문가와 함께 모든 베네핏을 누릴 수 있는 답을 찾으세요!

- / 65세 되시는 1959년생 신규 가입신청과 가입
- / Part C (HMO/PPO) 가입자들을 위한 추가 혜택
- / 심장질환, 당뇨, 말기 신부전증을 위한 스페셜 플랜
- / 메디케이드/ 메디케어 DSNP 특별 보험
- / 메디케어 Part D (처방약 보험)에 대해
- / 타주 전입, 직장 퇴직 후 메디케어 신청

유니티 보험

Uniti Global Insurance Services Inc.
14631 Lee Hwy, Unit #408, Centreville, VA 20121

Tel: 703-598-3316



정문기

메디케어 헬스플랜 전문 에이전트

김원근 변호사 재판·소송

- 민사·형사·이혼·강제집행·공사관련·세입자분쟁·비즈니스·프랜차이즈 분쟁·세금분쟁
-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가정폭력·범죄기록말소·임금 연장근로수당·경업금지 소비자 보호법 명예훼손·자동차 교통사고·산재보험·화재보험·자동차 보험·각종 보험사고 기타 각종 재판 및 소송처리

TEL: 571-278-3728

8200 Greensboro Dr., #900
McLean, VA 22102

Weon G. Kim
VA, MD, DC Attorney at Law



시 설

나라 위기 극복 위한 여야 협치가 총선의 명령이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선거는 민의의 모든 것이자 국정 질서의 변화를 추동하는 엔진이다. 그제 실시된 22대 국회의원 총선거는 한국 정치에서 이제 여야의 협치가 선택사항이 아닌 필수요소를 선언하는 계기가 됐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108석에 그쳤지만 야당은 더불어 민주당 175석, 조국혁신당 12석 등으로 절대다수 의석을 차지했다. 국회 주도권을 쥔 야당은 국민의힘이 추진하는 모든 정책을 막을 수 있고, 반면에 윤석열 대통령도 야당이 단독 처리한 법안은 저지할 거부권을 확보했다. 이런 구조는 여야가 상대의 정책·법안이라면 무엇이든 중단시키는 비토크라시(vetocracy)의 비극도 예고한다.

이미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지난 2년간 그와 비슷한 상황을 경험했다. 다만 집권 초반부는 대통령 권력이 전성기를 구가할 때라 거대 의석의 민주당도 여론을 의식해 이따금 양보하는 경우가 있었다. 하지만 22대 국회는 선거운동 기간에 ‘대통령 탄핵’이 거론됐을 정도로 증오와 분노가 폭주할 기미를 보인다. 용산의 발연권도 집권 초반 못하다. 이대로라면 22대 국회는 무한 정쟁에 빠져 효율과 생산성이 바닥으로 떨어질 게 뻔하다. 벌써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선거 다음 날 기자회견을 열어 “검찰이 김건희 여사를 즉각 소환해 조사하지 않으면 김건희 여사 종합특검법을 추진하겠다”고 으르러는 상황이

**3대 개혁 달성 위해 민주당의 협조 절실
윤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와 대화 나서야
연립정부 총리 등 협치 시스템도 고려를**

다. 여당 총선 참패의 빌미를 제공한 윤 대통령의 일방 통행식 국정 운영 스타일이 과연 어떻게 바뀔지도 아직은 미지수다.

물론 협치는 힘들다. 그래도 지금 협치를 말해야 하는 이유는 그만큼 한국의 상황이 절박해서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연금·노동·교육의 3대 개혁은 세계에서 가장 급속한 저출생·고령화 추세를 겪고 있는 한국의 생존을 위해서 반드시 달성해야 할 절체 절명의 과제다. 이는 민주당이 집권했어도 마찬가지로 팔을 걷어붙일 수밖에 없는 국가적 책무다. 이런 개혁 정책들은 반드시 입법이 필요하다. 그 때문에 정부 홀로 추진할 수 없고,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런 개혁 정책들은 퍼주기 정책과 정반대로 기득권 해체와 고통을 수반하기 때문에 반발을 사기 십상이다. 그래서 정치권의 단합된 목소리가 없으면 성공하기가 어렵다. 특히 국회 의석의 절대다수를 차지한 민주당의 협조가 절실한 이유다.

가령 22대 국회에서 첨예한 이슈가 될 국민연금 개혁은 작금의 고령화 추이를 고려하면 ‘더 내고 덜 받는다’ 방향 말고는 다른 대안이 나올 수 없다. 문재인 정부는 국회 절대다수 의석을 갖고 있었으면서도 인기 없는 개혁이란 이유로 국민연금을 아예 손대지 않았다. 그러는 사이 연금 재정 위기는 계속 심화했다. 윤석열 정부는 의석이 부족해 이젠 연금개혁을 억지로 밀어붙일 능력도 없다. 거대 야당인 민주당이 정부를 도와주지 않는다면 이번 정부도 연금개혁을 나 몰라라 할지 모른다. 민주당이 집권을 꿈꾸는 수권정당이라면 인기 없는 개혁은 차라리 야당 시절에 해치우는 게

장래의 정치적 부담을 줄이는 길이다. 그뿐 아니라 의대 입학정원 확대를 비롯한 의료개혁,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개편, 대학 구조조정, 조세제도 개혁, 미래세대 먹거리 창출 등의 굵직한 과제 역시 여야의 협치 없이는 불가능하다.

급속히 악화하는 재정 여건도 정부가 운신할 폭을 좁히고 있다. 어제 정부의 ‘2023 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채무는 1126조7000억원으로 전년보다 59조4000억원 늘었다.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1982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처음으로 절반이 넘는 50.4%에 달했다. 재정이라도 넉넉하면 정부가 개혁에 반발하는 진영을 달랠 선심 정책을 결들일 텐데 지금은 그러기도 쉽지 않다. 결국 대통령·여당과 야당이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나누고 국가의 장래를 위해 합심하는 길밖에 없다.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도 심상찮다. 올해 미국 대선에 트럼프가 당선될 경우 한·미 동맹에 여러 가지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또 미·북 간 직거래가 재개되면 한반도 문제의 논의에서 한국이 소외되는 사태도 예상할 수 있다. 최근 러시아가 유엔 대북제재위 전문가 패널의 임기 연장을 거부하면서 대북 제재 감시망에 구멍이 뚫린 것도 심상찮다. 한국과 중국의 냉기류는 좀처럼 풀릴 기미가 없다. 이런 외교안보 사안에서도 국익을 위

해 여야가 조율된 목소리를 내고, 서로 역할을 나눠 물밑에서 의원 외교를 펼친다면 나라에 큰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협치의 성공을 위해서 무엇보다 윤 대통령의 변신이 절실하다. 윤 대통령은 총선 참패 뒤 “총선에 나타난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여 국정을 쇄신하고 경제와 민생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맞다. 민주당의 협조를 얻지 못하면 국정이 마비된다는 현실을 철저히 깨닫고 먼저 야당에 손을 내밀기를 바란다. 취임 후 한 번도 없었던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의 회담도 이제는 적극 추진해 달라. 여·야·정 정책협의체도 상설기구로 가동하면서 야당의 아이디어도 수용할 것은 적극적으로 수용하자.

총선 패배의 책임을 지고 어제 한덕수 국무총리와 대통령실 고위 참모들이 모두 사의를 표명했다. 어차피 새 총리도 야당의 동의가 없으면 임명할 수 없다. 그렇다면 아예 민주당의 의사를 물어 연립정부형 인사를 총리로 지명하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하다. 또 능력 있는 야당 인사를 장관에 기용할 수도 있다. 여야 협치를 단발성이 아니라 시스템으로 정착해야 한다. 민주당도 국정에 절대 책임이 생긴 이상 여야 협치에 적극 임해야 한다. 거대 의석을 쥐고도 정부 발목잡기에만 골몰한다면 반드시 국민의 역풍을 맞게 된다.

지금 대내외 여건은 한눈팔 때 없이 급변하고 있다. 21대 국회는 너무나 많은 시간을 낭비했다. 22대 국회에서도 정쟁으로 날 새울 여유조차 없다. 이번에도 협치에 실패하면 대한민국이 침몰한다는 점을 여야 모두 똑똑히 명심하길 바란다.

한동훈과 이재명의 앞날

**강주안의
시시각각**

時 視 各 角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전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모두 배우자와 따로 투표한 희한한 선거가 끝났다. 비방으로 점철된 이번 총선의 살기가 실감 난다. 야당의 압승이 되 개헌 가능 의석에는 못 미친 성적표. 지난 4년 내내 반복된 국회 풍경을 4년 더 봐야 한다는 불길한 예감이 든다. 야당 국회의장이 법안을 강행 처리하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고, 정부가 제출한 법안은 야당이 퇴짜를 놓는다. 한덕수 총리 등이 사의를 표했는데 인사청문회의 고성이 벌써 들리는 듯하다.

서로에 대한 적개심은 극에 달한 상태다. 여야의 리더가 이를 조장했다. 정치권에 새 바람을 일으키리란 기대를 모았던 한 전 위원장이 거친 말을 쏟아내며 기성 정치인으로 변신하는 데는 넉 달이 채 안 걸렸다. 이 대표는 자신에게 반대 목소리를 냈던 당내 인사들을 제거한 이후엔 대파를 열심히 들고 다녔다. 이재

손의 계산을 해볼 때다. 이탈리아 역사학자 카를로 M 치폴라는 자신과 남에게 이익 또는 손해를 끼치는지를 기준 삼아 사람을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눴다(『인간의 어리석음에 관한 법칙』). 남에게 이익을 주고 자신은 손해를 보는 사람은 ‘순진한 사람(sprovveduti)’, 양쪽 모두에게 이익을 주면 ‘현명한 사람(intelligenti)’, 남들이 손해를 봐도 내가 이익을 얻으면 ‘영악한 사람(banditi)’, 나도 남도 손실을 입으면 ‘어리석은 사람(stupidi)’으로 규정했다. 이를 양당 리더에게 적용하면, 네거티브 유세로 일관한 두 사람이 남들에게 상처를 줬다는 사실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자신도 실속을 못 행한 한 전 위원장은 ‘어리석은 사람’에 속한다. 승리를 이끈 이 대표는 ‘영악한 사람’으로 분류할 수 있겠다. 이제 총선을 변곡점으로 두 사람은 새로운 갈림길에 섰다. 어제 사퇴한 한 전 위원장은 남에게라도 이익을 안기는 ‘순진한 사람’을 지향할 만하다. 정권 독선을 염려하는 민심을 받들어 정부에 고연하고 야당과의 협치에 헌신하는 길이다. 그러나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버

르는 ‘한동훈 특검법’을 피하려면 윤 대통령이 거부권에 기대야 하는 형편이니 진퇴양난이다.

이 대표는 어떻게. 민심은 민주당에 현 정부의 독주를 막기에 넉넉한 의석을 줬다. 그러나 법을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200석 이상을 허용하지 않았다. 정부와 국회가 서로 견제하라는 유권자의 뜻이다. 이 대표 앞에는 사법리스크가 점점 산중이다. 갈등이 최악인 상황에서 이 대표가 의원직을 잃는 결과가 나온다면 그 역시 ‘어리석은 사람’ 신세가 된다. 협치에 진력하면 새 길이 열린다. 법원이 그의 손을 들어줄 경우 사회 통합에도 기여한 ‘현명한 사람’이 된다. 설령 판결이 뜻대로 안 나와도 정치 갈등을 극복하려 애쓴 ‘순진한 사람’의 찬상으로 훗날을 도모할 수 있다.

인권변호사에서 성남시장·경기도지

**배우자와 따로 투표한 최악 선거
삼겹살·대파 비방전 여야 리더 땀
협치 노력에 따라 둘의 미래 결정**

사를 거치며 미지전적 인물로 평가받은 이 대표는 중요한 고비마다 포용력을 내세웠다. 2017년 대선에 도전장을 낼 땐 “내가 진짜 보수”라는 주장까지 폈다.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윤석열 검사를 검찰총장에 기용하겠다”고 공언한 일도 있었다. 그러나 그의 수중에 들어온 권력의 크기에 반비례해 포용의 폭이 좁아졌다. 이번 총선 공전 과정에선 박용진 의원까지 상식 밖 우격다짐으로 배제하는 광경이 벌어졌다. 이런 퇴행을 선거 승리라는 명분으로 덮는 데는 한계가 있다. 윤 대통령도 어제 “총선에 나타난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들겠다”고 했으니 이 대표가 태세 전환을 하기에 좋은 여건이었다.

선거 운동 막판까지 고기 불판 사진을 확대하며 ‘삼겹살 검증’에 열을 올린 여당 위원장과 파를 모자에 꽂고 퍼포먼스에 열중한 야당 대표는 국민에게 큰 자괴감을 안겼다. 우리 정치 수준이 이 정도는 아닐 거라고 믿고 싶은 마음을 달래주는 속제가 이들에게 남았다. 이 과제를 얼마나 충실히 수행하는가에 두 사람의 미래가 달렸다.

논설위원

중앙일보

구독신청·배달 1588-3600 / 080-023-5001 홈페이지 http://jibfe.joongang.co.kr 광고 접수 02-751-5555 / FAX 02-751-5806 홈페이지 http://ad.joongang.co.kr 기사제보 및 기사관련 물품·불만 처리센터 02-751-9000 / 080-023-5002 / E-메일 sarangbang@joongang.co.kr 03909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암산로 48-6 안내전화 02-751-5114, 9114 본사 인쇄·재제사 마약 THE NEW YORK TIMES, THE WALL STREET JOURNAL, LOS ANGELES TIMES, NEWSWEEK 영국 FINANCIAL TIMES 일본 경제매거진, 日本経済新聞 구독료 월정 20,000원 1부 1,000원	사장·발행인 홍정도 주필 이허경 편집인 최훈 신문제작총괄 고현곤 편집국장 김중윤 1965년 9월 22일 창간 / 1965년 7월 30일 등록번호 7100195 본지는 신문윤리규약 및 그 실천도장을 준수합니다. 저작권 © 중앙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워싱턴 중앙일보

전자신문 보기

주 6일 발행되는 워싱턴 중앙일보 전자신문을 이제 스마트폰으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내 손안에 신문! 언제든 편리하게!

QR코드를 스캔해주세요!

Hair **Z**one

20주년 기념 스페셜!!

20주년 특가 이벤트 !!

- Mens Hair Cut
Seniors (Up to 65)
Kids (Under 15)
Military

\$19,99

Jacky, Ellen 제외



Body Massage \$49,99 (애난데일점)

60-Minute Body Massage
- Relaxation Full Body
- Swedish with Free Essential Oil
- Therapeutic Deep Tissue



Ellen

Business Hours

MON - SAT 10AM - 6PM
WED, SUN CLOSED

Burke

202-580-9398

8985 Hersand Dr
Burke, VA 22015



Jacky

Business Hours

MON - SAT 9AM - 7PM
SUN 12PM - 5PM

Annandale

703-750-1020

6920 M Bradlick Shopping Center
Annandale, VA 22003

뉴욕·한국·일본에서 30년 경력 스타일 리스트

Hair **Z**one

바버 or 미용사 / 바디 마사지사
풀 타임 / 파트 타임 구함

Hair Zone 예약 App Download



Apple



Android

H MART × **Pulmuone**

짜장면은 추억이다.

행복한 기억, 풀무원 짜장과 함께하세요

Make Happiness Happen
with Pulmuone Jjajang

APR. 12TH - APR. 18TH, 2024



\$8.99



\$4.99

THE BEST OF ASIA IN AMERICA. SINCE 1982.

VIRGINIA

- FAIRFAX 11200 FAIRFAX BLVD., FAIRFAX, VA 22030
- ANNANDALE 7885 HERITAGE DRIVE, ANNANDALE, VA 22003
- CENTREVILLE 13818 BRADDOCK ROAD, CENTREVILLE, VA 20121
- FALLS CHURCH 8103 LEE HIGHWAY, FALLS CHURCH, VA 22042
- MANASSAS 8819 CENTREVILLE ROAD, MANASSAS, VA 20110
- BURKE 9550 BURKE ROAD, BURKE, VA 22015
- HERNDON 1228 ELDEN ST., HERNDON, VA 20170

MARYLAND

- CATONSVILLE 800 NORTH ROLLING RD., CATONSVILLE, MD 21228
- GAITHERSBURG 9639 LOST KNIFE RD., GAITHERSBURG, MD 20877
- WHEATON 12015 GEORGIA AVE., WHEATON, MD 20902
- FREDERICK 1063 W. PATRICK ST., FREDERICK, MD 21702
- ELLICOTT CITY 3301 NORTH RIDGE RD., ELLICOTT CITY, MD 21043

Law **곽태우 변호사**
K Law Firm, PLLC
이민 / 부동산 매매 (1031 Exchange)
비즈니스 매매 / 리스
리빙트러스트 / 이혼 / 유언장
T. 571.405.6540

week & 연예/문화 Sports

① 중앙일보 JoongAng Ilbo

Friday, April 12, 2024 C

냉·난방 **제로로 설치해야 반영구적!**
오래되고 잦은 고장의 기계
더이상 망설이지 마세요.
최고의 기술과 최저의 가격으로
교체해드립니다.
덕트 클리닝
최신장비로 서비스 전후를
확실히 비교해 드립니다.
www.LBuniversal.com
Office: 703-618-4822
Cell : 703-678-1749

연방파산법이 지정하는 채무구제 기관
법무법인 한미
파산
이혼
상속
임금
소송
임종범 대표 변호사 (VA/MD)
703-333-2005
301-230-3122
4216 Evergreen Ln., #131, Annandale, VA 22003

김웅용 변호사
JOY LAW GROUP
이민법
영주권 (결혼/취업)
시민권
NIW
간호사 (RN)
E2, R 비자
703-246-9100
703-309-1455
joylawgroup@gmail.com

Dental Implant \$1,000
(치과 임플란트)
Implant Crown - Extra
(임플란트 크라운은 별도 \$750)
40 years of experience
in every aspects
of Dental Implants, especially
in Full Mouth Cases
다양한 종류의 치과 임플란트
특히 Full Mouth Case
40년 경력
Kie D. Lee, DDS, MD
WashingtonImplantCenter.com
6220 Old Keene Mill Ct.
Springfield, VA 22152
(703)569-8000

간병인의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CSC Home Care (Hanmi Homehealth)
회사는 1,200여명의 간병사를 교육하여
배출한 정량있는 정직한 회사입니다.
특히, 개인 부담으로 간병사를 구하시는 분은
특별 상담하여 드립니다.
www.Hanmihomehealth.com
6214 Old Keene Mill Ct., Springfield, VA 22152
한미간호학교
Hanmi Nursing School
한미 간호 학교는 미주 지역에서
유일하게 이중언어로 CNA
교육과정을 제공 하고 있습니다.
T. (703)303-4556 / T. (703)303-0988
www.Hanminursingschool.com

알뜰한 럭셔리 크루즈 여행을 위한 '꿀팁'



▲ 바하마 낫소 터미널에 정박한 크루즈와 아틀란티스 리조트

곽노은과 함께 떠나는
낭만의 크루즈 여행
캐리비안 크루즈 여행 ⑤

크루즈출항지가 만약 유럽 등 다른 대륙이라면 항공권 구입도 매우 중요하다. 크루즈 패키지를 아무리 싸게 구입해도, 항공권이 비싸면 여행경비 또한 높아지기 때문이다. 항공사도 늘 세일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항공권을 저렴하게 구입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다. 이럴 때는 믿을 수 있는 미국여행사의 인디펜던트 패키지를 구입하면 된다. 인디펜던트 패키지란 왕복항공권과 4박 5일 등의 호텔이 포함된 여행 패키지를 말한다. 물론 가이드 없이 호텔도 내가 알아서 찾아가야 한다. 어떨 때는 호텔 포함이 아닌 왕복항공권+7일 렌트카 패키지가 있을 때도 있다. 보통은 왕복항공권 +4성급 호텔 4박 5일 패키지는 \$1,000 미

만에 구입할 수 있다. 하지만 만약 거주지가 뉴욕, 보스턴, LA, 시카고라면 똑같은 패키지를 \$800 미만에 구입할 수도 있다. 여행 수요가 많기 때문이다. 하지만 워싱턴, 볼티모어, 덴버 등 수요가 많지 않은 도시에서 떠나는 패키지는 조금 더 비싸다. 그래도 왕복항공권을 저렴하게 구입하는 방법으로는 이것이 최선의 방법이며, 인디펜던트 패키지를 구입하면 크루즈가 출항하는 도시를 며칠동안 더 여행할 수 있는 기회도 주어진다. 일석이조인 것이다. 여기에 유럽여행을 더 하고 싶으면 패키지 예약할 때 돌아오는 날자만 더 늦추면 된다. 그러면 크루즈 여행이 끝난 후 2주, 3주, 한 달 또는 두 달 등 내 마음대로 유럽여행을 즐길 수 있는 것이다.

가격은 \$800 이었지만 우리는 한 사람 당 \$1,100을 지불했다. 예약할 때 돌아오는 날자를 10월 6일로 늦추고, 돌아오는 공항도 밀라노가 아닌 스위스 취리히로 바꾸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4박 5일 여행이 아니라 45박 46일의 장거리 여행이 된 것이다. 밀라노에 있는 5일 동안은 밀라노와 그 주위에 있는 마을들을 관광하고, 이후 렌트카로 베로나, 돌로미티, 베네치아, 피렌체, 시에나, 투스카나 등 이탈리아의 북부와 중부 지방을 여행하고, 밀라노에서 렌트카를 리턴한 후 기차를 타고 루가노로 올라 가스위스에서 렌트한 자동차로 인터라켄, 그린델발트, 라우터브루넬, 슈타인 암 라인, 루체른, 장크트 갈렌 등 스위스를 여행한 후 취리히에서 렌트카를 반납하고, 기차를 이용하여 콘스탄츠, 뮌헨, 라벤스부르크, 뉘른베르크, 밤베르크, 슈투트가르트 등 독일을 여행하는 것이다. 이렇듯 인디펜던트 패키지를 이용하

면 크루즈 여행도 즐기고, 내가 가고자 하는 다른 유럽 국가도 쉽게 여행할 수 있다. 유럽의 유명한 크루즈 출항지로는 스페인의 바르셀로나, 영국의 사우스햄튼, 네덜란드의 암스테르담, 그리스의 아테네, 덴마크의 코펜하겐, 이탈리아의 베네치아, 프랑스의 마르세유, 독일의 브레멘데, 에스토니아의 탈린, 아이슬란드의 레이카비크, 노르웨이의 베르겐과 트롬쇠 등이 있다. 7년 전 북유럽 크루즈를 여행할 때 생 7인 일이다. 갑판에서 독일에 거주하는 독일교민 여섯 분을 만났다. 세 명의 남자 친구들이 아내들과 함께 하는 그룹 여행이다. 그들은 모두 1960-1970년대 독일로 파견된 광부와 간호사 부부였다. 반갑게 이야기 하다 승무원 서비스료에 대해 그들은 불만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당시 승무원 서비스료는 매일 \$12씩 열흘 동안 \$120을 지불해야 했다. 세 부부가 합쳐 \$720이다. 글: 사진:곽노은 > 3면 '캐리비안 크루즈 ⑥'로 이어집니다

공인회계사 김서규 CPA
703.914.0085
7535 Little River Tnpk., #310-B
Annandale, 22003

김철민 변호사
이민법 / 상법
취업이민, 가족초청, NIW, H1B, F1, E2비자
비즈니스, 계약, 리스, 회사설립, 투자자문
703.973.8700
7700 Little River Tnpk., #303, Annandale, VA 22003

염증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나투라 치과
구강교육치과
dental implants
bright smile
703-652-4265

아름의 사막다리
www.jilcontractor.com
703-835-0945
ROOF
20년 이상된 지붕! 점검 필수! (상담 환영)

대형 교통사고 전문
전직검사 한인2세 교통사고전문변호사! 같은사고! 다른결과!
ROWE WEINSTEIN & SOHN PLLC
로우와이스틴 & 손로폼
Attorneys and Counselors Law

사고가났습니까? 즉시 연락주세요. 바로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가벼운 접촉사고 부터 사망사고 까지-

사고처리
v 교통사고 직후 현장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v 교통사고, 경찰에 신고 해야 하나요?
v 접촉사고 후 가해자가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나요?
v 목격자는 필요하나요?

형사처벌
v 교통사고 후 구속되는 경우
v 음주운전 (DUI, DWI)
v 각종 교통 티켓
v 면허정지 (Licenses Suspension)
v 면허취소 (Licenses Revocation)
v 감옥형벌 (Jail Penalty)

교통사고 법정 변호사
전직 검사
교통사고 법정 변호사

패트릭 플로레스 Patrick Flores
노승훈 Robinson S. Rown
로버트 캐들 Robert Cadle

교통사고 법정변호사 pflores@rowepllc.com
교통사고 법정변호사 rrown@rowepllc.com
교통사고 법정변호사 rcadle@rowepllc.com

Super Lawyers
The Washington Post
Magazine 선정
Top 100 법정변호사

[보상금을 받지 못할 경우 변호사비용 일체 무료]

MD 301-770-4710 VA 703-887-1037 888-340-7583
909 Rose Avenue, Suite 640 N. Bethesda, MD 20852
7010 Little River Turnpike Suite #300 Annandale, VA 22003
2200 Pennsylvania Avenue, N.W., 4th Floor Washington, D.C., 20037
www.rowepllc.com
FAX 301-770-4711

Mrs. Lee 사무장
한미 505
703-887-1037
www.rowepllc.com

산에 미쳤던 감응의 화가, 매년 달랐던 벚꽃 그림

화가 아름다운 풍경을 보다가 '감응(感應)'이 일어나면 그림을 그린다는데, 나는 반대다. 아름다운 그림을 보다가 감응이 일면, 그 장소를 찾아가 보고 싶어진다. 대체 얼마나 아름답길래 이런 그림이 나올 수 있나. 이런 생각으로 예전부터 보고 싶던 장소가 있었으니, '쌍계사 가는 길'이었다.

박고석(1917~2002)이라는 화가가 있었다. 이중섭의 절친으로, 그와 마찬가지로 6·25 전쟁 중 월남한 후 2002년까지 살았다. 그가 그린 말년의 명작 중 벚꽃 만발한 '쌍계사 가는 길'이 여러 점 있는데, 그 작품들이 너무나 아름다워서 정말 그런 장소가 있는지 궁금해졌다.

올해 벚꽃 철에는 가보리라 작정하고, 실행에 옮기려 인터넷을 뒤져봤다. 경남 하동군 화개면에서 쌍계사로 올라가는 길은, 이미 '하동 십리벚꽃길'라는 브랜드가 매겨져 매우 유명한 길이 되어 있었다. '흔레길'이라고 해서, 벚꽃 필 때 이 길을 지나면 연인은 결혼으로 이어진다는 '전설'까지 만들어져 있었다. 벚꽃 개화에 맞춰 축제가 벌어지고, 벚꽃이 언제 피는지 실시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동군에서는 CCTV를 매달아 홈페이지와 연결해 보여주고 있었다.

이제 이 길을 1980년대 박고석이 다녔던 모습으로 상상할 수는 없게 되었다. 그래도 어쩌랴, 사람들은, 기술은, 편리성은 변해도 매년 봄이 되면 벚꽃이 핀다는 사실 하나만은 변함없는 진실로 남아있지 않은가. 그 사실에 감사하며, 나도 쌍계사 행렬에 끼었다.



1 박고석의 1982년 작 '쌍계사 가는 길'. 원시적 에너지가 넘친다. 개인소장. 2 제목이 같은 1987년 작 '쌍계사 가는 길'. 벚꽃이 좀 더 부드럽다. 개인소장. 3 쌍계사 가는 길을 그린 1988년 수채화. 4 1987년 작 '화개마을'. 화폭을 채운 벚꽃이 몽환적이다. 개인소장. 5 절필 직전 거의 마지막 작품인 1992년 '설악청경'. 설악산 울산바위와 벚꽃을 한 화폭에 담은 상상의 풍경이다. (사진 유족)

박고석이 그랬던 비포장로 사라져

이미 구레중만 가도, 온 천지가 벚꽃이다. 오직 며칠 피고 마는 잠깐의 영화(榮華)를 위해 일 년을 버리고 버틴 벚나무들이 때를 만났다. "전라도와 경상도를 가로지르는" 섬진강 줄기의 화개장터에서 요기하고, 십리벚꽃길에 접어들면 역시 명불허전. 화개전을 따라 형성된 구불구불한 길을 그대로 살려 벚나무를 심다 보니, 자연스러운 곡선 길이 만드는 시아의 반전 매력에 압권이었다.

원래 이 벚나무는 진해와 마찬가지로 일제강점기 총독부가 지역민을 동원해 의도적으로 심은 것. 언제까지나 조선을 통치할 줄 알고, 그나라꽃을 이렇게 방방곡곡 심어놓았는지. 연원을 생각하면 기분이 나쁘지만, 꽃이 무슨 죄랴. 어쨌든 백년 넘는 역사를 자랑하는 쌍계사 벚꽃길은 이제 아름다리 벚나무로 터널을 이루었다.

다만, 박고석이 다녔던 시절 아스팔트가 깔리지 않았던 때의 운치는 사라진 지 오래된 듯. 도로가 사람이 아니라 차를 위한 것이었고, 길가에는 커다란 카페와 가게들이 즐비했다. 예전에 박고석은 이 길 한가운데에서 그림을 그렸는데, 이젠 더 이상 불가능한 장면이 되어버렸다.

원래 박고석은 산 사나이였다. 1970년대 서울에서는 북한산, 도봉산을 많이 탔고, 강원도 설악산을 최고로 쳤다. 설악산 공룡능선을 타다가 폭설에 조난해 죽을 뻔한 적도 있었고, 도봉산에서 암벽등반을 하다가 떨어져 척추를 심하게 다쳤다. 모험심과 패기가 넘쳤던 박고석은 이 시기 도끼로

썩어 누른 듯 강력한 붓질의 암산(巖山)을 주로 그렸다.

그런 그가 나이가 들자, 건강상 이유로 더는 험한 산을 오르지 못하게 됐다. 그래서 찾게 된 곳 중 하나가 바로 쌍계사 길이었다. 1980년대 노년의 박고석은 거의 매년 벚꽃 철에 쌍계사에 갔다. 주로 머물던 곳은 쌍계사 일주문 바로 아래 있던 쌍계별장. 원래 도원암이라는 쌍계사의 암자였는데, 이 시기에는 여관으로 운영되었다. 주인 할머니가 차려주는 음식이 정갈하고, 인심이 좋아 돈 없는 사람은 거저 재워주기도 했다는 '전설'이 전해진다. 실제로 가보니, 쌍계여관은 다시 도원암으로 복원되어 사찰 소유물이 되어있었다. 그래도 단정하고 소박한 멋은 사라지지 않은 암자였다.

박고석은 벚꽃길에서 처음에는 길 한가운데에서 서서, 나중에는 휴대용 의자를 갖다 놓고 앉아서 스케치북에 드로잉을 했다고 한다. 그는 늘 현장



6 경남 하동군 화개면에서 쌍계사로 올라가는 하동 십리벚꽃길의 한 구간. 벚나무 터널이다. 7 1980년대 쌍계사 가는 길 위의 박고석. 길이 비포장이다. 그의 작업을 가까이에서 목격했던 사진가 강운구가 찍었다. (사진 하동군, 강운구)

에서 드로잉을 하거나 휴대용 수채물감 세트를 펼쳐 즉석에서 수채화를 그렸다. 그의 작업을 가까이에서 보았던 사진가 강운구는 박고석의 현장 스케치는 마치 '마술' 같았다고 적었다. 그 스케치를 들고 화실로 돌아와 유화로 옮기는 것이 박고석의 작업 방식이었다.

절경 만해도 감응 없으면 안 그려

사실 모든 화가가 꼭 대상을 보고 나서 바로 그림을 그리지는 않는다. 한번 봤던 기억을 토대로, 그 장면을 그리고 또 그리는 것이 대부분이다. 해방 후 금강산 그림이 그렇게 많이 그려진 것을 보라. 해방 전 가봤던 금강산을 기억에서 소환해서 그린 그림들이다. 그런데, 박고석은 그렇지 않았다. 그는 반드시 어떤 장소에 가서 감응이 일어날 때만 스케치를 했고, 그것을 유화로 옮겼다. 절경을 찾아 높은 산에 힘들게 올라갔어도 감응이 없으면, 그는 스케치북을 꺼내지도 않고 내려왔다. 그러고는 아틀리에로 돌아와도 아무것도 안 그렸다. 그런 식이었으니, 박고석은 벚꽃을 그리려 해도 꼭 그 해, 그때 핀 벚꽃을 직접 찾아가서 눈으로 보고 온몸으로 체험해야만 했다.

작업 방식이 이러하다 보니, 박고석의 벚꽃 그림은 같은 장소를 그려도 매년 그 결과가 달랐다. 그 해 그날의 날씨, 공기, 습도, 바람, 벚꽃의 개화 정도, 그리고 풍경을 바라보는 화가의 신체적 상태와 심리적 환경이 매년 다르기 때문이다.

1982년에 그린 '쌍계사 가는 길'은 나무에 분홍빛이 덕지덕지 두껍게 매달려 있는 모습으로 표현되었다. 물감을 떨어뜨려 얽은 듯 원시적인 에너지가 넘친다. 꽃잎도 떨어진 것 하나 없이 모조리 나무에 매달려 무거워 보일 정도로 풍성하다. 이에 비해 1987년의 벚꽃은 따듯한 햇살을 담백 받아 부드럽고 눈부신 아름다움이 강조되었다. 물감층은 얇고 촉촉하다. 벚꽃 터널 저 너머에는 더욱 환한 빛이 내리쬐는지, 멀리 보이는 흙바닥이 섯노랗게 보일 지경이다. 그러다가 또 화개마을을 내려다보며 그린 '화개마을'의 벚꽃은 어떨까. 야트막한 산을 배경으로 벚꽃이 시야 전체를 뒤덮은 이 작품은 실로 몽환적이다. 이때 벚꽃은 이미 비 내리듯 흩뿌려지고 있었는지, 캔버스 위의 분홍물감이 무너지듯 흘러내린다.

사실 벚꽃 모습만 매년 달라지는 것이 아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화가 자신도 매해 늙어가지 않나. 비슷한 풍경도 이를 바라보는 사람의 나이와 경험이 달라지면 또 다르게 보이는 법. 1980년 박고석에게 벚꽃이 생생하고 풍성해 보였다면, 10년 후 그가 바라본 벚꽃은 훨씬 더 몽글하고 애잔하다. 화가는 그만큼 늙었고, 강렬한 에너지도 욕망도 시들었다. 그는 그러한 사실을 덤덤히 받아들이고 기록하듯, 한해 한해 벚꽃을 그려나갔다.

말년에 산-벚꽃 공존 상상의 풍경

박고석은 그림 그리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되지 않기를 바랐다. 더구나 그림이 수단이 되어 돈을 벌기 위한 의무감 때문이라면, 그건 더 싫었다. 박고석은 이전까지 그림으로 돈을 벌지 못하다가, 갑자기 1980년대부터 작품이 팔리기 시작하면서 수요자가 급속하게 생겼다. 고(故) 이근희 회장도 박고석의 작품을 많이 샀다. 그림을 구해달라는 사람이 많아져 현대화랑 박명자 회장이 그림을 더 그려달라고 졸라도 아랑곳하지 않았다고. 그림을 받아내려고 아틀리에에 찾아가면, 벽에 그림은 없고 등산 장비만 잔뜩 걸려있어 허탕 치기 일쑤였다고 한다. 그리고 말년에는 "내가 돈을 그리는 것 같다"며 절필해 버렸다.

절필하기 전 박고석의 거의 마지막 작품은 다시 벚꽃이었다. 그런데 이번에 그린 벚꽃은 더는 현장에서 만난 살아있는 벚꽃이 아니었다. 그는 이 작품을 예외적으로 매우 크게 그렸는데, 여기에는 그가 그토록 좋아했던 설악산의 울산바위와 쌍계사의 벚꽃이 한 화면에 공존한다. 더 이상 그의 눈앞에 실재하지 않지만, 마음속에 간직된 벚꽃. 그것을 그는 점점이 아련하게 화폭에 담았다. 거동이 불편했고, 그렇게 기억을 더듬어 그릴 수밖에 없는 몸 상태에 이르렀으니, 그는 절필을 선택한 것이리라.

우리가 올해 봄을 맞아 꽃을 찾아다닐 수 있는 것은, 현재의 시간이 우리에게 주는 축복임을 알아야 한다. 아직 꽃놀이를 못 한 이가 있다면, 이 봄날의 축복을 만끽하러 떠남이 어떠할지. 지금쯤 쌍계사 가는 길 벚꽃은 다 지고 말았겠지만, 철쭉, 모란, 라일락, 장미. 아직도 필 벚꽃들이 창창히 남아있다.

김인혜 미술사

교통사고

- 목, 허리 디스크
- 좌골 신경통
- 어깨, 무릎 통증
- 직장사고, 운동사고
- 척추 교정 및 물리치료
- X-ray, 재활운동 시설 완비

수술없이 목·허리 디스크를 치유하는 최신 디스크 감압치료 DRX 9000-C

김응권 척추신경 전문의

모든 통증에는 원인이 있습니다!

정확한 진단, 차별화된 치료로 교통에서 자유로워 지십시오!

교통 사고 후 필요한 모든 절차를 불편함 없이 도와 드립니다.

"내 가족을 보살피듯 정성을 다해 치료합니다!"

김응권 척추신경 전문의

- Johns Hopkins, MBA
- Kyung Hee University
- Life University of Chiropractic
- LCA Member
- VA, MD Boards License with PT Privilege
- Certified Disc Treatment Specialist
- Certified DRX (디스크 감압치료 전문의)
- Whiplash & Brain Injury Traumatology Specialist (교통사고 치료전문)

VA 센터빌
703-815-2300
13880 Braddock Rd., #207
Centreville, VA 20121

MD 락빌
301-881-1000
12230 Rockville Pike, #250
Rockville, MD 20852

MD 엘리콧 시티
410-715-3500
8860 Columbia 100 Pkwy, #311
Columbia, MD 21045

한인 MRI+초음파 센터 T. 410-740-0055
8860 Columbia 100 Pkwy, #10
Columbia, MD 21045

구강교육치과

나투라 치과

dental implants | bright smile

원장 강동호 Don Kang

무보험자를 위한 **무이자 Plan, Care Credit**

- ◇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졸업 DDS
- ◇ 유엔 (Univ. Of Pennsylvania) 치과대학원 졸업 DMD
- ◇ 뉴욕대 (NYU) 치과대학 임플란트 수술 / 보철 과정 수료
- ◇ 씨애틀 인스티튜트 수료 (Seattle Institute)
- ◇ 한국, 미국에서의 22년 임상경력
- ◇ 100여명의 치료 의사들이 활동하고 있는 필라 A-1 Family Dental Care에서 최고 기여 치과의사상 수상

“염증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건강한 치아

임플란트 Implant

잇몸치료 Periodontal Surgery

치아교정 Orthodontics Invisalign

응급환자 Emergency

치아성형 Veneer Lumineers

신경치료 Root Canal Treatment

닥터 강이 구강교육 유튜브를 시작했습니다. 유튜브에서 나투라 치과를 검색하세요!

www.naturadent.net

나투라 치과 페어팩스 T. 703-652-4265
9508 Lee Highway, #A, Fairfax, VA 22031 (구)롯데 쇼핑 근처에 있는 IHOP에서 Lee Hwy 건너편



▲ 세계에서 19번 째로 큰 마르디 그라 크루즈(카니발)와 어센트 호(왼쪽)



▲ 셀레브리티어센트크루즈 14층에서 선댄을 즐기는 승객



▲ 멕시코 코즈멜 터미널 근처 작은 리조트와 수영장



▲ 멕시코 코즈멜 섬 터미널에서 연주하는 마리야치 밴드



▲ 버라이어티 쇼에서 열창하는 필리핀 여가수와 댄서들 (셀레브리티어센트 크루즈)



▲ 셀레브리티어센트 크루즈의 요션 뷰 뷔페 레스토랑



▲ 캐리비언 여행 중 만날 수 있는 펠리컨과 옥색 바다 위이상선

▶ 1면 '캐리비언 크루즈 ⑥' 에서 이어집니다
그들은 말하기를 서비스도 좋지 않은데 승무원 팀이 너무 많다는 것이다. 미국에 사는 우리는 팀 문화가 있어 모든것을 이해하지만 독일에는 팀 문화가 없어 그러는 것으로 보였다. 하지만 교민들은 한국어와 독일어만 할 줄 알았지 영어를 하지 못했다.

아무도 크루즈 측에 불만을 토로하지 못한 것이다. 나는 그들을 돕기 위해 컨시어저로 가서 그들의 사정을 영어로 통역해 주었다. 그랬더니 매니저가 매우 미안해 하며 그들의 서비스료 중 승객들이 원하는대로 가격을 조정해 주겠다고 한다. 알고보니 모든 크루즈 회사에서는 승객의 불만에 대해 최대한의 서비스를 진행시키고 있었다. 결국 독일교민들은 수 백 달러를 절약할 수 있었다.

이후 크루즈에서 여러가지 잡일을 하던 하위 승무원과인터뷰했다. 필리핀 출신의 그녀의 말에 의하면 승무원들은 크루즈 회사와 한번 계약하면 8개월을 크루즈 안에서 생활한다고 한다. 한달에 \$800씩 모두 \$6,400달러의 월급을 손에 들고 집으로 가는 것이다. 그런데 이것은 7년 전 이야기라 현재는 더 많이받을 가능성이 있었고, 프리미엄 크루즈 승무원들은 거기에 맞게 좀 더 나은 대접을 받는다고 한다.

승무원들이 일하는 시간은 평균 하루에 10시간, 일주일에 70시간을 일한다. 그리고 4인 1실 캐빈에서 생활하며, 공동 화장실과 공동 샤워실을

이용하고 있었다. 하지만 승무원들의 캐빈은 크루즈승객들의 객실과는 다르게 아주 작은 공간이다. 이렇게 열악한 환경에서 승무원들이 일하고 있지만, 그들의 만족도는 높다. 크루즈에서 질것 뷔페 식사를 하는 등의식주가 모두 해결되기 때문이다.

또한 크루즈 안에서는 돈 쓸 일이 없어 월급은 한 푼도 쓰지않은채로남는다. 그 월급을 들고 각자 가난한 조국으로 돌아 가는 것이다. 그러면 모든 집안 식구들이 1년 동안 감사하지낼 수 없다고 한다.

보통 크루즈 객실은 방을 청소하는 승무원들이 매일 아침 저녁 두 번에 걸쳐 깨끗이 청소한다. 복도를 걷다 마주치면 승무원들은 반드시 고개를 숙여 공손히 인사한다. 모든 승무원들이 크루즈 승객들을 왕처럼 대접하는 것이다. 크루즈의 하위 승무원과 인터뷰 한 이후부터 나는 기회가 생길 때마다 약간의 팁을 승무원들에게 주기 시작했다. 그러면 승무원은 두 손으로 합장하며 매우 고마워 한다.

지금까지 5편에 걸쳐 크루즈 여행에 대해 설명해 보았다. 크루즈 여행은 짐을 끌고 다닐 필요가 없어 매우 편안하다. 아침에 일어나면 다른 항구에 도착해 있어식사 후 관광만 즐기면 되기 때문이다. 세상은 넓고 갈 곳은 많으며, 크루즈는 우리가 원하는 모든 곳을 향해한다. 잘 계획하여 멋진 크루즈 여행을 즐기며 사는 중앙일보 독자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한다.



▲ 바하마 아다스트라 동물원의 핑크빛 플라밍고



▲ 고향을 그리며 언덕에 앉아있는 해적 그림 (바하마 낫소 해적박물관)



▲ 뱃머리에서 선미로 가려면 이런 복도를 한참 걸어야 한다 (셀레브리티어센트 크루즈)



▲ 옥색 캐리비언 바다 위의 상선과 모래를 걷는 세 여인

- ▶ 인디펜던트 패키지를 구입할 수 있는 웹사이트
 - www.gate1travel.com
 - www.tripmasters.com
 - www.autoeurope.com
- ▶ 전세계의 대형 크루즈 회사 웹사이트
 - (카니발크루즈) www.carnival.com
 - (로얄 캐리비언크루즈) www.royalcaribbean.com
 - (노르웨이안크루즈) www.ncl.com
 - (MSC크루즈) www.msccruisesusa.com
 - (프린세스크루즈) www.princess.com
 - (홀랜드 아메리카크루즈) www.hollandamerica.com
 - (씨보크루즈) www.seabourn.com
 - (쿠나드크루즈) www.cunard.com
 - (코스타크루즈) www.costacruises.com
 - (디즈니크루즈) www.disneycruise.disney.go.com
 - (셀레브리티크루즈) www.celebritycruises.com
 - (후티루트크루즈) www.hurtigruten.com
 - (버진 보아지크루즈) www.virginvoyages.com
 - (바이킹크루즈) www.virginvoyages.com
 - (베케이션스 투고 닷컴) www.vacationstogo.com

꿀팁!



▲ 바하마 낫소 터미널 근처 리조트와 바닷가 풍경

다양한 할인보장 스페셜 이자 150대 이상의 중고차 보유 프레지던트 대상 수상

봄맞이 세일즈 이벤트

빌페이지 토요타

www.BillpageToyota.com

빌페이지토요타 컴

문제 없습니다

- 크레딧 문제 있으신 분
- Bankruptcy 하신 분
- Foreclosure 하신 분
- 한국에서 새로 오신 분

2024 Highlander
정상가 \$42,553
세이빙 -\$2,771
판매가 \$39,782
Stock: 82492

2024 4Runner
정상가 \$50,109
세이빙 -\$3,267
판매가 \$46,842
Stock: 82192

2024 Tundra Platinum
정상가 \$69,391
세이빙 -\$4,370
할인가 \$65,021
Stock: 8207

2024 Camry LE
정상가 \$27,889
세이빙 -\$1,800
할인가 \$26,089
Stock: 82684

2024 RAV4 LE
정상가 \$31,734
세이빙 -\$1,520
할인가 \$30,214
Stock: 82687

토요타 Certified Used Vehicle (보증 중고차) 특선
Certified Used Vehicles

페이지 토요타에서 다양한 중고차를 만나보세요
다량의 중고차 보유

2019 Toyota Camry LE Sale Price \$16,000 Mileage: 97,523 Stock#: 82310B	2020 Toyota Corolla Hybrid Sale Price \$20,579 Mileage: 70,828 Stock#: P7629	2018 Toyota Camry LE Sale Price \$24,255 Mileage: 53,400 Stock#: P7617	2021 Toyota C-HR LE Sale Price \$24,255 Mileage: 18,660 Stock#: P7648	2020 Toyota Sienna Hybrid LE AWD Sale Price \$24,255 Mileage: 73,504 Stock#: P7645	2019 Toyota Sienna Sale Price \$28,995 Mileage: 50,781 Stock#: P7661	2019 Toyota Highlander XLE AWD Sale Price \$31,475 Mileage: 41,668 Stock#: P7551	2023 Toyota Sienna LE Sale Price \$41,956 Mileage: 23,493 Stock#: P7596	2022 Toyota Tacoma TRD Sale Price \$40,818 Mileage: 20,101 Stock#: 82717A	2023 Chevrolet Express Cargo Sale Price \$35,895 Mileage: 47,497 Stock#: P7623

Uber | Lyft
우버/리프트 운영자분 도와 드립니다!
\$750 리베이트 (달력에 문의 주세요)

택스 아이디로도 낮은 이자율에 차량 구입 가능합니다.
높은 이자율로 고민하시거나 파이낸트 부담으로 차량 구입을 망설이시는 분을 빌페이지 토요타가 도와드립니다!
"빌페이지 토요타 스페셜 프로그램" 지금 확인하세요!

"빌페이지 토요타 한인팀이 항상 여러분을 최고로 모십니다!"

한인세일즈

김 광수
301.401.8685

매니징팀

제네랄 매니저 **차니 김**
세일즈 매니저 **손 박**
파이낸스 디렉터 **잔 조**

Bill Page TOYOTA
703.532.8800

2923 Annandale Rd.,
Falls Church, VA 22042

Sales Hours M-F 9am ~ 9pm
Sat 9am ~ 8pm / Sun 11am ~ 6pm

495 Annandale Rd. Bill Page Toyota
Arlington Blvd. 50
Honda 애너데일에서 10분거리!
www.billpagetoyota.com

이 절경 즐기고, 치유의 샘물 마시고

‘피레네(Pyrenees)’는 지리 시간에 누구나 들어봤을 이름이다. 프랑스와 스페인, 서유럽과 이베리아 반도의 경계를 이루는 산맥이다. 피레네도 프랑스에 속하지만, 한국에서는 알프스보다 생소하다. 그만큼 한국인의 발길이 덜 닿았다는 뜻일 테다. 지난달 21~25일 프랑스 피레네 국립공원과 주변 소도시를 탐방했다. 세계적인 종교 성지부터 경이로운 바위산, 기막힌 음식까지, 성(聖)과 속(俗)의 세계를 두루 경험한 시간이었다.

불치병도 낫다는 기적의 마을

프랑스 피레네의 관문 루르드(Lourdes)는 흥미로운 도시다. 인구가 1만4000명에 불과한 작은 마을인데, 프랑스에서 파리 다음으로 호텔이 많다(약 350개). 이유가 있다. 루르드는 교황청이 인정한 세계 3대 성모 발현 성지 중 하나다. 전세계 순례객의 발길이 이어진다.

전설 같은 사건은 19세기 일어났다. 1858년 루르드 강변 동굴에서 14세 소녀 ‘베르나데트 수비루’ 앞에 여인 한 명이 광채와 함께 나타났다. 소녀는 누군지도 모르고 무릎 꿇고 기도했다. 이후 17차례나 더 소녀에게 나타난 여인은 “나는 죄 없이 잉태했다” “죄인을 위해 기도하라” “샘물을 마시고 몸을 씻으라” 같은 말을 남겼다.

소녀는 이 사실을 가족에게 알렸고 소문은 마을로 퍼졌다. 사람들이 동굴로 모여들었다. 물을 마시고 몸에 바른 사람 중 불치병이 낫는 기적이 속출했다. 프랑스 전역이 루르드를 주목했다. 쉬쉬하던 루르드 지역의 주교는 1860년 수비루가 성모 마리아를 만났다고 인정했다. 머지않아 교황청도 루르드를 성모 발현 성지로 지정했고, 1933년 수비루를 성녀로 시성했다.

요즘도 한 해 수백만 명이 루르드를 찾는다. 동굴과 성당을 순례하고 기적의 샘물을 물병에 담아간다. 순례객은 치유의 기적이 지금도 일어난다고 믿는다. 지난달 루르드에는 휠체어 타고 온 순례객이 유난히 많았다. 로랑 폰조 루르드관광청 마케팅 이사는 “교황청이 인정한 완치 사례만 70건이 넘고, 보고되지 않은 작은 기적은 수천 건에 달한다”고 말했다.

성지이긴 하나 도시 전체가 엄숙한 분위기는 아니다. 종교와 상관없이 가볼 만한 곳도 많다. 루르드 요새가 대표적이다. 1921년 산악인 부부인 루이스·마갈리드 르 본디디에르가 중세 요새



‘피레네’는 프랑스와 스페인, 서유럽과 이베리아 반도의 경계를 이루는 거대 산맥이다. 프랑스 피레네 국립공원 ‘피크 뒤 미디’ 전망대에 올라 3000m급 고봉들과 운해가 어우러진 풍광을 만났다.



1 프랑스와 스페인의 교역로로 쓰였던 ‘폰데스파뉴’ 다리. 2 루르드 성당에 걸린 성녀 베르나데트의 사진. 3 성모 발현 성지인 루르드 동굴에 모여든 순례객. 4 탁 트인 전망이 일품인 루르드 요새. 5 세계 3대 진미로 꼽히는 푸아그라. 6 루르드 시내 샤키테리에서 맛본 햄과 와인.

를 박물관으로 탈바꿈했다. 피레네 지역의 등산·스키 역사와 산골 사람들의 생활 풍습까지 흥미롭게 전시했다. 부부가 가꾼 정원도 아름답다.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 거대 암벽

루르드 요새는 사방으로 시야가 탁 트였다. 요새 옥상에 올라가면 피레네 산맥의 고산 준봉도 또렷이 보인다. 산맥의 일부인 피레네 국립공원이 루르

드에서 지척이다. 국립공원의 여러 명소 중 가바르니(Gavarnie) 지역을 가장 먼저 가봤다. 가바르니는 국경 너머 스페인 몽페르 뒤(3355m)와 함께 1997년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됐다. 유네스코가 가바르니 지역의 가치를 인정한 건 독특한 지질 때문이었다. 서유럽 판과 이베리아 판의 충돌, 빙하 침식으로 독특한 경관을 빚었다. 프랑스어로 서크

데스파뉴(Pont d'Espagne)’라는 유서 깊은 돌다리를 만났다. 과거 스페인과 무역로로 쓰였던 다리다. 다리 옆 폭포에서 눈 녹은 물이 거칠게 쏟아졌다. 사방으로 물보라가 튀었고, 무지개가 피어올랐다.

‘신의 물방울’ 몽투스 와인 한잔

국립공원 안에는 피레네의 테라스라 불리는 ‘피크 뒤 미디(Pic du midi) 전망대’도 있다. 케이블카(어른 49유로)가 약 15분 만에 해발 2877m 산 정상에 도착했다. 루르드를 출발할 때만 해도 비가 내려 걱정했는데 기우였다. 하늘은 지중해처럼 파랗고 웅단 같은 운해가 산허리를 두르고 있었다. 최고봉 아네토 산(3404m)을 비롯한 무수한 바위산이 가시거리 끝까지 펼쳐졌다.

피크 뒤 미디는 유럽 최고봉 전체관측소이기도 하다. 방문객도 천문관 전시를 관람하고 영상 프로그램을 볼 수 있다. 클레르 수카즈 매니저는 “전망대에는 객실도 15개 있다”며 “이곳에 묵으면 원 없이 별을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피크 뒤 미디는 프랑스 유일의 ‘국제밤하늘공원’이다. 그만큼 대기가 맑다는 뜻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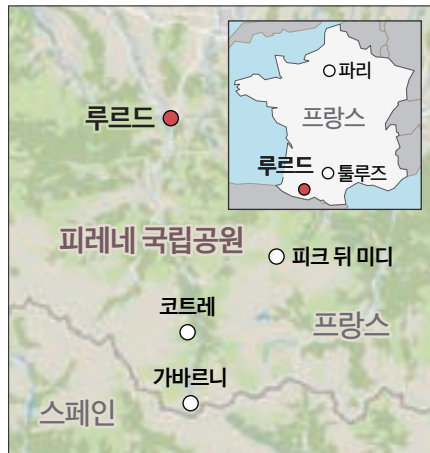
자연 감상이 피레네 여행의 전부 아니다. 이곳이 프랑스라는 사실을 잊지 말자. 프랑스 남서부 ‘옥시타니’ 지방의 향토 음식을 즐기는 재미도 크다. 세계 3대 진미로 통하는 푸아그라(거위 간), 흰강낭콩과 돼지·오리고기를 넣고 문근하게 끓인 카슈레가 특히 유명하다.

흑돼지 뒷다리를 염장한 햄도 빼놓을 수 없다. 루르드 시내에 햄장인 ‘피에르 사주’의 이름을 내건 가게를 가봤다. 2년 이상 숙성한 햄을 시식했는데, 짜지 않고 고소해 계속 손이 갔다.

루르드 인근에는 꼭 들러봐야 할 와이너리도 있다. 옥시타니 지방 포도 품종인 ‘따냐’로 세계적 명성을 얻은 ‘몽투스(Montus)’ 와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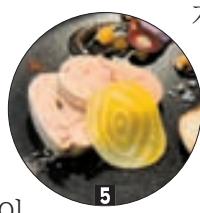
너리다. 와인 혁명가라 불리는 ‘알랭 브루몽’이 1980년 고성을 매입해 와인을 만들기 시작한 뒤 여러 매체가 프랑스 최고 와인으로 꼽았다. 일본 만화 ‘신의 물방울’에 등장했고, 현재 대한항공이 몽투스 레드와인을 비즈니스석 기내식으로 제공하고 있다. 와이너리에서 파는 음식 맛도 훌륭하다. 살짝 익힌 푸아그라, 껍질 맛이 고소한 닭안심구이를 씹다가 2016년산 따냐 와인을 한 모금 머금으니 붓 뜨는 기분이었다. 아찔한 맛이였다.

루르드(프랑스)=글·사진 최승표 기자



(Cirque), 한자로 권곡(圈谷)이라 부르는 바위의 형상을 마주하니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다. 곡면 TV처럼 흰 거대 암벽은 수직 높이가 1.7km, 둘레는 14km에 달했다. 가바르니를 여행하는 방법은 어렵지 않다. 마을 입구에서 바위를 감상하며 산책을 즐기면 된다. 왕복 2시간의 개울 길을 걸었는데, 압도적인 풍모의 바위와 달리 마을 풍경은 정겨웠고 숨이 헐떡이지 않을 정도로 길은 완만했다. 늦봄부터는 바위를 타고 흘러내리는 폭포가 장관을 이룬다.

루르드에서 정남향으로 내려오면 코트레(Cauterets)라는 마을이 나온다. 온천과 스키로 유명한 국립공원 속 휴양 마을이다. 이곳에도 누구나 걸기 좋은 길이 있다. 해발 1460m 국립공원 주차장에서 케이블카를 타고 5분만 이동하면 험한 산속이라고 믿기 힘들 만큼 너른 평지가 나온다. 진한 침엽수 향에 취해 걷다가 산장 카페에서 카푸치노를 마시며 여유를 누렸다. 하산길에 ‘몽



타이슨스 코너 DC Eye Clinic

전안과

**23년 over 9300 백내장/녹내장 수술
over 12000 레이저 치료경력**

진료과목

- 백내장 레이저 수술 (Cataract Laser Surgery)
- 녹내장 레이저 치료&수술 (Glaucoma Laser and Surgery)
- 노년기 황반변성 주사치료 (Macular Degeneration Injection Th)
- 장기적인 눈 검사 (Routine Eye Exam)
- 안구 건조증 치료 (Dry Eyes Therapy)
- 눈 당뇨병 레이저 & 주사 (Diabetes Laser and Injection)
- 안검하수(눈꺼풀 처짐 개선) (Eyelid Surgery (Blepharoplasty))

구인 리셀서니스트/테크니션 구합니다! 이중언어 이력서: dceyeclinic@yahoo.com

원장/ Benjamin Chun, MD

- Brown University BA Degree
- Brown Dartmouth Medical School MD Degree
- Tripler Army Medical Center Internship
- Madigan Army Medical Center Residency
- Madigan Research Ophthalmology - Participated
- Harvard Cardiovascular Research Program - Participated
- American Board of Ophthalmology Certified
- Voted 2020 Best Eye Dr from Top Doctors Pittsburgh Magazine
- Korean Daily Medical Columnist

Vienna T: 703 853 1966
8381 Old Courthouse Rd Suite #345
Vienna, VA 22182 dc-eyeclinic.com

White Oak T: 412 681 8505
1985 Lincoln Way Suite #15
White Oak, PA 15131

Shady side T: 412 681 8505
5438 Centre Avenue
Pittsburgh, PA 15232

South side T: 412 681 8505
144 South 20th Street
Pittsburgh, PA 15232

한국말로 진료 받으세요!!

약착같은 부동산 비키리

4월 HOT 리스팅

집 팔기 딱 좋은 계절이 왔습니다.

믿을 만한 부동산을 찾으십니까? 최소한의 비용으로 집을 수리하시고 싶으신가요?
집값은 최고로 받고, 빨리 팔고 싶으신가요? 비키리 부동산에 지금 당장 전화!! Tel: 703.231.5572

꼭, 약착같은 부동산 비키리 부동산과 상의해 주십시오!!

전화 문자 **703-231-5572**

비키리 브로커

페어팩스 콘도
방2+화2
\$410,000

페어팩스 타운홈
방3+화3, 차고2
\$800,000

센터빌 타운홈
방3+화3.5
1,496 sqft, 1993년
\$535,000

센터빌 타운홈
방3+화3
1,360sqft, 1985년
\$500,000

앰플러스 부동산 / 탑 프라퍼티 임대관리회사

버지니아 / 703-863-0321
11350 Random Hills Rd., #870
Fairfax, VA 22030

베일랜드 / 301-399-0140
6701 Democracy Blvd., #300
Bethesda, MD 20817

D.C. / 301-399-0140
13001 I St, NW #400E
Washington DC 20005



김치 홀세일 소규모 패키징 오더 주문 받습니다.

김밥 & 도시락 단체 주문



**김치, 피클, 젓갈, 계장, 미역, 다시마 등
한국에서 온 식품과
컵밥과 김밥을 팔고 있습니다.**



12205 Nebel St.
Rockville, MD 20852

15% **신문 보시고
매장 방문하시는 분께
디스카운트 혜택** (4월 말까지 적용)

브라이언 한 **301-633-2277**



김민재 벤치 앉히더니... 투헬 감독 '투 헬'?

‘괴물 수비수’ 뮌헨 이적 후 고전 팀 전술이 김민재 감점 못 끌어내 독일 언론, 감독과 불화설 내보내 올 시즌 끝나면 감독 하차 예정

“자신감 부족인가. 아니면 실력 부족인가.”

독일 키커는 최근 독일 프로축구 바이에른 뮌헨 수비수 김민재(28·사진)의 경기력을 분석하며 이런 의문을 제기했다. 지난 시즌 나폴리에서 뛰며 이탈리아 세리에A 우승과 리그 올해의 수비수 등을 휩쓴 김민재는 올 시즌 이적료 5000만 유로(약 710억원)를 기록하며 뮌헨 유니폼으로 갈아입었다. 그러나 나폴리에서 펼쳤던 날았던 것과는 달리 뮌헨에선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김민재는 올 시즌 전반기까지만 해도 거의 모든 경기에 선발로 나섰다. 토마스 투헬 뮌헨 감독의 신임을 받는 듯했지만, 후반기에 접어들면서 사정이 달라졌다. 투헬 감독은 에릭 다이어가 올 초 토트넘에서 이적해오자 김민재의 출전

시간을 즐겼다. 지난 10일 뮌헨과 아스널(잉글랜드)의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8강 1차전(2-2무)에서도 마찬가지였다. 투헬 감독은 아스널을 상대로 최정에 멤버를 꾸렸는데, 김민재는 벤치만 지켰다.

대신 김민재는 지난 7일 분데스리가 28라운드 하이텐하임전에 5경기 만에 선발로 나섰다. 아스널전 직전 경기라서 투헬 감독이 일부 로테이션 멤버를 가동했다. 하지만 결과는 나빴다. 뮌헨은 전반에 2골을 넣으며 앞서갔지만, 후반 김민재가 수비에서 한두 차례 흔들리면서 내리 3골을 내주며 2-3으로 역전패했다.

독일 언론은 김민재의 경기력을 혹평했다. 키커는 “그라운드에서 감각이 떨어지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독일 스포르트는 “투헬 감독과 김민재 사이에 문제가 있다”며 불화설을 보도했다. 일부에선 방출설도 흘러나왔다.

김민재의 입지가 좁아진 것을 두고 다양한 해석이 나오는데 팀 전술과 동료 선수의 성향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는다. 분데스리가 전문 김오성 해설위원은 “스피드와 패스 정확도가 뛰어난 김민재에게 투헬 감독이 기대하는 건 공·수 상황에서 모두 ‘참견’하는 모험적인 플레이다. 한마디로 그라운드에서 활동 범위가 무척 넓다는 뜻인데 나폴리와 달리 뮌헨에선 김민재가 공격에 가세하다가 역습을 당했을 때 협력해줄 동료가 부족하다. 결국 실전에 대한 책임은 수비수이자 스타 선수인 김민재가 떠안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진단했다. 지난 시즌 나폴리 미드필드진은 수비 가담이 적극적이라는 평가였는데 뮌헨 전술에서 중원을 책임지는 요슈아 키미히와 레온 고레츠카 콤비는 공격적인 성향이 강하다.

반면 김민재 대신 나오는 다이어는 발이 느려 수비 범위가 좁다. 토트넘에서 밀려난 이유다. 그런데 분데스리가는 EPL보다 경기 템포가 상대적으로 느리기 때문에 자리만 지키는 다이어가 안정적인 수비를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게 전문가의 의견이다.

부상으로 인해 포백 수비라인의 변화

가 잦은 것도 김민재에겐 악재로 작용했다. 마타이스 더 리흐트, 다요 우파메카노, 알폰소 데이비스 등 주축 수비수들이 시즌 내내 부상에 시달려 출전 선수가 자주 바뀌었다. 현영민 해설위원은 “수비는 선수들 간의 호흡이 가장 중요한데, 멤버가 자주 바뀔 경우 수비는 물론 빌드업까지 수행하는 김민재의 백업 역할을 효율적으로 해내기 어렵다. 김민재의 경기력은 여전히 좋은데 전술 및 동료들과 합이 맞지 않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김오성 해설위원은 “투헬 감독이 김민재를 잘 활용하지 못한다. 새로운 감독이 오면 김민재는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난 시즌까지 리그 11연패를 달성한 뮌헨은 투헬 감독이 이끄는 올 시즌엔 2위로 밀렸다. 투헬 감독은 시즌이 끝나면 성적 부진에 책임을 지고 팀을 떠날 예정이다.



피주영 기자

안데르센상 불발 이금이 “모두가 날 응원, 등단 40주년 선물 같더라”

“제가 최종후보(6명)에 오른 걸 우리 아동문학 작가들이 자기 일처럼 기뻐해준 데 감동했어요. 아동문학계에서 다 함께 응원해 준 게, 올해 저의 등단 40주년 기념 선물 같습니다.”

이탈리아 볼로냐아동도서전에서 만난 이금이 작가의 말이다. 8일(현지시간) 발표된 올해 한스 크리스티안 안데르센상(이하 안데르센상)의 글 작가 부문 수상자는 오스트리아의 하인츠 야니쉬. 이 작가는 수상 못한 아쉬움 대신 후보에 오른 것 자체가 “기쁘고 영광스럽다”고 했다. “최종후보 자체가 생각 안 했던 일예요. 저는 국제출판계에 소개된 게 2021년 『알로하, 나의 엄마들』 영문판이 나오면서거든요.”

영문판이 나온 그의 작품은 이를 포함해 두 권. 이 작가는 영문판 없는 다른 두 작품을 각각 한국문학번역원과 한국판 출판사

이탈리아 볼로냐아동도서전 매년 각국 1000여개 출판사 모여 18세 이상 관계자만 출입 허용

올해 61회를 맞은 볼로냐아동도서전은 아동도서출판계에서 첫손에 꼽는 행사다. 라카치상 수상 책들을 매달아 전시한 모습. 이후남 기자

가 번역 파일로 만들어 심사에 제출하게 해준 것에 고마움을 표했다.

볼로냐아동도서전이 주관하는 라카치상은 올해 한국 작품 세 권이 수상했다. 김지안 작가의 『달리다 보면』, 서현 작가의 『호랑뱀집』, 최연주 작가의 『모 이야기』가 각각 부문별 우수상을 받았다.

라카치상은 5개 부문별로 대상 한 권과 우수상 2-3권을 수상작으로 뽑아 사전에 발표한다. 한국 작품은 2004년 이후 거의 매년 수



상하는 저력을 발휘해왔다.

2022년 『커다란 손』으로 라카치상을 받은 최덕규 작가의 신작 『폴드 앤 언폴드』(Fold and Unfold)가 대한출판문화협회(출협)가 마련한 한국 출판사들의 부스에서 눈에 띈다. 페이지를 넘겨반으로 접으면 앞쪽 페이지와 새롭게 연결되는 독특한 형태의 그림책이다. 이를 펴낸 독립출판사 유에디션 김운정 대표는 “항공편으로 갖고 온 물량이 벌써 동났다”고 말했다.

올해로 61회인 볼로냐아동도서전은 아동도서출판계에서 첫손에 꼽는 행사다. 아동도서전이지만 18세 미만은 출입이 허용되지 않는다. 어른들, 즉 출판관계자를 위한 전문 행사다. 매년 각국 1000여개 출판사와 5000여명의 참가자들이 모인다.

이번 볼로냐아동도서전의 출협 부스에 참가한 국내 출판사는 32곳으로, 지난해 26곳보다 늘었다. 이와 별도로 문체부·한국출판문화진흥원이 마련한

공간에서는 이금이 작가를 비롯해 작가들에 초점 맞춘 전시관과 수출상담관이 운영됐다.

올해 한국 출판계는 새로운 도전에 나선다. 오는 11월 말 부산 벡스코에서 ‘2024 부산국제아동도서전’을 열 예정이다. 한국에서 처음 열리는 국제아동도서전으로, 출협이 주최하고 문체부·부산광역시가 후원한다. 주일우 서울국제도서전 대표는 “아시아권을 중심으로 세계협력력을 이끌어내려 한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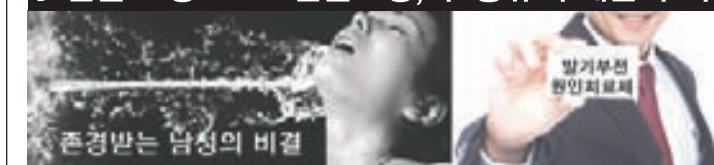
볼로냐 이후 또 다른 숙제도 있다. 지난해 서울국제도서전 수익 정산회계과 관련한 갈등이 불거진 이후 문체부는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이란 이유에서 출협을 통한 직접 지원을 중단했다. 출협 부스에 참가한 각 출판사가 부담하는 비용이 지난해보다 커진 것도 이런 결과다. 문체부는 기존의 관련 예산 등을 공공기관인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을 통해 집행한다는 입장이다.

볼로냐=이후남 문화선임기자

20대 초입의 청년들도 부러워 할 만큼 중장년층 여성과 남성들에게 세상사는 기쁨과 즐거움, 행복한 일상을 만들어주는 성인전용 상품
L C Plaza, P.O. Box 2831, Garden Grove, CA 92842. 전 세계 어디서나 1-213-210-9720 (상담 및 주문), 인터넷 주소: www.yyykkk.com
(지불 방법 : 무통장 은행입금 (Bank of America에 직접 입금), 체크 또는 머니오더 송금, 현금 구매, 모든 Credit 카드, Debit 카드, Check 카드)

남성들의 원기회복과 정력 보강에 특효로 알려진 한방 보약재와 천연 생약재 발효 성분으로 구성된 무절점 부작용 천연 비아그라는, 미국 파이어사의 비아그라를 복용했을 때, 케미컬 성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작용 문제가 전혀 없는 남성 성기능 강화 제품으로서, 지난 26년간 이어져온 꾸준한 판매실적과, 고객들의 한결 같은 사랑으로 100% 안전성과 효능이 입증된 믿을 수 있는 제품입니다.

70~80대 남성도 20대 초입의 건강한 청년처럼 건강하고 활기찬 성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해주는 Made in USA 천연 비아그라 즉효성 남성 발기제 5캡슐 1병 & 20캡슐 1병, 두 종류의 제품 구비



- ▶ 어떤 방법을 사용해도 발기가 잘 안되는 경우
- ▶ 강직도가 충분치 못하거나 일찍 풀리는 경우
- ▶ 비아그라를 먹어도 전혀 효과 없는 분께 특효
- ▶ 내성이 전혀 없는 자연 치유력 증진 효과 보장
- ▶ 여성이 너무 좋아하는 최고 강직도와 지속성

여자가 생각날 때 1캡슐만 복용하면 1시간 경과 후에 여성의 엉덩이나 가슴을 쳐다만 봐도 아랫도리가 분기명천하는 강력한 남성기 발기력 개선 효과가 1주일 가량 지속되게 해주는 보약.

#백인 여성과 일본 여성들의 성생활 동영상 DVD #혼자여도 전혀 외로움이 느껴지지 않게 해주고, 혼자여서 되려 더 행복한 일상을 만들어주고, 혼자서도 외롭지 않게 살아가는 방법을 제시해주는 싱글 남녀를 위한 다양한 종류의 자위용품.

#69 전문가가 권장하는 남녀공용 사랑의 윤활유 『우먼센스 오르가즘 젤™』 \$58 (100회회 사용)

끈적임과 자극성 냄새와 색깔 맛이 전혀 없는 무색무취 무자극성 제품입니다. 남녀 모두 상대방 모르게 사용할 수 있으며, 여성이 성적으로 흥분했을 때 여성기에서 흘러나오는 애액과 흡사한 가장 자연스러운 느낌을 갖게 해주고, 남녀 모두에게 미칠 만큼 달달하고 감미로운 황홀한 질 환경을 제공해주며, 삽입하기 전에 서너 방울 바르고 하면 관계가 끝날 때까지 촉촉하게 미끈거리는 아들아들하고 보들보들한 환상적인 감촉을 제공하는 윤활 작용과 제품을 사용하면 할수록 여성의 성감을 지속적으로 상승시켜주며 평소보다 남성의 성욕이 왕성해지고 발기력이 월등하게 강해지며 여성기의 세균 감염을 방지해주는 위생 작용과 질에서 풍기는 콧냄새까지 청결하게 없애주는 기능성 윤활제 제품입니다.

61 향기로 후각을 자극하여 충동적으로 성욕을 느끼게 해주는 남녀공용 성욕 자극제 향수, 부부와 연인들의 황홀하고 행복한 성생활을 만들어 주는 남녀공용 성생활 개선제 최음제 향수, 향기를 맡는 순간에 무의식적으로 성관계를 하고 싶은 뜨겁고 황홀한 욕정과 사랑의 감정을 느끼게 만들어주는 달달한 매혹의 향기 최음제 향수 \$45 (90회 사용) 자신의 신체 부위에 일반 향수처럼 1~2차례 뿌리고만 있으면 처음보다는 이성이라도 나에게 호감과 관심을 가지게 만들어주고 가장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가질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줍니다.

#G-Spot을 발달시켜주고, 단련시켜주는 천연 옥질 속에 넣고만 있으면 여성 불감증과 오르가즘 장애 4주 만에 완생, 질 괄약근 수축운동과 여성 요실금 자가치료 \$75

10 남성 심볼의 뿌리 부분에 끼우고만 있으면 절대로 시들지 않는 남성기 발기력 강화제 0링 남성 심볼의 뿌리 부분에 밀착시켜 끼우면 빼내기 전에는 절대로 시들지 않는 견고한 강직도 지속 효과와, 터질듯이 부풀어오르는 우람한 사이즈 확대효과, 도통한 링 테두리 부위가 여성생식기를 미칠 만큼 즐겁게 비벼주고 문질러주는 지압 마사지 효과의 0링

1시간 전에 1캡슐 복용으로 1주일 가량 지속효과, 100% 천연 성분으로 구성된 자양강장제 개념의 남성용 1등 건강기능식품, 一石九鳥(일석구조)의 확실한 효과를 보장하는 남성 생식기능 개선제품



- 5캡슐 1병 & 20캡슐 1병, 두 종류의 제품 구비
- ① 신장과 간 기능 건강에 100% 확실한 효과 보장
 - ② 늘상 피곤한 만성피로와 무기력증 한 방에 퇴치
 - ③ 만성 전립선비대증 근본 원인 치료 효과 보장
 - ④ 70~80대 남성들도 규칙적이고 활기찬 성생활
 - ⑤ 점점 양이 줄고 메달라가는 남성 호르몬 보충제
 - ⑥ 막힌 혈관 청소와 고혈압 개선 근본 원인 치료제
 - ⑦ 우람한 남성기 확대 효과와, 견고한 강직도 보장
 - ⑧ 먹기만 하면 커지는 남성기 성장 발육 확대 효과
 - ⑨ 남성 발기부전과 조루증에 확실한 효과 보장

당뇨병 환자도 정상적인 성생활이 가능하게 해주며, 70~80대 남성도 나이와 무관하게 생각 날 때마다 발기력을 짱짱하게 만들어주는 즉효성 남성 발기제 성관계를 하고 싶을 때 1시간 전에 1캡슐만 복용하면 1주일 가량 지속되는 넘치는 정력에 보약효과 만점의 즉효성 남성기 발기제

#12 고대로부터 전해져 내려온 멧방이 남성들의 성생활 필수품 오리지널 천연 낙타 속눈썹 링 (세척을 통해 반 연구적으로 사용) 말초처럼 가실까실한 환상적인 감촉과 실크 원단처럼 하늘거리는 보들보들한 환상적인 촉감이 실신할 만큼 감미롭고 달달하게 여성기 속살을 구석구석 섬세하게 쓸어주는 전설적인 성생활용품

고객님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World Bankcard Service가 새로운 혁신과 서비스로 찾아왔습니다.



1 새로운 크레딧 카드 기계:
결제 중 끊김과 오랜 결제 시간 등의 불편을 해소합니다.
신속하고 원활한 결제를 보장합니다.

2 새로운 POS 시스템:
효율적이고 신속한 POS 시스템을 도입하여
여러분의 사업을 한 단계 높여드립니다.
간편한 운영으로 비즈니스 성과를 더욱 향상시킵니다.

3 더 낮은 카드 수수료:
부담스러운 고물가 시대!
사장님들을 위해 더 낮은 카드 수수료를 제공합니다.
여러분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World Bankcard Service와 함께라면 더욱 원활하고 효율적인 비즈니스 운영이 가능합니다.
저희와 함께 성공을 이루어가십시오. 더 많은 정보 및 문의는 아래 연락처로 문의 바랍니다.



함께하는 비즈니스의 파트너가 되어드립니다.
함께 성장해나가는 여정에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TEL. 703-225-5500, 1-800-927-5675 | FAX 703-225-5507
10855 FAIRFAX BLVD 3rd FL., FAIRFAX, VA 22030
World Bankcard Service

코리아코너

12207 Veirs mill rd., Silver Spring, MD 20906 301-933-2000
세일기간: 4월 12일부터 4월 25일까지 주7일 오픈9:00 AM ~ 9:00 PM
광고 내용 중 예고없이 변경 혹은 수량제한 될 수 있습니다.
WWW.KOREANKORNER.COM

Nishiki/Kokuho
니시끼/국보
Nishiki Premium Kokuho Rice
15 LBS
19⁹⁹

Coripdong 냉면사리 평양식물냉면
Cold Noodles
10ea-2 Kg
Coripdong 냉면육수(동치미맛)
Soup stock for Cold Noodles
5pk-350g/PK
7²⁹
4⁹⁹

JAPANESE MANDOLIN
일제 채칼
Vegetable Slicer
28⁹⁹

낫/호미 있습니다
Iron Sickle
Iron Weeding Hoe
각종 씨앗,모종 있습니다.

Surasang 부추만두
Leek Dumpling
2.2 lb
6⁹⁹

Osaki 게맛살
Fish Cake
17.6 oz
5⁹⁹

Choripdong 마른멸치
Dried Anchovy
8 oz
9⁹⁹

Arinong 김치용태양초 고춧가루
Red Pepper Powder
5 Lbs
20⁹⁹

Dongwon 동원참치
TUNA
Light Standard
4/5.29 oz
8⁹⁹

Paldo 비빔면
Bibimmen
5ea/Pk
3⁹⁹

Ottogi 비빔장
Bibim Sauce
17.64 oz
5⁴⁹

CJO 다시마간장
Low Sodium Seaweed Soy Sauce
840 ml
4⁹⁹

CJO 순창현미고추장
Brown Rice Red Pepper Paste
6.6 Lbs
17⁹⁹

CJO 고소하고 담백한 쌈장
Mild Ssamjang
1 Kg
4⁹⁹

Sinsong 멸치와새우 찌개된장
Seasoned Soybean Paste
500 g
3⁴⁹

Assi 봉평메밀국수
Soba Noodles
2 Lbs
3²⁹

Fullgreen 김치손만두
Dumpling
Kimchi/Vegetable
2 lb
7⁹⁹

S&B 카레
Golden Curry
Mild, Medium Hot, Hot, Extra hot
7.8 oz
2⁹⁹

Surasang 도토리당면
Acorn Starch Noodle
12 oz
3⁴⁹

Hana 다시마
Dried Kelp
10.5 oz
7⁹⁹

choripdong 꽃소금
Fine Sea Salt
5 Lbs
5⁹⁹

Beksul 프락토 올리고당
Oligosaccharide
1.2 Kg
4⁹⁹

Ottogi 다시마 식초
Kelp Vinegar
900 ml
3²⁹

CJ 소갈비/소불고기 소스
Korean BBQ Sauce
29.6 oz
4⁹⁹

Kraft Salad Dressing
All Flavor
16 oz
3⁹⁹

M.Y.San Skyflakes
Crackers
28.21 oz
5⁹⁹

Quaker Oats
Old Fashioned Quick-1 Minute
42 oz
7⁹⁹

Kraft Mac & Cheese
original flavor
7.25 oz
1⁹⁹

Corona Corona Beer
24 Bottles
29⁹⁹

SPAM Original
12 oz
3⁹⁹

Wesson Vegetable Oil
Canola Oil
40 oz
5⁹⁹

LISTERINE Mouthwash
All Flavor
1L
7⁹⁹



CHUNGJUNGONE

ONE BIG SALE

청정원과 함께, 프리미엄 제품을 합리적인 가격에 만나보세요! *Deals for days!*

Stock up on one of your favorite brands, CHUNGJUNGONE. Enjoy limited-time super savings, but hurry - time is ticking!

APR. 12TH - 25TH, 2024



JONGGA Kimchi Ramen
종가집 김치라면
4.93 OZ X 6 BOWLS/BOX

\$ 8.99



CHUNGJUNGONE Dried Seaweed
청정원 남해안산 청정미역
7.05 OZ

\$ 6.99



CHUNGJUNGONE O'Food Gochujang (Brown Rice Red Pepper Paste)
청정원 순창 100% 현미 태양초 찰고추장 6.6 LB

\$ 12.99



CHUNGJUNGONE Sunchang Doenjang (Soy Bean Paste)
청정원 순창 조개멸치 된장 WITH SHELLFISH & ANCHOVY 1.98 LB

\$ 7.99



CHUNGJUNGONE O'Food Premium Oyster Sauce
청정원 오프드 프리미엄 굴 소스 17.6 OZ

\$ 6.99



CHUNGJUNGONE Bulgogi/Kalbi Marinade
청정원 불고기/갈비 양념 (BEEF/PORK) BULGOGI/KALBI /HOT & SPICY - 1.8 LB

\$ 3.99



CHUNGJUNGONE Hongcho 100% Natural Fermented Vinegar
청정원 홍초 석류 POMEGRANATE 30.43 FL OZ

\$ 6.99



CHUNGJUNGONE Tonkatsu Sauce for Pork Cutlet
청정원 클래식 돈카츠 소스 14.1 OZ

\$ 3.4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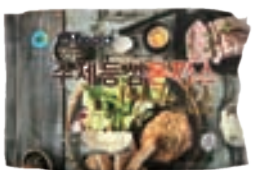
CHUNGJUNGONE O'Food Dumplings
청정원 오프드 만두

\$ 6.99 SELECTED VARIETIES 1.5 LB



CHUNGJUNGONE O'Food Fish Cake
청정원 오프드 명품 부산어묵 SLICE/STICK/MIXED 2.2 LB

\$ 6.99



CHUNGJUNGONE O'Food Pork Loin Fritter
청정원 오프드 수제등심 돈까스 12 OZ

\$ 6.99



CHUNGJUNGONE O'Food Korean Galbi Flavored Cake
청정원 오프드 숯불 떡갈비 14 OZ

\$ 7.9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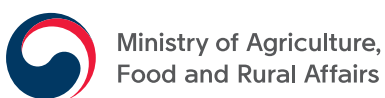
O'Food Cold Noodles Party Pack
오프드 물냉비냉 세트 CHILLED BROTH & SPICY SAUCE 2.5 LB (4 SERVINGS)

\$ 6.99



CHUNGJUNGONE O'Food Luncheon Meat
청정원 오프드 런천미트 12 OZ

\$ 2.99



Celebrating 40 years Since 1982 H MART

VA/MD WEEKLY SALE APR. 12th - APR. 18th, 2024

A K-BBQ ESSENTIAL: CORN CHEESE!

Made easily with simple ingredients, corn cheese is the ultimate hassle-free side dish that's great for any occasion. 치즈가 짙을수록, 옥수수가 특독 터지는 환상의 맛, 콘치즈의 황금레시피를 H 마트가 공개합니다.

Follow us @hmartofficial HMART VA/ HMART MD



Yu Choy 유초이 1 LB \$1.29	Cacao Fruit 카카오 열매 1 LB \$4.99	Broccoli Rabe 브로콜리 라비 BUN \$2.49	Idaho Bagged Potato 백감자 10 LB/BAG \$4.99	Honey/Ataulfo Mango 허니/아탈포 망고 16 CNT/BOX \$12.99	Premium Fuji Apple 후지사과 LARGE/LB \$1.19	Israel Seedless Ori Mandarin 이스라엘 씨없는 오리 만다린 SMALL BOX \$13.99	String Green Bean 스트링 그린 빈 1 LB \$0.89	Sweet Bell Peppers 삼색피망 3 CNT/PKG \$2.99
Thailand Young Coconut 영 코코넛 EA \$2.49	Kabocha 단호박 1 LB \$0.99	Ginger 생강 1 LB \$1.29	Packed Garlic 팩마늘 5 CNT/PKG \$1.29	Baby Romaine 베이비 로메인 2 CNT/PKG FRI/SAT/SUN ONLY 금,토,일 한정판매 \$1.99	White Mushroom 양송이 버섯 8 OZ/PKG \$1.19	Yellow Corn 노란 옥수수 EA FOR \$2.00	Medjoul Dates 메드줄 대추 2 LB/PKG \$11.99	징가 두부 JINGA Tofu FIRM/SOFT/SILKEN 14-16 OZ/PKG \$0.99

신선한 정육 MEAT at unbeatable low prices

Fresh Beef Heel Meat 생 소 사태 1 LB \$8.99	Fresh Pork Spare Rib for BBQ 바베큐용 생 돼지갈비 1 LB \$3.99
Fresh Pork Leg Bones 생 돼지사골 1 LB \$1.49	Fresh Chicken Drumsticks 생 닭북채 (닭다리) FAMILY PACK 1 LB \$0.99
Frozen Sliced Boneless Beef Short Plate 냉동 우삼겹살 1 LB \$8.99	Marinated Thinly Sliced Boneless Pork Shoulder Butt Bulgoggi 양념 돼지 불고기 1 LB \$4.99

싱싱한 수산물 SEAFOOD at shockingly low prices

Fresh Scallop 조개눈 10/20'S 1 LB \$12.99	Pre-Frozen Cod Fillet 대구 전감 1 LB \$8.99
Frozen Chilean Seabass Steak 칠리안 씨베스 스테이크 1 LB \$19.99	SUHYUP Frozen Yellow Tail 수협 방어 1 LB \$1.99
Frozen Whole Cleaned Cuttlefish 껍질 벗긴 갑오징어 1 LB \$6.99	Headless Black Tiger Shrimp 머리없는 타이거 새우 16/20'S 1 LB \$8.99

SMART CARD MEMBER ONLY

KYONG GI ME Medium Grain Rice 경기미 15 LB \$12.99	Salted Shrimp 한국산 새우젓 PRODUCT OF KOREA 2.2 LB \$8.99
CHUNGJUNGWON O'FOOD Bap Sticky Cooked White Rice 청정원 즉석밥 7.4 OZ X 12 EA/BOX \$10.99	SUHYUP Yellow Croaker 수협 영광 참굴비 PRODUCT OF KOREA 21.16 OZ(10 EA)/PKG \$12.99
CHUNGJUNGWON O'FOOD Gochujang Brown Rice Red Pepper Paste 청정원 100% 현미 태양조 찰고추장 6.6 LB \$12.99	DONGSUH Maxim Coffee Mix 동서 맥신 커피믹스 ORIGINAL/MOCHA GOLD 2.6 LB (100 STICKS)/PKG \$12.99

ORGANIC All natural certified delicious

ORGANIC FARM Premium Organic Short Grain Rice 유기농찰 쌀 15 LB \$49.99	ORGANIC FARM Organic Mixed Grains 유기농장 유기농 건강혼합 10곡미 10 DIFFERENT KINDS OF GRAINS 3 LB \$9.99	TODAY'S FARM Organic Grade A Large Brown Eggs 1 DOZ/PKG 투데이스팜 유기농 황란(대) \$4.99
--	---	--

HELLO HOME SMILE, YOU'RE HOME!

HELLO HOME Men's/Women's Bear Hill Slippers 헬로홈 곰바닥 실내화 MEN'S-DARK GRAY/BROWN WOMEN'S-YELLOW/PINK PAIR \$4.99	Yellow Korean Aluminum Pot 한국산 양은 황냄비 22 CM/EA \$7.49
SKINPOD Toner Pad 스킨포드 톤러패드 캐리오티네/워터 파슬리 60 PADS/PKG \$15.99	MELAMINE Tray 멜라민 쟁반 PINK FLOWER/ BAMBOO 39.5 CM X 28.5 CM EA \$3.99

CHUNGJUNGWON ONE BIG SALE

CHUNGJUNGWON Shellfish & Anchovy Soybean Paste 청정원 순창 조개멸치 된장찌개 양념 1.98 LB \$7.99	CHUNGJUNGWON Premium Sesame Oil 청정원 오무드 통참깨 참기름 10.1 FL OZ \$7.99	CHUNGJUNGWON Dumplings/Wontons 청정원 만두/군만두/물만두 SELECTED VARIETIES 1.5 LB \$6.99
GILIM Almond Gilgul Yanghang 아몬드 HOT & SPICY CHICKEN/WASABI MELON/BAVAN/STRAWBERRY 6.8 FL OZ X 4-5 EA/PKG \$5.99	MENOH Sanuki Style Japanese Udon Noodles 메노 사누끼 우동면 2.75 LB (5 EA/PKG) \$3.99	TONGTONGBAY Short Neck Clam Meat 통통배 풀깃쫄기 바지락살 1 LB \$4.99
COLLEGE INN Chicken/Beef Broth 칼리지인 육수 32 OZ \$2.99	KTOWN Dukkoki 케이타운 국물 떡볶이 MILD/SPICY/CRAZY SPICY/ BLACKBEAN 1.09-1.32 LB \$4.99	LOTTE Ice Cream Bar 롯데 아이스크림 바 JAWS/SCREW/NOUGAT/ WATER MELON/GREEN TEA/ WALNUT MAROO 2.4-3.04 FL OZ X 6-8 EA/PKG \$5.99

JINGA 오징어 실채 (흰)

STIR-FRIED DRIED SQUID SLICE

Every Body's Favorite Banchan!

UNTIL APR. 18

~~\$8.99~~ **\$4.99** 3 OZ/PKG

ANTLER POWER PACK SALE!

기력회복과 성장발육에 탁월한 녹용 시리즈 On Sale.

UNTIL 04/25, 2024

KOREAN GINSENG STORY Korean Black Ginseng & Deer Antlers Liquid [70 ml X 30 EA] \$59.99	DONGWON Korean Red Ginseng & Antlers [70 ml X 30 EA] \$29.99
--	---

4월
구
인
광
고

WBS
월드뱅크카드 서비스
직원 모집

▶ 모집분야 ◀
사무직 (월-금)
▶ 대우 ◀
유급휴가 / 건강보험
취업비자/영주권
Sponsorship
\$50,000/Yr

Resume to:
hr@worldbankcard.net
▶ 문의: 703-225-5500 ◀

지휘자 청빙
연합감리회 워싱턴교회에서
지휘자님을 모십니다

자격
• 음악 전공자
• 지휘경력자 우대

제출 서류
• 이력서
• 신앙고백이 들어간 자기소개서

제출
nationalkumc@hotmail.com
301-309-6856
2181 Baltimore Rd, Rockville, MD 20851

엘리콧시티 편한나라 척추신경
직원 모집

WE ARE HIRING

▶ 풀타임 & 파트타임
▶ 정규직원 베네핏 제공
▶ 이중언어 우대
▶ 무경험자 환영

◆ 이력서 보내실 곳 : carefreeland@gmail.com

회계직원 구함
Assistant Accounting Manager

Gov't contracting firm
(FULL TIME)
1년이상 회계업무
(Quickbooks경험)
좋은 인성과 세밀함/성실함

100% Medical/Dental/
Vision/Life insurance
Starting \$55,000

703-691-2852
www.visitlod.com
admin@visitlod.com

LÓTTE Plaza 롯데플라자
**스털링점
푸드코트**

롯데플라자 스텔링점(VA) 에서
근무하실 직원을 모집합니다.

캐시어
풀타임/파트타임

sijang.sterling@gmail.com
성함, 연락처 남겨 주세요!

**코너스톤
종합보험**

사무직원 모집

* 풀타임/파트타임
* 영어/컴퓨터 사용
* Annandale 지역

이력서
joshuaoh123@gmail.com

동부 최대 스크린 골프
**NO.1
GOLF LOUNGE**

"No.1골프에서
함께할 Staff를
구합니다"

571.591.4455
5938 Centreville Crest Ln
Centreville, VA 20121
https://no1golfounge.com

구인

• Office
청소하는 사람 구함
• 경험있는
Area Manager 구함

매나사스 지역 (버지니아)

301-537-3800

구인

바쁜 오토바디샵에서
경험있으신
오토바디 기술자 구함
5+years of body man experience
Busy Auto Body Shop
in Gaithersburg, MD

**T. 301-977-4484
C. 240-246-4477**

Columbia College
교직원 초빙

**미용학과
코디네이터 / 강사**

▪ 라이선스 보유
▪ J-1(교환교수, 인턴)
▪ H-1B Transfer 가능

이력서 제출
raphaell@ccdc.edu
www.ccdc.edu

L&B
Universal, Inc.
히팅/냉동/덕트클린

**HELPER
TECHNICIAN**
(헬퍼/테크니션)
구합니다

전화문의:
703.678.1749

**나투라 치과
직원 모집**

**어시스턴트 및
리셉셔니스**

• 파트타임 (월/화/목/금)
• 영어 가능하신 분
• Entry-Level Welcome

Resume to:
naturadent@gmail.com

**애난데일 회계사무소
직원 모집**

▶ 풀타임 가능하신 분
▶ 영어와 컴퓨터
사용가능하신 분
▶ 무경험자도 성실히
함께 하실 분

* 이력서 보내실 곳 *
topcpainfo@gmail.com

대형믹서기
핫 세일

HOBART Mixer 140 qt.
Lease end
Machine less used
Low price
Year-end Quick Sale

Sfood90@gmail.com
Text: 703-200-5541
(Alex, VA)

**엘리콧시티
택시**

볼티모어 지역 환영
장거리 특별 요금
어느 곳이든 24시간 OK

TAXI
회사 위치:
볼티모어 롯데 마켓 근처

OK 택시
240-796-0093

*본지에 게재된 모든 광고는 광고주의 신청에 의해 게재된 것으로 본지는 그 내용에 대해 전혀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상업성 광고는 줄광고로 무료게재하지 않습니다.)



① 워싱턴 중앙일보

"하루 준비, 끝"

좋은 신문이 당신의 생활을 바꿉니다.
일등신문 중앙일보 하나 보는 것 만으로도 당신의 삶이 편해집니다.
생활을 윤택하게 이끄는 풍요로운 콘텐츠, 아침을 기분 좋게 여는 중앙일보로
하루 준비를 편안하게 끝내시고 행복한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대표전화 : 703-281-9660

중앙생활안내 Classified

중앙일보 2024년 4월 12일 금요일

구인/구직 광고와 개인 렌트 광고는 무료게재, 내용 보내실 곳: kdclass2018@gmail.com (게재중지를 원하실 경우 이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C13

구인/구직

〈사무직/세일즈마케팅〉

코너스톤 종합보험 사무직원 모집
-풀타임/파트타임
-영어/컴퓨터 사용
-Annandale 인근 지역
▶이력서 joshuaoh123@gmail.com

사무직 직원 급히 구합니다
스프링필드에 위치한 간병사 회사
기본적인 컴퓨터 지식과 이중언어 가능하시면
경험 없어도 Training 하여 드립니다.
Full Time / Part Time
▶이력서 : KDLHJL@gmail.com

Smart Insurance P&C(Property and Casualty) specialist 모집
-경력자 우대(P&C License 소지자)/신입 환영
-MS Office 사용가능자
-Benefit: 401K/Health Insurance/PTO/Sick Leave
▶지문: smartacct@solomonus.com 703-639-0882

WBS 직원 모집
사무직, 월-금, 유급휴가, 건강보험, 취업비자/영주권 Sponsorship, \$50,000/Yr
이력서: hr@worldbankcard.net
▶문의: 703-225-5500

애난데일 회계사우수
-풀타임가능하신분
-영어와 컴퓨터 사용가능하신분
-무경험자도 성실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력서 topcpainfo@gmail.com

변호사 사무실 직원 채용
경력, 영어 및 컴퓨터 능력에 따라 18불, 20불, 22불부터 시작. 영어 이력서
▶이력서 : Janammi0410@gmail.com

Fairfax 풀/파트타임 이중언어
사무직 유급휴가 40k-50k 베네핏 제공
▶571-232-0702
coverworldgr@gmail.com

탑 여행사와 함께 할 에이전트를 찾습니다
(엘리엇시티, MD)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제출
-제출 할 곳: ceo@toptravelusa.com
▶703-256-0606

탑 여행사 버스투어 가이드 구함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제출
-제출 할 곳: ceo@toptravelusa.com
▶703-543-2322 (레나 고 실장)

L & B Universal, Inc. Chantilly, VA
HELPER, TECHNICIAN 구함
▶703-678-1749

유재신 공인회계사(Annandale, VA)에서
함께 일하실 분 모십니다. Full & Part time
경력자 우대. 무경험자도 환영.
Benefit (보너스, 건강보험, 유급휴가 등등)
영주권 스폰서 가능
▶Email: employehire13@gmail.com

정관장 애난데일 매장 직원 구함
▶문의: 571-348-3723

WUV대학교 입학처 (이중언어)
풀타임 or 파트타임
이력서제출: hr@wuv.edu

식당 장비 세일즈 하일 분 모집
DC, MD와 북버지니아 지역 식당장비
세일즈 하일분. 경력자 우대.
각종 지원 프로그램 과 수당.
문의: 571-332-2101(문자) 또는
edk_tre@gmail.com

한상준변호사 사무실
이민법에 관심있으신 Entry Level
Associate Attorney 및 직원을 구합니다.
LLM 환영. 이민법 Training 제공. 취업비자
지원 그외 저회 사무실과 동반 성장을
원하시는 변호사님의 문의도 환영 합니다.
lawsjhan@gmail.com
703-256-5050

첼트리 위치한 한미포스트 물류회사
풀/파트타임 (9am-5pm or 10am-2pm)
운영팀 00명, 패킹/포장팀 00명
학생/한국에서 오신지 얼마 안되신분
ceo@hanmipost.com *스폰가능

에버그린 헬스 매니지먼트에서
풀타임 직원모집
Position: Human Resource, Medical
Billing Assistant
한국어/영어, MS Office (Word/Excel)
danny.evergreenhealthcare@gmail.com

버지니아 애난데일 회계사사무실
파트타임/풀타임 직원모집
학생 및 유/무 경험자 환영, 컴퓨터/영어 가
능자, 취업비자/ 영주권 스폰서 가능
이력서: annandalecpa22@gmail.com

수퍼맥스 웨어하우스 직원모집
*수산물 및 서플라이 오더.
(초보자 가능, 최소의 이중언어 및
기본 컴퓨터 요함) - Chantilly, VA
703-665-2162(마이크 임)

Assistant Accounting Manager:
-Gov't contracting firm
에서 fulltime 회계직원 구함
www.visitlod.com
-Quickbook/excel 경험필수
-1년 이상 회계업무 경험 좋은
인성과 세밀함/성실함
-100% Medical/Dental/
Vision/Life insurance
-Starting \$55,000
admin@visitlod.com

Admin Assistant:
애난데일 소재한 정부계약회사
www.visitlod.com
Full Time 행정직원 구함
-안정적인 Position 원하시는분
-Detail에 강하고 좋은 인성 (must)
-100% Medical/Dental/
Vision/Life insurance
-Cash Bonus 포함
-Starting \$55,000
admin@visitlod.com

ASL Division Manager:
애난데일 소재한 정부계약회사
www.visitlod.com
수어(ASL)통역 매니저 구함
-통역사들의 스케줄 관리
-정부계약 및 vendor 관리
-좋은 인성과 성실함
-100% Medical/Dental/

Vision/Life insurance
-Starting \$60,000
이력서: admin@visitlod.com

의료품 관련업체 세일즈 사무직, 스폰서 가능
703-626-3489 / Vp@ytsglobal.com

Silver Spring, MD에 위치한 종합보험
Agency에서 함께 일 하실 이중언어(영어
또는 스페인어) 가능한 유, 무 경험자 구함.
albert@wkkinc.com
301-526-7000 (Cell) Mr. Kim

회계사 사무실 구인/유경험자 우대
Benefit (건강보험/보너스/유급휴가)
영주권 스폰서 가능 함
무경험자도 성실하게 할 수 있는 분
luvacct1986@gmail.com

JTBC 워싱턴 중국 채용공고
JTBC 워싱턴 중국에서 촬영감독 채용
-근무조건: 풀타임 혹은 파트타임
-근무내용: JTBC 뉴스용 보도 촬영 및 기타
-지원자격: 신입 및 경력.
-미국 취업에 걸려서 없는 분
-처우: 보수는 최종 면접 후 결정
-지원서류: 이력서(한글 또는 영문)
phil9@jtbc.co.kr
josephleejtbc@gmail.com

〈병원/치과/덴탈랩/한의원〉

메릴랜드 베데스다 한방병원에서
바디 마사지사 약간명, 리셉션니스트 구함
▶301-787-4842 (문자로만 연락 바람)

센터빌, 첼트리 지역 물리치료 병원에서
한국어/영어 가능한 Receptionist 구함
이력서: coreptrehab16gmail.com
▶703-865-6455

나투라치과 어시스턴트 및 리셉션니스트
월/화/목/금, 영어가능자
Entry-Level Welcome
▶Resume to: naturadent@gmail.com

급구, 센터빌/첼트리 지역
임플란트 전문 치과/풀타임
유경력 어시/리셉션 환영
이력서 첨부 goaepic@gmail.com
▶703-574-0528

치과병원 Front Desk(레스톤/ 타이슨스)
경력자 우대, Dextrix Plus Full/ Part Time
No exp.require 이중언어,
▶tysondentalcenter@gmail.com

닥터오피스 리셉션니스트 구함
파트타임, 풀타임 가능
mercy4resume@gmail.com
▶703-256-3005/703-830-0993

1) 덴탈랩 경력자 세일즈 구합니다
2) 성실한 세라미스트 경력자 구합니다
덴탈랩 Germantown/MD
240-477-5683

닥터 오피스 프론트 일하실 성실하신 분
구합니다. resume 보내 주세요
slim@gastrohealth.com

닥터오피스 리셉션니스트 구합니다.
풀/파트타임, 영어/한국어 가능 경력자 우대
P: 703-965-3103
email: admhappy.hr@gmail.com

러브랜드 홈헬스에서 직원을 모집합니다.
-모집분야: 행정직, 간호사(RN, LPN),

Case Coordinator
-지원자격: 이중언어 가능, 컴퓨터 사용가능,
자격증 소지자
-근무혜택: 건강보험·IRA 혜택제공,
유급휴가 제공 / 경력자 우대함
-지원 및 문의: HR 담당 703-657-0944
E-mail: admin1@lovehandhomehealth.com

〈식당/제과/델리/식품〉

H Mart Wheaton RTC 부서 직원모집
업무: 주방 보조 (주방)
Address: 12015 Georgia Ave,
Wheaton-Glenmont, MD 20902
연락처: Customer Service Manager
▶P: 301-942-5071

콜드스톤(아이스크림 프랜차이즈)
매니저 구함 영어소통 가능하신분
연봉 5만(현지 이주, 업무교육후)
펜스테이트대학주변, 학군 최우수
배우자도 함께 취업시 고소득 (취업기회)
영주권 스폰서 협의 가능, DON 문자주세요!
▶201-316-6754

H-Mart Herndon 직원 모집
Customer Service, Cashier 유경험자 우대
매니저: 임희상 이사
▶571-839-1647

H-Mart Falls Church 직원 모집
Customer Service, Cashier 유경험자 우대
매니저: 박성태 부점장
▶703-573-6300

Global Food VA 매장 그로서리 매니저
info@theglobalfood.com
▶703-897-6100

롯데프라자 스타링점 구인
푸드코트 캐쉬어, 풀타임, 파트타임 가능
성함과 연락처 남겨주세요.
▶sijang.sterling@gmail.com

점보 인터내셔널 슈퍼마켓
정육부 매니저 1명, 그로세리 매니저 1명
은퇴연금/건강보험 혜택
내셔널하버 MGM 근처
이력서: jumbo.food@gmail.com
▶703-577-2425 (전화문의 Mr. 박)

미국음식 하시는 분 구합니다.
경력자 구함. (Woodbridge, VA)
월 \$6500+Tip (전화+text 부탁드립니다)
571-365-8303

성실하고 책임감있는 직원모집
*College Park Area, MD
-Shift Manager 교대근무관리자
사무실 관리자/정육부 관리자/ POS 지원/
Pricing Analyst/ Lead Cashier
*Capitol Heights Area, MD
-사무보조: 이중언어 가능자
PT 20-35HR:\$17-20/h.
jobsmd@outlook.com
문의 : 301-333-2209

베이글샵에서 일하실 분. 파/풀타임 (주말포함)
알렉산드리아 스프링필드 몰에서 5분거리
Text: 703-371-1263, 703-899-5098

볼티모어 지역에서 초보자 사시 & fried
chicken / 파트타임 & 풀타임 구합니다
646-220-8184

애난데일 치맥에서 서버, 캐쉬어 구합니다.
파트타임. 캐쉬페이

571-352-4938/Chimc.va@gmail.com

스프링필드 베이글샵에서 빵구실분 구함.
파/풀타임 월-토, 스프링필드에서 5분거리
703-371-1263

센터빌 Honest Grill 구인
Full/Part-time Server 구합니다.
703-341-7912

메릴랜드 글렌버니 지역 Severna Park
(A.A County) 베트남 식당.
주 2일 일하실 서버구함. 초보자도 환영.
240-678-5395

알링턴 gute Leute 커피샵에서
바리스타 구합니다.
바리스타가 되고싶은 분도 환영.
guteleute.usa@gmail.com
703-989-9828

〈이·미용실/네일/마사지〉

Gaithersburg, MD 남/여 머리하시는 분
▶301-926-3638 / 301-538-4246

페이셜/바디 마사지 같이 하실 분
파트타임(2일), 라이센스 필수
일당 \$280 + 팁(\$70-\$120)
맥클린 소재 한의원
703-839-0766 (문자 요망)

첼트리에 위치한 미용실에서 부스렌트,
스킨케어룸 원하시는 분 구함.
자세한 사항은 문자, 메세지 다 가능
571-215-6767

바버 or 미용사, 바디 마사지사
풀타임/파트타임 구함. 애난데일 지역
703-505-9020

풀/파트타임 이발사 구함. 703-408-1119

4일 또는 2일 일 하실 바버 구합니다
메릴랜드 앤드류 공군 기지 근처
애난데일에서 25분 거리
703-975-8008

아난데일 해와달(SUN'S HAIR) 미용실에서
헤어디자이너분과(커미션 가능)
리셉션니스트(풀, 파트타임 가능)
헬퍼 하실분 구합니다.
703-750-2424
703-717-8256 (메시지 남겨주세요)

애난데일 미용실 내에 룸 렌트 함.
스킨케어, 타투, 속눈썹, 매니큐어 기타 등등
활용 가능. 문자주시면 연락드리겠습니다.
301-852-9298

〈세탁/얼터레이션〉

픽업풀타임 카운터 구함. 우드브릿지 지역
571-455-3609

스테포드 지역 픽업 수선&캐쉬어
Tel. 703-628-9100

픽업 바느질 하실 분(파트타임) / 엘리엇시티
410-926-3200

픽업 스토어 카운터, 얼트레이션 구합니다
(풀·파트타임) 스테포드, 루트원 선상
703-501-3335

생활안내 광고 게재요청
kdclass2018@gmail.com

*본지에 게재된 모든 광고는 광고주의 신청에 의해 게재된 것으로 본지는 그 내용에 대해 전혀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상업성 광고는 줄광고로 무료게재하지 않습니다.)

임업 밀칭

(ALLIANCE LAND MANAGEMENT)

- 토지 개간
- 들판 잔디 깎기
- 울타리 라인
- 산책로 및 목초지

540-905-2849
SALES@ALLIANCELANDMANAGEMENT.COM

English 상담

사무직 직원 급히 구합니다

스프링필드에 위치한 간병사 회사

한미 홈헬스

(Hanmi Homehealth)

기본적인 컴퓨터 지식과 이중언어 가능하시면
경험 없어도 Training 하여 드립니다.

Full Time / Part Time

Please send Resume to
KDLHJL@gmail.com

대형 슈퍼마켓 능력있는 매니저를 모십니다

- 정육부 1명/ 그로서리 1명
- 경험과 능력에 따른 우대
- 은퇴연금/의료보험 제공
- 주말근무 가능하신 분
- 내셔널하버 MGM 근처

(495 벨트웨이 EXIT 4A, 애난데일 10분 거리)

이력서 : jumbo.food@gmail.com
전화 : 703-577-2425 Mr. 박

Jumbo International Supermarket

구인

메릴랜드 베데스다 한방병원에서

바디 마사지사 약간명 리셉션니스트

구합니다!

문자로만 연락 바람

301-787-4842

렌트 수입 좋은 콘도 5채 매매

- PG 카운티에 위치
- 경비 제외한 순렌트 수입 \$5,000/m
- 매매가: \$699,000 (Cash Only)

문의

AGENT 환영

703-244-3453

SERIOUS INQUIRIES ONLY

보험

“메디케어” & “오바마케어” 신청접수!

59년생, C플랜, 약보험

신규가입 · 재가입

자동차 주택 사업체 보험

“보험료”를 확실히 내려 드립니다!

조은혜 종합보험

10560 Main St., Ste 201
Fairfax, VA 22030

☎ 703-591-0009 / 703-537-9899



냉·난방

“냉·난방은 제대로 설치해야 영구적”

오래되고 값은 고장이 기계 이상 망설이지 마세요. 유니버설이 최고의 기술과 최저의 가격으로 교체드립니다.

히팅·에어컨 가정용/산업용 전문

규모가 곧 신용입니다

Carrier, Lennox 전문딜러

큰 규모의 미국 회사는 너무 비싸고 혼자 일하시는 한국 회사는 잘 못 믿으시겠죠? 한인 최대 규모로 저렴하고 정확하게 서비스 해드립니다

VA·MD·DC 지역에서 제일 큰 규모의 냉난방 회사, **L&B Universal**



덕트 클리닝
최신장비로 서비스 전문을 확실히 비교해 드립니다.

에어덕트 속 피드 먼지와 세균 알러지와 질병의 시작 믿을 수 있는 전문인력이 더욱 깨끗이 청소해드립니다.

L&B UNIVERSAL Office: 703-618-4822 Cell: 703-678-1749 3852 Dulles South Ct. #G Chantilly, VA 20151
www.LBuniversal.com www.facebook.com/LandBUniversal

건축 / 페인트

TK 종합건축

Since 1988

30년 경력 종합건축·빌딩시설 관리 전문회사

- ▶ 건축·시공 및 건물·시설의 체계적인 유지보수 대행 관리
- ▶ 상가 및 빌딩 신축·리모델링 ▶ 식당 및 사무실 공사 일체
- ▶ 건물 및 시설 유지보수·관리 대행

무료견적
설계/허가/디자인
시공/유지보수관리

자체 라이센스 보유 및 건축공사 책임보험 가입

Tel: 703-504-6116 / Cell: 703-675-7401

와니건축

Repair Doctor

페인트, 마루, 타일, 부엌, 화장실, 욕, 그외 모든 공사

책임시공/신속처리

-주정부 라이센스/책임보험가입-

Call 24시간가능

(사진보내주시면 즉시 무료견적)

카톡 ID : wani6811

571-331-6811

레드문 페인트

▶ 주택, 상가 페인트 전문 닥터

▶ 욕, 마루, 캐비닛 샌딩 보수

▶ 플로밍, 핸디맨 서비스

703)965-3011

라돈 가스 검사/유리

라돈 가스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라돈 가스는 폐암을 일으키는 원인 중에 2위에 해당하는 보이지 않고, 냄새도 나지 않는 집에서 많이 발견되는 **문제의 가스**입니다. 미국 15채중 1채는 문제가 심각하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꼭 **검사**하셔서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십시오.

NRPP 면허소지 202-774-6554

JK 유리 & Window

C.703-346-5962

상점/가정집 유리·거울

Frameless 샤워도어/Aluminum/Door 설치

MD·VA·DC 지역, 신속시공

이삿짐 / 재테크 / EV 충전기 설치

범양해운 귀국 이삿짐/차량운송



포장이사 및 타주이사 / 주재원 귀국이사 전문 범양해운이 책임지겠습니다.

- 자동차 운송
- 수출입 화물(선박, 항공)
- 소량화물 / 유학생 우대
- 분실 / 파손 보험커버
- 쓰레기 처리가능
- 무료견적
- Door to Door Service
- 창고 보관 및 유통관리
- VA/DC/MD↔NY 정기운행
- 타주이사

범양해운 USA Tel.703-298-1919 7000 Newington Rd., #H, Lorton, VA 22079

www.vapumyang.com / va@pumyang.com / vapumyang@gmail.com
KOREA(SEOUL) 02-2083-2083 KOREA(BUSAN) 051-469-4191 USA(LOS ANGELES) 310-767-5699 USA(SAN FRANCISCO) 510-887-2424
USA(SAN DIEGO) USA(NEW JERSEY) USA(TEXAS) USA(ATLANTA)

HD 현대 통운

- 귀국, 해외 이사
- 타주, 시내 이사
- 귀국, 타주 차량운송
- 한국 소량 화물 배송 서비스
- 고품격 포장이사 서비스
- 자체 창고 보관 서비스

미동부 최대의 운송회사

703.339.8844

www.HDmovingusa.com

고려통운

- 세계 어느곳이나! 세계 어디든지!
- ICC인가업체
- ◆ 세계 84개국 체인 유통망 확보
- ◆ 100% 자체보험으로
- 고객의 추가 보험료 불필요
- ◆ 확실한 세관처리 및 서류작성
- ◆ 한국에서 지불가능 (후불)

Tel.703-550-2424 Fax.703-550-2426 GORYOEXPUS@hotmail.com 7350-E Lockport Pl., Lorton, VA 22079

조양운송

- 신속
- 안전
- 신용
- 저렴
- ▶ 귀국 이사 전문
- ▶ 자체 창고 보관
- ▶ 타주, 시내 이사
- ▶ 전문 포장 이사

(703)550-5550 choyangusa@hotmail.com

NEST ENERGY SERVICE, LLC

- EV 전기자동차
- 가정용 충전기 설치 및 리베이트 도와드립니다!!
- VA/MD 지역 EV충전소 설치업체
- 충전기 설치시 카운티 허가, 인스펙션 도와드립니다
- 지역 전기회사에서 리베이트 받도록 도와드립니다

- 전기마스터 면허와 1M 보험 보유업체 -
www.nestenergyservices.com
703-855-3565

MD 업소 안내

냉난방

JD 냉난방

Mr. 은

410-370-8057

에어컨, 히팅, 냉동, 냉장, 워크인, 아이스 머신



소독

소독 JD Star Pest Control

Mr. 은

Owner / Certified Applicator
410-370-8057
410-370-8484
Rats/Mice, Insects, and Termites



전기 공사

JIP Electronic & Contractor Inc.

전기에 관한 모든 공사
Master Electrician
Class - A 라이선스 소지

전화상담 환영/무료견적/철저한 AS

대표 : 박을구
703.929.9601

보석

Golden Dew Jewelry



기쁨과 행복을 드리는

골든 듀 보석

- ◆ 백금 (Platinum)
- ◆ K14, K18, Setting 전문
- ◆ G.I.A. E.G.L. 다이아몬드 판매
- ◆ 결혼 예물 셋팅 전문
- ◆ 순금 아기를 받지 팔지
- ◆ 남양진주 각종 보석 취급
- ◆ 각종 결혼식, 약혼식 예물용 로렉스시계 전문 판매
- ◆ 각종 보석 감정수리 상담

410-480-2477 8801 Baltimore Nat'l Pike Ellicott City, MD 21043
엘리컷시티 롯데몰라자 내

용자

맞춤 용자의 길인
마이클 장
열정과 정열이 넘치는 용자로 행복해집니다

- 주책용자
- 상업용자
- 재정상담

NMSI Inc. NMLS #201332
410-370-4229
301-275-1494



전기공사, 페인트

- ◆ 각종 전기, 카메라, DATA
- ◆ 24시간 출장가능
- ◆ 리모델링

703-582-7757

에어컨&히팅 / 핸디맨 / 리모델링 / 플러밍 / 카펫&크리닝 / 블라인드 / 마루

애난테일·페어팩스·센터빌 핸디맨

20년 노하우로 집에 관한 모든 작은 일도 시원하게 고쳐 드립니다!

페인트, 플러밍, 전등, 토일렛, 퍼셋, 핫탱크 등 교환 및 수리

T. 571-567-5165

토탈카펫

25년의 전통과 신용으로 **최저가격** 보장

카펫 / 하드우드 / 타일

주거용 **703.909.0988**
상업용 한번 시공한 것은 끝까지 책임집니다.

Chung's Refrigeration
정스냉동

가정용 상업용

에어콘, 히팅, 냉동, 냉장, 전기 프러밍, 워킹쿨러, 아이스 머신 덕트설치 & 크리너

한국 미국 경력30년
Mr.Chung
301-572-2786
703-953-0801

Master Licensed & Insured Contractor
인터테크 냉난방

에어컨 / 히터 / 히트펌프

미국회사 10년 경력 Carrier, Trane 딜러 덕트, 드라이어 벤트 크린

가정용 상업용
www.intertechvac.com
703.380.2282

냉동·냉장고 사고팝니다

아라냉동 판매장 및 장비 수리 센터

에어콘·히팅·냉동·보일러·세탁장비 수리
케리아웃 장비수리·Ice Maker·플러밍
지하수 펌프·정수장치

연중무휴 무료점검

TEL. (443) 850-3703 / (410) 979-4242

제임스 플러밍

저렴한 가격으로 최고의 만족을!

- 수도꼭지, 변기, 하수도 뚫음
- 온수, 히터 (가스, 전기)
- 상하수도 수리교체, 배수 펌프
- Gas 공사, 히팅, 에어컨, 냉동
- 집 안밖 물세는것

24Hr
703.499.5984

조이텍 냉난방

에어컨 히팅
냉동 냉장
워킹쿨러 워터히터
플러밍 전기

Master HVAC Contractor
Master Plumber/Gas Fitter
443.280.1873
410.917.1888 Lee

저렴한 가격! 최고의 만족!

SK 플러밍

- 화장실, 키친 리모델링
- 싱크, 욕실, 화장실, 부엌
- 수도꼭지 / 변기 / 하수도 뚫음
- 온수, 히터 (가스/전기)
- Dishwashers, Disposals
- 상하수도 수리교체 / 배수 펌프
- 철 핸드레일 리페어 및 각종 용접

MD·VA 24 hours 7days Service
703-989-0103

32년 전통의 **베스트**

카펫 및 에어 덕트 크리닝

- 최상의 트럭파워 카펫 스팀 샴푸 (고온 300°F)
- 살균, 소독, 냄새 및 얼룩 제거
- 최상의 브러쉬 발음 에어덕트 크리닝
- 파워 폴청소 (텍, 사이딩, 벽돌 및 마블플로어)
- 응급 수해복구 및 타일
- 폴로어 왁스

서비스 지역 : VA, MD, DC
703.967.4155

빅스톤

플러밍 ◆ 페인트
◆ 목수 ◆ 전기 ◆ 수도

직접 타일 창문 화장실
시공 지하실 마루 부엌

571-338-0977

핸디맨 Since 1999

REPAIR
REMODELING
VA Class A. Insured

571.239.8525

집수리,가게수리 LLC

핸드레일, 계단, 계단손잡이

작은일도 성의껏 일합니다.

703-340-5858 (VA)
443-980-5858 (MD)

H.P.C 집수리센터

집안밖에 문제를 도와드립니다!

- 집안-리페어, 핸디맨 서비스
- 집밖-창문, 사이딩, 거터, 루핑, 데크 등 일체

“ 일단 전화주세요! ”
상세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VA Class A 라이선스 보유 *라이어블리티, 워커스컴 보험 보유

571-594-4080

JL 건축 주방 & 욕실 리모델링

예쁘고 실용적인 주방과 욕실을 디자인하여 만들어 드립니다.

703.910.0400

종합업소안내 가격표

Professional Business Directory

	3 Months	6 Months	1 Year
1BOX	\$300	\$550	\$1,000
2BOX	\$600	\$1,100	\$2,000
4BOX	\$1,200	\$2,000	\$3,600

광고 문의 : 703-281-9660

BBG 블라인드 전문업체

- 한국산 콤비, 롤스크린 블라인드
- 한국산 전동 블라인드
- 한국산 Triple Shade 블라인드
- 한국산 나비주름, 형상 기억 커튼
- 한국산 Cordless 블라인드
- 한국산 Smart Curtain
- 상업용 블라인드 전문제작
- Interior의 완성 블라인드

VA-MD-D.C 무료견적
571.229.4633
www.bbgbllinds.com / bbgbllinds@gmail.com

PARK's Floor

마루경력 20년/견적무료

- 우드, 카펫, 장판 (Hardwood/Carpet /Vinyl)
- LVT(Luxury Vinyl Tile)
- VCT(Vinyl Commercial Tile)
- 라미네이트(Laminate)

703-395-0050

임업 멀칭 / 토지, 들판, 잔디, 울타리, 목초지 관리

ALLIANCE LAND MANAGEMENT FORESTRY MULCHING & LAND SERVICES

핸드폰 540-905-2849
이메일 SALES@ALLIANCELANDMANAGEMENT.COM

임업 멀칭이란 무엇입니까?

임업 멀칭은 자란 나무, 덩굴, 초목을 토양에 최소한의 교란을 주면서 잘게 잘라 멀칭하는 특별한 기술입니다. 뿌리 덮개는 원치 않는 식물의 성장을 억제하고 토양 침식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임업 멀칭

- 토지 개간
- 자란 들판 잔디 깎기
- 울타리 라인, 산책로 및 목초지

용자 가능

군인, 응급 구조대원, 간호사, 교사에 대한 할인 요금

엘리콧시티 · 락빌

환자분들의 편의를 위해 2 로케이션에서 진료합니다.

편한나라 척추신경 전문병원

편한 위치! 편한 치료! 편한 척추!

편한나라는 지난 20여년간 척추와 척추신경과 관련되어 발생하는 통증을 치료하고 있으며, 각 분야의 전문 의료인들의 협진으로 빠르고 정확한 치료를 위해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 교통사고 후유증 치료와 함께 척추 및 자세교정
- 통증 침 치료(Dry Needling)
- 마사지 치료(LMT 라이선스 소지자)
- 디지털 X-Ray, 디스크 감압치료
- 물리치료기구, 재활 프로그램 완비

■ **Dry Needling 이란?** 침을 근육이나 근막조직의 통증점에 자침하는 치료법으로 근육통의 완화, 근육 및 인대의 긴장 감소에 효과가 있습니다.

진료 과목

- ✓ 자동차 사고 후유증
- ✓ 손, 발 통증 및 저림
- ✓ 척추 디스크 통증
- ✓ 어깨 결림 및 통증
- ✓ 두통, 목, 허리 통증
- ✓ 만성근육통

취급 보험

- Blue Cross Blue Shield
- Anthem
- United Healthcare/GEHA
- Innovation Health
- Blue Choice
- Aetna
- CareFirst



Dr. 민혁기

원장 Dr. 송영성

Dr. 석호선

Dr. 민혁기

- 전 경기대 대체의학 대학원 외래교수
- Body Balance Center Director(압구정)
- MD & VA Board Licensed
- Life University of Chiropractic Magna CumLaude(우등졸업)
- Life Univ. Doctor of Chiropractic 과정전액 장학생
- 단대부고 졸업

원장 Dr. 송영성

- 동아고, 경희대학교 졸업
- R.O.T.C 28기
- Life University of Chiropractic
- Graduated Magna CumLaude from Life Univ.
- Practiced in Choi Chiropractic
- Certified in Cox Technique-Low Back Pain
- Certified Dry Needling

Dr. 석호선

- Life University of Chiropractic 졸업
- 대구 대건고, 경북대학교 졸업
- MD and VA Chiropractic Board Licensed
- Licensed Massage Therapist (LMT) of MD & VA
- Completion of Asian Bodywork Therapy Program
- Member of Associated Bodywork and Massage Professionals

엘리콧시티 (410) 480-2331
3201 Rogers Ave. #102, Ellicott City, MD 21043

락빌 (301) 279-6960
2000A Veirs Mill Rd., #A, Rockville, MD 20851

Nation Wide **미전지역 안내광고 동시게재** 광고문의 213-368-2525
 LA · 뉴욕 · 시카고 · 애틀랜타 · 워싱턴 DC

L.A. 애틀랜타 기타 지역

매매 구인 구인

뷰티서플라이
 텍사스 달라스 백화점 물내
 가\$25만, 주인직접매매
 4,700sqft. 렌트\$7,000(UT포함)
 (254)652-1867
 beautyworlddenton.com

일본식당 구인
 *대빵 셰프 0명
 *스시 셰프 0명
 유경험자
 침식제공(겉에서 출퇴근 거리)
 알라바마 관광지역
 (251)968-2525
 (256)653-1970

성실하신분
 컨비니언스토어
 *루이지애나주
 (504)430-8426
 (504)373-2163

가장 작은
 광고로
 가장 큰 만족을
 얻을수 있는
 안내광고
 중앙일보

꿈을 위한 도약
 중앙안내광고가 함께 합니다.
 (213)368-2525

수선 기술자 급구
 Speed Alteration
 일감풍부, 연인컴10~12만
 부부팀 환영, 숙박가능
 배우면서 일할수도 있음
 4551 Office Park Dr. Jackson, MS 39206
(213)507-0387

HotDeal.KoreaDaily.com
 미주 한인 사회 최저가
온라인 쇼핑몰
HOT DEAL
 문의 **213.368.2611**

ASK미국 무료상담
 ask.koreadaily.com ASK미국 THE KOREA DAILY

전문지식부터 미국생활까지
온라인 상담합니다!

ASK미국에서 유능한 전문가를 모십니다!
 전문기통을 원하시는 분은
 askusa@koreadaily.com로 메일 주세요.

법무사가 되세요
 대면 수업 시작!!!
 항상 고소득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누구나 쉽게 배워 자격증을 받을수 있습니다.
 목회자와 사모님을 위한 반을 다시 시작합니다!
 International Pacific University
 InterpacU.com
(213) 505 - 7703

YONSEI UNIVERSITY GLOBAL MBA 2024 ADMISSIONS

Application Period MARCH 7 - APRIL 18
 Application SUBMIT ONLINE

Tel. +82-2-2123-3254 | Email. gmba.admissions.ysb@yonsei.ac.kr

잠자리를 갖기 25분 전에
1캡슐 복용으로 1주일 지속효과
 비아그라의 부작용이 전혀 없는 MADE IN USA
 천연 비아그라, 즉효성 남성 발기제
 발기부전, 전립선 비대증, 배뇨장애
 고혈압, 근본 원인 치료제, 비아그라
 시알리스 효과 없는 남성 특효 보장
1-213-210-9720, papaaaa.com

미주 중앙일보 스마트폰 App
 미주 최대 뉴스 통합
 한인 업소록 모바일 App
 리스트 광고 문의 **(213)368-2532**

Leisure World Seal Beach, CA
고품격 은퇴마을
 주택 구매자 조건

- 연령: 만 55세 이상 (부부일 경우 한분만도 가능)
- 지난 2년동안 세금보고서 사본 (첫째와 둘째 페이지 필요)
- 401K, 은퇴연금, \$2,5만 or \$5만 (6개월 이상 은행예치 증명서 사본)
- 집구매는 일시불로 지불 (Monthly Association Due와 Property Tax를 합한 액수의 4배 이상 월수입이 있어야 됨)

"항흥을 편안하고 행복하게"
 알고 계십니까? 유토피아 라고도 불리는 완벽한 시설 바닷가 인근에 시니어를 위한 실버타운 "레저월드"

레저월드에서 거주하고 있는 전문 Agent
Philip Y. Bak (박윤택) Bre#01895031
 Direct: **(213)550-9991**
 Office: **(562)235-3760**
 최선을 다해 도와 드립니다.
 Berkshire Hathaway baksusa@yahoo.com

미라클터치다 산맥 **천공산삼**
 Up to 40% 할인
 5파운드 이상 구입시 흡세인 가격 판매

- 30년 1파운드 \$750 → \$550
- 40년 1파운드 \$1,500 → \$950
- 50년 1파운드 \$2,350 → \$1,500
- 건산삼 40% ~ 50% 파격세일

US Wildlife & Natural Food Inc.(Dealer #90-447305)
 3003 W. Olympic Bl, #201 LA, CA 90006
(213)800-3662 (818)518-0033

치질·치루 수술 안하고 OK
 미라클터치로 발기 능력 쑥쑥
 항문폴립·변비·요실금도 해방
 새기술가격 크기 항문삽입형, 사용 간편합니다

위산역류 확실히 좋아집니다
 미라클터치로 췌속 독소 제거
 불면증·이명·각종 통증도 탈출
 아픈 부위 30초만 대면 독소가 터져 나옵니다
 LA (213)675-6877 | OC (213)255-1410

한의학박사 서영수원장입니다. 연방정부상무성(P355-19000539)의 인가를 받은 정직한 업소입니다. 35년동안 도와주신 고객 여러분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명품 야생산삼 공동구매 도매 마진없는 심마니 가격
 1파운드 (약40~45뿌리) ~~\$3,500~~ → **\$1200**
 \$4500 → \$1400 \$5500 → \$1700

지긋지긋한 류마티스 관절염, 요통
 모든 통증 척추간 협착증, 오십견
 수술·진통제 없이 치료합니다!
 ▶▶▶ 상삼음육관 요양력사관 50% 특별할인가
 Tel. 213.335.3304 Cell. 213.503.3304
 성민산삼한방병원

담임목사님 청빙공고 알래스카 앵커리지(Alaska Anchorage)에 위치한 알래스카 한인장로교회(Alaska Korean CRC)에서는 다음과 같이 담임목사님을 청빙합니다.

- 청빙 조건:**
 - CRC 교단이 인정하는 개혁신학의 신학교(장로교단)를 졸업 후 CRC 교단 소속이시거나 CRC 교단 가입이 가능하신 분으로서 목사 안수 후 미국에서 담임목사 사역과 부목사 사역으로 5년 이상의 목회사역의 경험이 있으신 분
 - 성경적 신앙인품과 리더십을 가지신 50대 전후이신 분
 - 현재 미국 거주 중이며 취업에 걸려사유가 없는 분
- 제출 서류:**
 - 한글 이력서 (가족사항/본인사진과 가족사진)
 - 자기 소개서 (성장 배경/신앙고백/목회경험/목회비전 간단명료하게)
 - 학사학위와 석사학위 졸업증명서
 - 목사 추천서 2부 (추천자의 연락처 명시: 전화번호, e-mail) (추천자가 추천서를 직접 본 교회로 송부)
 - 소속된 교단에서 발행한 안수증명서
 - 6개월 이내의 설교 영상 1편(온라인 링크 및 설교원고 포함)
 - ▶ 첨부 파일(서류들)은 모두 PDF파일 양식으로 보내 주십시오 ◀
- 추가 사항:**
 - 제출된 서류 : 제출된 서류들은 비밀이 보장되며 반환하지 않습니다.
 - 제출 마감일 : 2024년 4월 30일
 - 보내실 주소 : sungkwankim0105@yahoo.com kwanghwangak@gmail.com

참고 - 서류 심사로 선정된 분들에게는 개별통지를 합니다.
 - 방문 설교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사모님께서 피아노 반주를 하실 수 있는지를 알려 주십시오.

주소 알래스카한인장로교회(Alaska Korean CRC)
 709 W. International Airport Rd, Anchorage, AK, 99518

전화 (907) 632 - 3579, (907) 947 - 5645

Nation Wide **내 광고가 전미주 동시게재??!!**

미주 한인사회 1등신문 중앙일보에 Nationwide 광고 게재시, LA, 뉴욕, 시카고, 애틀랜타, 워싱턴DC 5개 지사 동시에 광고가 게재됨으로 최고의 광고효과를 드립니다!

안내광고 문의: **(213)368-2525**

미국 전지역 안내광고
 LOS ANGELES | 시카고 | 뉴욕 | 애틀랜타 | 워싱턴 DC

The JoongAng New York, Chicago, Los Angeles, Atlanta, Washington DC

지구촌마켓 GLOBAL FOOD

- MANASSAS, VA**
703.369.9977
10320 Festival Lane, Manassas, VA 20109
- WOODBIDGE, VA**
703.897.6100
13813 Foulger Square, Woodbridge, VA 22192
- ALEXANDRIA, VA**
703.933.6033
1476 North Beauregard St, Alexandria, VA 22311
- SILVER SPRING, MD**
301.847.9884
13814 Outlet Dr, Silver Spring, MD 20904
- OXON HILL, MD**
301.485.0651
5470 St Barnabas Rd, Oxon Hill, MD 20745
- BALTIMORE, MD**
410.645.8627
6600-6658 Security Blvd, Baltimore, MD 21207

오픈시간: 월~일요일 (9am~9pm)
www.iglobalfood.com

Weekly Sale
Apr 12 Fri - Apr 18 Thu 2024

본세일은 Woodbridge, Silver spring 매장에만 적용됩니다

각종 모종 판매중
아삭이, 청양, 파리, 홍고추, 깻잎, 호박, 오이, 토마토...

- 만다린 Mandarin** # 2xLG Size **\$1.99** LB
- 로메인 하트 Romaine Hearts** #3 Hearts **\$2.99** BAG
- 후지사과 Fuji Apple** # Sale **99¢** LB
- 오이 European Cucumber** # Sale **99¢** EA
- 호박 Green Squash** # Fancy **79¢** LB
- 고구마 Korean Yam** #Medium Size **\$1.29** LB

SPECIAL SALE
지구촌마켓 빅세일

통연어 WHOLE SALMON
\$6.99 LB

밀크피쉬 MILK FISH
\$3.99 LB

붕어 WHITE PERCH
\$2.99 LB

MEAT

- 화이트 Beef Flap Meat** **\$6.99** LB
- 뉴욕스테이크 Beef N.Y Steak** **\$8.99** LB
- 목살스테이크 Pork Butt Steak** **\$4.99** LB
- 수육삼겹살 Pork Bellies** **\$5.49** LB
- 파울 Heavy Fowl** **\$1.59** LB
- 닭사태살 Chicken Thigh(Boneless)** **\$2.79** LB

HARDWARE

NON STICK COATING PAELLA PAN
29.99 **\$22.99** 45 CM

WOODEN CHOPSTICKS 나무젓가락
3.99 **\$2.49** 100 PRS

WOODBIDGE ONLY

아래 세일상품은 조기에 품절되거나 예고 없이 변경 혹은 수량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HOT SALE

샘표 찰당면 SEMPIO GLASS NOODLE /JAPCHAE 7.99 5.99 900G	샘표 중면 SEMPIO VERMICELLI JUNGMYUN 5.49 4.29 900G	GOLDKILI 꿀생강차 GOLDKILI HONEY GINGER DRINK 5.99 3.49 12.6OZ	만전김 9봉 와사비맛 김 LAVERLAND CRUNCH /WASABI 5.99 4.49 4.5G*9	SHIRAKIKU 건 다시마 SHIRAKIKU DRIED KELP 2.99 2.49 2 OZ	자연과사람들 실미역 DRIED SEAWEED 3.99 2.99 85 G	사슴표 들깨 PERILLA SEED 8.99 7.49 12 OZ	종가 맛김치 MAT KIMCHI 12.99 9.99 1.2KG	WISMETTAC 세카 라이스 WISMETTAC SEKKA RICE 17.99 13.99 15 LB	KADOYA 참기름캔 KADOYA SESAME OIL(CAN) 18.99 14.99 56 OZ
샘표 양조간장501 SEMPIO SOY SAUCE 501 7.99 5.99 1.7L	백설 매실청 BEKSUL JAPANESE APRICOT SYRUP 10.99 7.99 1.02 KG	KIKKOMAN 폰즈소스 PONZU CITRUS SEA. DRESSING & SAUCE 3.99 2.49 10 OZ	초립동이 고추장 HOT PEPPER PASTE 3.99 2.49 500 G	펭귄 콩치캔 PENGUIN CANNED PACIFIC SAURY BOILED 5.49 4.29 400G	할매손 콩국물가루 SOY BEAN BROTH 11.99 7.49 850 G	대상 해물감치미 SEAFOOD SEASONING GAMCHIMI 6.49 4.49 300 G	오투기 부침가루 OTTOGI PANCAKE MIX 5.49 4.29 1KG	초립동이 쌀가루 CHORIPDONG RICE FLOUR 7.49 5.49 2LB	해태 갈아만든 배 CRUSHED PEAR JUICE 5.49 3.99 1.5 LT
WANG 생 손칼국수 FRESH ORIENTAL STYLE NOODLE 5.99 4.49 1KG	아씨 생미역 SALTED SEAWEED 2.99 2.49 14.1 OZ	WANG 청양 고추지 WANG GREEN PEPPER W/SOY SAUCE 5.49 4.49 16 OZ	풀무원 체다 모짜 핫도그 MOZZ,CHEDD & FISHCAKE CORN DOG 8.99 6.99 14.1 OZ	샘표 도미살 부산어묵 SEMPIO SEA BREAM FISH CAKES, ASSORTE 7.99 6.49 2.2 LB	퀴진 케이준 양념감자 CUISINE SEASONED POTATOES 8.99 7.49 800 G	비비고 새우볶음밥 BIBIGO SHRIMP FRIED RICE 7.99 6.49 15.8 OZ	샘표 사누끼우동 SAMPIO SANUKI UDON NOODLES 4.99 3.99 250G*5	WFY트로피카 펄 흑설당맛 WFY TAPIOCA PEARL BLACK 2.99 1.99 250 G	SUPER Q 중국 국수 SUPER Q PANCIIT CANTON 4.99 3.99 454 G

SILVER SPRING ONLY

아래 세일상품은 조기에 품절되거나 예고 없이 변경 혹은 수량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투드 바삭 튀김가루 부침가루 OFOOD KOREAN MIX 3.99 2.99 1KG	오투드 빵가루 OFOOD BREAD CRUMBS 4.99 3.99 500G	샘표 섬마을 저염 파래김 도시락 6+2 SEMPIO LESS SALT GRILLED LAVER-PARAE GIM 4.99 2.99 6+2PK	MORE 잘 담근 김치 포기김치 (한국산) MORE WHOLE CABBAGE KIMCHI 25.99 19.99 7.06LB	오투드 꿀 유자차 풀 생강차 OTG HONEY CITRON TEA OTG HONEY GINGER TEA 9.99 7.99 35.27OZ	가도야 참기름 CAN (2 CAN 한정) KADOYA SESAME OIL CAN (LIMIT 2) 21.99 16.99 56OZ	왕 반반 핫도그 (모짜렐라 치즈 & 소시지) (할로피노맛) WANG HOTDOG 8.99 6.99 5PK/4PK	샘표 조선간장 SEMPIO NATURALLY BREWED SOY SAUCE 7.99 4.99 930ML	PRINCE OF PEACE 생강캔디 PRINCE OF PEACE GINGER CANDY 3.49 1.99 4.4 OZ	이루자 오순이 (버터구이 오징어) ERUZA GRILLED SEASONED SQUID (PEANUT BUTTER) 6.99 3.99 80G	농심 너구리 10PK NONGSHIM NEOGURI SPICY SEAFOOD NOODLE 10PK 13.99 7.99 10PK
---	---	--	--	---	---	--	---	--	---	--